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공학박사학위논문

사회적 재난 이후 조성된 기억장소의 의미해석 -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김 도 훈

사회적 재난 이후 조성된 기억장소의 의미해석

: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성 종 상

이 논문을 공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김 도 훈

김도훈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_	김 세 훈	<u>(인)</u>
부 위 4	원 장 _	김 민 환	(인)
위	원 _	김 연 금	(인)
위	원 _	박 재 민	(인)
위	워	성 종 상	(6])

국 문 초 록

화재, 붕괴, 폭발 등 일련의 사건이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대중의 공분을 일으켜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기는 것을 사회적 재난이라 한다. 이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항상성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다. 때로는 이러한 끔찍한 상황이 사회적 변화를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 재난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참여 활동이 피해자 아픔에 공감하며 집단 외상을 치유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재난 속에서 드러나는 연대의식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며, 아픔의 경험이 사회적 회복력과 공동체 복원의 동력이 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재난의 사례로 세월호 참사를 선정했고, 2014년 4월 16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건의 시작과 전개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참사 당시 배가 침몰하는 모습과 시신이 수습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애도의 마음을 가졌다. 하지만 사고 수습 장기화로 인해 재난현장 이슈가 지역사회로 확산했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고통의 경험이 유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 지역상인, 일반 시민들에게 이어진 것이다.

연구자는 세월호 참사가 다른 사회적 재난 참사와는 다르게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차원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발 견했다. 특히 재난 경험을 망각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적인 공감과 지지를 유지하며 긍정적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유사한 형태의 사회적 참사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현장의 기억이 훼손되거나 형식적인 기억 활 동만 전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난 초기에는 심각한 상황으 로 인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지나간 사건 기록이 되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재난 현장기억을 보존하고 확산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전개했다. 희생자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를 교훈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이 기억장소라는 특별한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고 보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을 잊지 않게 하며, 새로운 변화를 위한 행동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억장소는 재난 대응 및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된 기억장소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공간적 특성과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사회적상황 및 여건변화에 따라 기억장소가 어떠한 생성변화 과정을거쳐 왔는지 알아보고, 그로 인한 특성 및 역할을 파악했다.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 있는 판단을 위하여 현장 중심 참여 관찰과 공간사회적 의미해석 방안을 적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재난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기억장소라는 물리적 공간이 의미 있는 존재가된다는 해답을 제안하고자 했다.

세월호 참사 재난현장은 선체가 침몰한 바다만이 아니다. 정치·사회·문화적 이슈 전개에 따라 다양한 장소들이 등장했고, 이렇게 형성된 모든 곳이 연구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진도 앞바다와 팽목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재난현장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월호 선체가 이동한 목포신항, 단원고 희생자 250명이 머물던 고향 안산, 유가족들의 사회참여활동이 이루어진 서울 광화문 광장, 희생자들이 닿지 못한 제주도 등 모든 곳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사가 발생한 재난현장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유가족 염원과 시민들이 애도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곳을 대상으로 간주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세월호 참

사 기억장소의 공간사회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기억장소라는 개념이 어떻 게 형성된 것이고 왜 중요한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산재한 기억장소의 지역별, 주체별 현황을 고려하여 공간적 특 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적・공간적・제도적・경제적 상황 에 따라 형성된 담론을 통해 기억장소의 생성 및 변화과정도 파악했다. 이를 통해 재난 속에서 기억장소의 다차원적 분석을 수행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의 단계별 전개 양 상을 살펴보고 시기별 이슈 및 시간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 했다. 이러한 과정을 종합해 기억장소의 생성과 변화과정을 도 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은 긍정적 요인만이 아니라 부정적이 거나, 또 다른 일면의 결과를 발견했다. 이를 통해 기억장소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 지금까지 존재하는 동기와 요구를 확 인한 것이다. 기억장소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활용하여, 재난 참사 극복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과정을 거쳐 생산, 소멸, 변용이 라는 생성변화를 단계를 파악했고, 전국적으로 분포된 15개 대 상에 적용해 공간적 특성과 사회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 의미해석을 통해 도출된 첫 번째 사항은 '물리적·비물리적 장소 생산'이라는 특징이다. 물리적 장소는 팽목항, 동거차도, 침몰해역 등 재난현장에 아직 존재하며 현장의 기억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비물리적 장소의 형태로는 선물, 편지, 촛불문화제 등 공감의 마음을 표출하는 공감장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출한 연구결과는 '망각과 외면으로 인한 장소 소멸'이라는 특징이다. 이는 정부합동분향소, 단원고 기 억 교실, 광화문광장 등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가치대립과 이해 충돌의 발생으로 공간과 장소가 사라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세 번째는 기존 재난 참사들과 다른 세월호 참사에서만 발견 된 장소의 변용이라는 특징이다. '대안적 기억 활동에 따른 장 소 변용'으로 희생된 아이들의 유품이나 개인의 추억 등에 의 미가 부여되어 사회적 공감의 장소가 되고, 떠난 이들을 위하여 남은 자들이 전하는 사회적 실천 활동은 세월호 참사에서 두르 게 나타난 특별한 모습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사회적 재난은 과거 기록으로만 남을 뿐,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역사적 의미로 승화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의 사례를 연구하며 진도, 안산, 목포, 서울, 제주도 등에는 기억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고, 사회교류 활동도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억장소를 통해서 지역사회 갈등 및 정치적 이념 쟁점화 등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결과로 알게 되었다. 강요가 아니라 양보와 공론화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었다.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재난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플랫폼 역할이라는 시사점을 형성하였다.

앞서 분석 및 해석한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의 대응 및 준비를 제안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 사회적 재난 이후 만들어진 기억장소는 경건하고 엄숙한 추모 공간 역할을 했다. 이는 당시 상황을 보존하고 기억하는 것에 충실했지, 사회적 확산과 대중적 공감 얻어내지는 못했다. 주로 특별한 날, 특정 사람들만이 기억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억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능 및 역할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는 다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 운 공간적 형태와 기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와 현재', '삶과 죽음', '절망과 희망'등 이질적 개념을 공존시키고자 노력했고, 자연스럽게 삶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상적 기억장소'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난 상황을 기록하여 남기고 보존하는 것을 넘어, 현재와 미래를 재창출하는 미래지향적 가치이기도 하다.

본 연구를 통해 세월호 참사만의 차별화된 기억장소의 특성을 발굴했으며, 기억장소가 재난 상황 극복 및 회복력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향후 다른 재난 참사에도 적용하여 역사적 교훈과 사회적 성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억장소를 기반으로 한 재난 대응 및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은 본 연구만이 가지는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사회적 재난,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 참여관찰, 일상적 기억

학 번: 2012-30676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과정	·· 5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진행과정	. 8
3. 연구의 내용구성	. 9
제3절 이론적 고찰 및 연구방법	11
1. 세월호 참사 관련 선행연구 검토	11
1) 재난 극복 현안 중심 연구	11
2) 기억장소 현장 중심 연구	15
2.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18
1) 참여관찰 연구방법론	18
2) 공간사회적 의미해석 및 분석의 틀	22
제2장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의 특성과 생성변화 과정	
제1절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의 이해	26
1. 개념정립 및 의미설정	26
2. 지역별 분포현황 및 주요 특성	31
3. 유형화 및 역할 파악	40

제2설 세월호 잠사 기억장소의 사회적 맥락4	3
1. 세월호 참사 전개 과정과 기억장소 특성 4:	3
2. 참여주체 활동특성 및 역할 5.	1
3. 사회적 맥락 분석 6	7
제3절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의 생성변화 단계6	9
1. 단계별 생성변화 과정 도출 69	9
2. 생산-소멸-변용 생성변화 특성 72	2
1) 생산된 장소 : 장소보존 및 의미확장 72	3
2) 소멸된 정소 : 사회적 갈등과 기능상실 70	6
3) 변용된 장소 : 상징적 의미화와 대안적 역할이행 7	9
3. 기억장소 생성변화와 의미해석 관계설정 8.	1
제3장 물리적ㆍ비물리적 장소 생산	
제1절 장소기억을 활용한 영구적 장소 생성 8.	5
1. 재난현장 보존과 유지 : 팽목항, 동거차도, 침몰해역 8.	5
2. 장소 발견과 기억의 확장 : 목포신항, 제주기억관, 4.16민주시민교육원 9	7
제2절 사회적 추모를 위한 일시적 장소 활용 10.	5
1. 애도를 위한 공감장(共感場) : 단원고 정문, 촛불문화제 10년	5
2. 문화행사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 :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11	1

제4장 망각과 외면으로 인한 장소 소멸	
제1절 죽음의 장소 존치에 대한 거부반응	124
1. 장기간 공간점유로 인한 주민갈등 : 정부합동분향소	124
2. 학부모 이해관계자 의견충돌 : 단원고 기억교실	129
제2절 정치적 이념 차이에 따른 가치대립	135
1. 왜곡된 정보 생산 및 배포 : 광화문 세월호 광장	135
2. 이슈의 정치적 쟁점화 시도 : 250명 희생자 봉안시설	141
제5장 대안적 기억을 위한 장소 변용	
제1절 사적기억의 공적기억으로 의미확장	147
1. 상징적 의미화를 통한 사회적 기억 형성 : 아이들의 방	147
2. 유지(遺志)의 사회적 실천 : 기억장소 전반 유가족 참여활동	151
제2절 일상적 기억의 구현과 본질적 가치의 유지	158
1. 상반된 가치를 담은 영속(永續)적 장소 구현 : 4.16생명안전공원	158
2. 사회적 관계로 형성된 대안적 치유장소 : 마을내 거점공간	166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173
제2절 시사점 및 제언	176
참고문헌	180
ABSTRACT	193
Λ DOTIV Λ OT	130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지 7
표 2.	연구의 내용구성 10
丑 3.	재난 극복 현안 중심 연구 동향 14
표 4.	기억장소 현장 중심 연구 동향 16
표 5.	지역별 기억장소 특성 39
丑 6.	세월호 참사 전개과정에 따른 기억장소 특성구분 50
표 7.	시민사회 및 전문가 참여 기억장소 조성 활동66
표 8.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 사회적 맥락 분석 68
표 9.	대안적 치유공간 특성 및 운영 프로그램 167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의 진행 과정
그림	2.	참여관찰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자 현장경험 22
그림	3.	기억장소 분석 의 틀과 공간사회적 의미해석 단계 • 26
그림	4.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 개념 정립 31
그림	5.	기억장소가 위치하는 전국 5개 지역 33
그림	6.	기억장소 특성에 따른 유형 구분41
그림	7.	기억장소 기능 및 역할 43
그림	8.	세월호 참사 단계별 전개과정 48
그림	9.	참여주체(공적주체 + 민간주체) 구분 52
그림	10.	참여주체 역할 및 관계망 54
그림	11.	참여주체 특성 분석 55
그림	12.	세월호 유가족들의 주체적 참여활동 사례 57
그림	13.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 공원 인증 의미 변화 58
그림	14.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참여 활동 전개 양상 61
그림	15.	행정기관 공적 참여 63
그림	16.	기억장소 생성변화 과정 도출 71
그림	17.	기억장소 생성변화 과정에 따른 특성 73
그림	18.	생산된 장소 특성분석
그림	19.	소멸된 장소 특성분석 79
그림	20.	변용된 장소 특성분석 81
그림	21.	기억장소 생성변화와 의미해석 관계설정 82

그림	22.	물리적 · 비물리적 장소 생산 84
그림	23.	팽목항 희생자 수습 접안시설 88
그림	24.	팽목항 간이영안실 88
그림	25.	분향소 외부공간 추모조형물 88
그림	26.	분향소 내 희생자 영정사진 88
그림	27.	기억의 벽 그림 타일 91
그림	28.	하늘우체통과 기다림 등대 앞 공연 91
그림	29.	진도 국제항(팽목항) 조감도 91
그림	30.	팽목기억공간 조감도 91
그림	31.	세월호 침몰해역 노란색 부표 93
그림	32.	동거차도 진실호 93
그림	33.	동거차도 산마루 관찰공간 96
그림	34.	남겨진 돌무더기 노란 리본 96
그림	35.	돔하우스 기억장소 ····· 96
그림	36.	돔형 베이스캠프 제작과정 96
그림	37.	세월호 생명기억관 조성부지 100
그림	38.	세월호 생명기억관 조감도 100
그림	39.	인양된 세월호 선체 100
그림	40.	세월호 선체 내부 탐방 100
그림	41.	제주기억관 개관식 101
그림	42.	제주기억관 내부 전시공간 101
그림	43.	자원봉사자 유품상자 이송 103
그림	44.	홀로 남겨진 (당시)미수습자 책상 103
그림	45.	4.16민주시민교육원 조감도 104

그림	46.	복원된 4.16기억교실	104
그림	47.	2014년 4월 15일 단원고 운동장 (세월호 참사 이전) •	107
그림	48.	2014년 4월 16일 단원고 운동장(세월호 참사 당일) …	107
그림	49.	안산문화광장 촛불문화제	109
그림	50.	안산시 소재 고등학생 추모제	109
그림	51.	단원고를 찾은 시민들	110
그림	52.	단원고 정문 앞 슬픈 선물	110
그림	53.	합동분향소 옆 박람회 행사공간	115
그림	54.	박람회장(화랑유원지 및 고잔동)	115
그림	55.	CORRIDOR for PRAY	115
그림	56.	혜원(徯園), 기다리는 마음	115
그림	57.	정원문화박람회 참여정원 기억 아이들의 정원	116
그림	58.	유가족과 청년조경가 공동작업	118
그림	59.	영석어머니와 김지호 학생	118
그림	60.	고잔동 마을정원 안내지도	120
그림	61.	주민주도 마을정원 조성활동	120
그림	62.	고잔동 일촌가드너와 마을정원	120
그림	63.	오바마 대통령 단원고 기증	120
그림	64.	백악관 목련, 20달러 지폐 뒷면	120
그림	65.	단원고 교정 잭슨목런 개화	120
그림	66.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포토존	120
그림	67.	'망각과 외면으로 인한 장소 소멸' 의미해석 과정 …	123
그림	68.	임시분향소 조문행렬(고잔초)	126
그림	69.	임시분향소(올림픽기념관)	126

그림	70.	정부합동분향소 전경 126
그림	71.	유모차 엄마들 조문 행렬 126
그림	72.	학생들 교정 내 단체 사진 131
그림	73.	단원고 기억교실 존치 131
그림	74.	교사증축(12개 교실 확보) 133
그림	75.	4.16기념관 조성(출입구 분리) 133
그림	76.	세월호 유가족 규탄 집회(엄마부대) 138
그림	77.	일베 폭식투쟁 현장 138
그림	78.	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광장행동 140
그림	79.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이슈 140
그림	80.	희생자 사진 이운을 위한 묵념 140
그림	81.	설계자 및 시공사 참여 자진 해체 140
그림	82.	지방선거 추모공원 반대 공보물 142
그림	83.	정치적 악용반대 유가족 호소 142
그림	84.	'대안적 기억활동에 따른 장소 변용' 의미해석 과정 ㆍ147
그림	85.	기억프로젝트 1.0 전시 포스터 151
그림	86.	아이들의 방(2학년7반 오영석) 151
그림	87.	4.16공방 화랑피크닉 축제 155
그림	88.	4.16희망목공소 시민교육활동 155
그림	89.	4.16늘풂학교 선생님 155
그림	90.	4.16늘풂학교 홍보포스터 155
그림	91.	세월호 참사 유가족 주체적 활동조직 155
그림	92.	기억과 빛 내부 전시공간 158
그림	93.	세월호 기억전시공간 '기억과 빛' 158

그림 94. 화랑유원지 내 4.16생명안전공원 대상지 16.
그림 95. 유가족 참여 반별 공론장 162
그림 96. 디자인 워크숍 결과발표 162
그림 97. 4.16생명안전공원 주요 기능 및 시설(안) 163
그림 98. 국제설계공모전 이손건축 컨소시엄 당선작품 160
그림 99. 대안적 치유공간 현황 16~
그림100. 소중한 생명길 지도 172
그림101. 민관협력 소생길 걷기행사 172
그림102. 고잔동 마을여행 해설 지도 172
그림103. 단원고 조망, 소생의 정원172
그림104. 학교가는 길 우드벽화(봄, 여름, 가을, 겨울) 172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여객선이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회적 참사가 발생해 304명이 사망했다. 희생자 가운데 대부분이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다. 배가 침몰하는 모습과 이후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전국적으로 충격을 안겼다. 이들의 때 이른 죽음에 우리 사회는 큰 슬픔에 잠겼다. 국민들은 희생자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의 마음을 전하였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희생자 가족을 지원하는 데 있어 미숙한 모습을 보였고, 사고 수습 또한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 이후 재난현장의 이슈는 지역사회¹⁾로 확산되었고, 애도의 마음은 트라우마로 전환됐다. 고통의 경험이 유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 지역상인,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이다(이현정, 2016). 이처럼 세월호 침몰은 단일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문제로까지 확산하였기에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참사²⁾' 혹은 '사회재난³⁾' 이라고 규정했다.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 재난을 국가의 책무로만 여기지 않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접근했다. 상처와 아픔의 경험은 모두를 힘들게 했지만,

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4년 4월 20일 안산시와 진도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진도는 참사 초기 희생자들의 시신이 수습되면서 재난현장이라는 인식이 드리워졌고, 다수가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거주했던 안산시는 주민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물론 공동체 구성원의 갈등, 지역 경제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재난 도시'라는 이미지가 부여됐다.

²⁾ 사회적 참사는 학술적, 법률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재난 혹은 사고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재난 또는 사회적 갈등이 당초 예상된 피해 규모와 범위, 기간을 넘어 국가 및 공동체에 사회·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시민들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기며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희망제작소, 2020).

³⁾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항공사고, 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말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구성원들이 피해자들과 감정을 공유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국가정책 및 실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활동을 이어간 것이다. 이는 피해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여 사회관계를 회복시켰고, 치유회복과 지역사회 통합의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레베카 솔닛(2012)에 따르면 재난 속에서 드러나는 연대의식을 이야기하며, 집단지성은 아픔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 재난의 경험이 사회적 회복력과 공동체 복원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정(2018)도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은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활동은 재난 상황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메시지로 확장됐다. 그간 한국 사회에 유사한 형태의 사회적 참사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현장의 기억'과 '공간적 구현'이 분리4⁹된 형식적 기억 활동으로 끝났다. 처음에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되다가도 시간이지나면 곧 잊히고 그저 지나간 하나의 사건으로 남을 뿐이었다. 사건이후에는 종결된 역사적 사실로만 남고 그 당시를 기억하거나 사회적의미로 재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김성호, 2021; 심영섭, 2018). 이는 재난현장의 장소성을 기반으로 한 공간사회적 측면의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는 강압적이건 자율적이건 끊임없이 현장의 기억을 공간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전개됐다. 이를 위해 '기억장소'라는 물리적 장소를 생성하고 유지하며 운영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참사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한 공간적 매개체인 '기억장소'에 주목했다. 기억장소는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

^{4) 1995}년 삼풍백화점이 붕괴한 터(서초동 1686-3)에는 26년이 지난 지금 37층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서 있다. 1999년 화재가 발생한 화성 씨랜드청소년수련원 자리에 참사의 기억은 사라지고 야자수마을카페가 만들어져 관광 명소가 됐다. 2009년 재개발 반대 농성 과정에서 철거민이 사망한 용산참사 자리(용산구 한강로3가 63-70)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황량한 공터로 방치되어 있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12년 만에 중앙로역 2층에 현장을 보존한 기억공간이 마련되었고, 추모공간은 12km 떨어진 팔공산에 추모명칭조차 쓰지 못한 채 조성되어 있다(박지윤, 2021).

시킨 사건 현장,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관계 형성 역할을 한 곳을 말한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지역에 별도로 조성된 공공장소로서, 지금까지도 운영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사라진 곳도 있다. 이에 대한 개념은 학술적, 사회적, 공간적 상황과 이용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구분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라는 고리로 엮인 모든 곳을 '기억장소'로 명명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에서 대두된 '기억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심도 있게 살펴보며 사회적 상황 및 여건변화에 따라 물리적 실체가 어떤 생성변화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알아보고, 그로 인한 특성 및 역할을 파악하는 공간사회학 연구5이다.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 있는 판단을 위해서 참여관찰과 공간사회적 의미해석이라는 연구방안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재난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기억장소라는 물리적 공간이 의미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첫 번째는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 개념을 정립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기억장소는 저명한 학자들이 언급한 학술적인 의미도 있고,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부르게 된 실제적 의미도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통해서 의미를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억장소라는 개념은 어떻게 형성된 것이고, 왜 중요한지 알아보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지역별, 주체별 현황을 고려하여 기억장소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장소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다. 일부

⁵⁾ 사회학 분야에서 공간을 행위의 배경으로 이해하는 경직된 개념을 보완하고자 공간사회학이 등 장했고(마티나 뢰브, 2020) 국내에서는 주로 지리학, 인문학, 사회학 영역에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조경학 분야의 학술연구이고, 연구자는 공간계획 및 설계를 다루는 학문을 전 공하기 때문에 기억장소라는 물리적 매개체를 연구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현상을 읽어 내기 위해서 장소적 특성 및 현장 상황을 살펴보는 '공간사회학 연구'를 진행했다.

는 일시적으로 공간이 생성되어 활용되다가 소멸했지만,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영구적으로 남은 곳도 있다. 이와 같은 기억장소들이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해답을 찾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분포된 기억장소 현황을 파악하고, 참 여주체를 대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끌어내고자 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공간적, 제도적, 경제적 여건을 기반으로 형성된 담론을 통해서 기억장소의 생성 및 변화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를 통해 '기억장소'의 긍정적 기능에서부터 부정적 기능까지 다차 원적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세월 호 참사의 단계별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시기별 이슈 및 시간의 변 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이러한 과정을 종합해 기억장소의 생성 과 변화과정을 도출하고자 했다.

네 번째는 기억장소를 이해하고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재난 참사 극복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간사회적의미해석이라는 연구방안을 적용했다. 이러한 의미해석 과정은 긍정적 요인만이 아니라 부정적이거나, 또 다른 일면의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기억장소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 그리고 그곳들이 유지되는 동기와 요구가 무엇이며, 그곳에서의 활동으로 인해발생하는 사회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탐구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재난 참사 이후의 회복력 증진을 위한 공간의 사회적 의미를 도출하여, 기억장소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재난 참사 극복을 위한 효율적 방법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세월호참사 이후 다양한 기억장소들이 생성되었고,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소통하며 사회구성원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세월호 참사만의 차별화된 기억장소의 특성을 발굴하고, 기억장소가 재난 상황 극복 및 회복력 증진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후 다른 재난참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언을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과정

1. 연구의 범위

1) 시공간적 범위 설정

시간적 범위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이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정치·사회적 여건에 따라 상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참사발생 시점부터 최근 이슈가가 발생한 시점까지로 그 기간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7년 5개월여 동안 전개된 기억장소의 조성, 존치, 철거 등의 과정을 연구의 자료로 활용했다. 시간 변화에 따라 전개된 양상과 기억장소를 둘러싸고 일어난 다양한 상황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향후 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기억장소의 존재 여부도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간적 범위

신혜란(2019)은 세월호 참사 재난현장은 선체가 침몰한 바다만이 아니라고 했다. 정치·사회·문화적 이슈들이 전개됨에 따라서 다양한 장소들이 등장했고, 이렇게 생성변화 된 모든 곳이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세월호 선체는 현재 침몰해역에서 인양되어 목포신항으로 이동했다. 이를 보면 세월호 참사 관련 특정 장소에 상징성이고정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억장소는 다양한 범주에 다차원적 형태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진도 앞바다와

⁶⁾ 본 연구에서 언급한 250명 단원고 희생자의 안식처 '4.16생명안전공원(2024년 준공예정)'과 목포신항으로 이전된 선체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세월호생명기억관(2027년 준공예정)'은 대표적인 기억장소이지만, 아직 건립을 시작하지 않았다.

⁷⁾ 세월호 참사 관련 최근 이슈는 광화문광장 기억공간 철거(2021.7)와 4.16생명안전공원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2021.8)이다. 그 이후에도 연구 대상지별로 부분적 변화가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 그간 진행된 과정을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점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했다.

팽목항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재난현장이 될 수 있다. 세월호 선체 이동으로 새롭게 대두된 목포신항, 단원고 희생자 250명이 머물던 고 향 안산, 유가족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이뤄진 서울 광화문, 희생자들 이 가려 했으나 기어이 닿지 못한 제주도 등 이 모든 곳이 세월호 참 사의 현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사가 발생한 재난현장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애도하는 마음이 담 겨 있는 현장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로 연구를 진행했다8)

2) 연구의 대상

세월호 참사 이슈 전개에 따라 재난현장으로의 가능성이 내재한 지역을 먼저 살펴보고, 지역별로 상징적 의미가 담긴 장소를 파악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안산, 진도, 서울, 목포, 제주도 다섯 지역에 분포한 15개의 기억장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안산에는 희생된 이들이 다녔던 단원고, 영정사진이 놓여 있던 합동분향소, 세월호 기억을 수집하는 기억저장소와 기억전시관, 장소기억이 서려 있는 단원고 기억교실, 생명 의미를 담은 소중한 생명길, 새로운 변화를 도모했던 화랑유원지 정원문화박람회 공간, 변화된 성찰과 성장을 만드는 4.16민주시민교육원, 250명 아이들의 안식처 4.16생명안전공원 등 8개의 연구대상이 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진도에는 상실의 아픔 현장 팽목항, 기다림의 공간 진도체육관, 세월호 침몰해역 인근 동거차도, 함께하는 연대의 공간 세월호 기억의 숲 등 4개의 장소가 분포하고 있다. 그 이외에 서울에 있는 사회참여공간 광화문광장, 희생된 이들의 꿈이 담긴 제주기억관, 세월호선체를 활용한 생명기념관이 조성되는 목포 등 3개의 기억장소를 연구대상으로 포함했다.

⁸⁾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 전체 과정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며 시기별 이슈와 지역별 상황 등을 관찰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체 희생자 304명(미수습자 5명)이 아닌 단원고 희생자 250명과 유가족 엄마·아빠에 비중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안점을 두는 것이 '기억장소'이기 때문이다. 기억장소를 지키고, 활용하고, 확산한 것은 주로 단원고 유가족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원고 희생자와 유가족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표 1. 연구대상지

구분	거점공간	세부장소	지역
1	단원고 운동장과 정문	[1-1] 기다림을 위한 첫 번째 촛불기도 장소 [1-2]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던 운동장 [1-3] 세월호 참사 이후 취재 차량으로 가득한 운동장 [1-4]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정문 앞 슬픈 선물 공간 [1-5] 정문 앞 세탁소 편의점 추모공간 [1-6] 생존 학생들의 첫 등굣길, 삶과 죽음 공존 공간 [1-7] 오바마 대통령이 기증한 정문 앞 목련	
2	정부합동분향소	[2-1] 단원고 옆 고잔동 임시분향소 올림픽기념관 [2-2] 사회적 기억과 애도의 추모공간 합동분향소 [2-3] 세월호 가족 치유회복 문화예술 활동공간	
3	4.16기억저장소 4.16기억전시관	[3-1] 세월호 참가 기록활동의 거점 4.16기억저장소 [3-2] 세월호 기록물 문화확산 공간 4.16기억전시관	
4	단원고 기억교실	[4-1] 아이들이 머물던 10개 교실, 선생님들의 교무실 [4-2] 숭효상 건축가 자문, 실현되지 못한 아이디어 4.16기념관	안산
5	고잔동 소중한 생명길	[5-1] 단원고 학교 가는 길, 지역주민 일상 속 산책로 [5-2] 힐링테라스 온유의 뜰, 소생의 정원 [5-3] 학교 가는 길, 단원고 벽화거리 [5-4] 기억과 약속의 길, 단원고 노란고래 조형물 [5-5] 조성룡 건축가의 사회참여작품 공공휴게 시설물	
6	화랑유원지 정원박람회공간	[6-1] 제5회 정원문화박람회 작가정원 존치작품 [6-2] 아이들을 기억하는 10개 반 아이들의 정원 [6-3] 고잔동 일촌가드너 마을정원	
7	4.16민주시민교육원	[7-1] 이전된 단원고 기억교실과 시민교육공간	
8	4.16생명안전공원	[8-1] 250명 아이들의 안식처, 시민들의 문화공간	
9	팽목항	[9-1] 임시 검안소와 간이영안실 아픔의 현장 [9-2] 아이들을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간절한 기도 장소 [9-3] 팽목항 하늘 우체통, 빨간 등대, 기억의 벽 [9-4] 미수습자들의 오랜 기다림 공간 팽목분향소 [9-5] 상처와 아픔의 역사적 현장재현 팽목기억공간	
10	진도체육관	[10-1] 구조자 명단을 확인하던 체육관 벽보 [10-2] 사생활 침해 임시수용시설 차가운 마룻바닥 [10-3] 건축가의 재능기부로 만든 유가족 대피소	진도
11	동거차도	[11-1] 동거차도 미역 양식장 [11-2] 세월호 선체 인양 관찰공간 동거차도 산 정상 [11-3] 세월호 선체 침몰해역 노란색 부표 지점	
12	세월호 기억의 숲	[12-1] 오드리 햅번 재단 은행나무 306그루 [12-2] 건축가 재능기부로 조성된 기억의 벽 [12-3] 다짐의 손 기억의 탑 입간판	
13	세월호 광장	[13-1] 투쟁과 저항을 위한 천막과 농성을 위한 광장 [13-2]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억과 빛 전시공간	서울
14	기억공간 Re-born 제주기억관	[14-1] 사회적 참사 피해자를 위한 숙소와 문화전시관	제주
15	세월호 생명기억관	[15-1] 세월호 선체를 활용한 상징적 기억공간	목포

2. 연구의 진행 과정

본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먼저 기억장소의 특성과 생성변화과정을 파악하고,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간사회적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기억장소 연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살펴보는 과정이다. 앞서 언급된 안산, 진도, 서울, 목포, 제주 지역에분포된 15개 대상지를 살펴보며 사고현장, 일상적 생활현장, 사회적활동현장 3가지 유형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도출된 사항을 통해 지역별 특성, 기능 및 역할 등 주요 특성을 분석하여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의 개념 및 의미를 정립하고자 했다. 다음 단계는 3가지 유형의 기억장소를 대상으로 참여자들의 활동특성과 역할을 파악하는 과정이이어진다. 이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체와 의무적으로 역할을이행하는 공적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유가족, 시민, NGO, 행정,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참여한 것은 다른 재난 참사들과 달리 세월호 참사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양상이다.

두 번째 과정은 기억장소의 생성변화 과정을 도출하는 것이다.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시대적 상황 및 여건에 따른 복잡한 단계적 변화를 통해서 생산·소멸·변용이라는 3가지 특성을 도출했다. 이는 새로운 장소가 만들어지는 '생산', 불가피한 상황으로 장소가 사라지는 '소멸',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장소가 생성된 '변용'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통해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은 공간사회적 의미를 해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앞서 전개된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기억장소를 둘러싼 공간, 시간, 관계 차원에서 연구대상지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공간적 특징과 사회적 함의를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기억장소가 지역사회 재난 극복을 위해 전개한 과정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차별화된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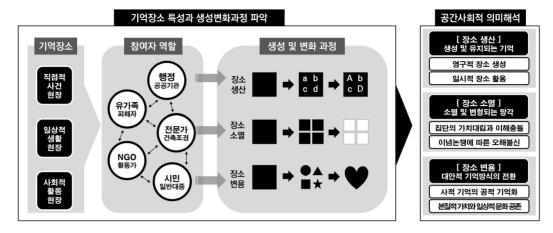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진행 과정

3. 연구의 내용구성

제1장은 연구의 기틀과 체계를 구축하는 서론에 해당한다. 서론은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살펴보았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의미해석 및 분석의 틀을 구축했다. 그리고 실질적인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참여관찰 연구방법론과 공간사회적 의미해석에 대한 구조적 틀을 도출했다.

2장은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 생성변화 과정을 파악한 내용이다. 먼저 일반적인 기억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여세월호 참사 기억장소의 개념을 정립했다. 그리고 지역별로 분포된현황 및 특성을 알아보고, 장소별 특성에 따른 유형과 기능을 분석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이뤄진 참여주체들의 활동특성과 역할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형성된 내용을 기억장소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으로 정의했고, 생성변화 과정과 공간사회적 의미해석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억장소의 생성변화 과정을 생산, 소멸, 변용 특성으로 고찰했다.

표 2. 연구의 내용구성

	1			
제1장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재난 극복 새로운 패러다임 ⇒ 기억장소 등장 ⇒ 의미 해석	
서론	제2절	연구	연구범위 및 대상 시간적 범위·공간적 범위 / 5개 지역 15개 기억장소 선정	
	제3절	목적 및 체계 구축	이론적 고찰 및 연구방법 및 의미해석의 틀 설정 연구 및 의미해석의 통 설정 등 연구방법 및 의미해석의 통	
			참여관찰 연구방법론, 공간사회적 의미해석 및 분석의 틀	
THOTA	1 111 14			_
제2장 세월호 참사	제1절		개념 정립 및 의미설정 기억의 이해 / 기억장소 이론적 층위	┚
제별로 점시 기억장소의 특성과			세월호 참사와 기억장소 이해 지역별 분포현황 및 특성 진도, 안산, 목포, 서울, 제주]
생성변화 과정		특성	유형화 및 역할 분석 사자추모공간, 참여활동공간, 사회갈등공간	
	제2절	분석 및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의 사회적 맥락	
		생성	세월호 참사 전개과정과 특성 복구집중기⇒ 역할모색기⇒ 소통확대기⇒ 역량강화기	71
		변화	참여주체 활동특성 및 역할 피해당사자, 일반 시민, 행정기관, 민간단체 및 전문가	╡╽
		과정	THE PROPERTY OF THE PROPERTY OF THE COURT OF	
	제3절	도출	기억장소 생산된 공간 장소보존 및 의미확장	
			생성변화 소멸된 공간 사회적 갈등과 기능상실	
			과정도출 변용된 공간 일상적 장소 의미부여	
	1			
			제3장 물리적·비물리적 장소 생산	
			장소기억을 활용한 재난현장 보존과 유지 팽목항, 동거차도, 침몰해역	
			영구적 장소 생성 장소 발견과 기억의 확장 목포신항, 제주기억관, 민주시민교육	웬
			사회적 추모를 위한 <u>에도를 위한 공감장 마련 단원고 정문, 촛불 문화제</u> 일시적 장소 활용 문화행사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exists $
			[_
제3장-제5장		공간	제4장 망각과 외면으로 인한 장소 소멸	
기억장소의		사회적	죽음의 장소 존치에 대한 장기적 공간점유 가치대립 정부합동분향소	ַ
공간사회적		함의	지역사회 거부반응 학부모 이해관계자 의견 충돌 단원고 기억교실	4
의미해석		도출	정치적 이념차이에 따른 정치적 성향에 따른 왜곡된 정보 생산 광화문 세월호 광장 부정적 인식 대두 세월호 이슈 정치적 쟁점화 단원고 250명 봉안시설	$\exists $
			제글도 이유 영사를 영급되는 200명 중간자를	_
			제5장 대안적 기억을 위한 장소 변용	
			사회적 기억의 상징적 의미화 사회적 기억형성 아이들의 방	4
			공적기억으로 확장 유지의 사회적 실천 유가족 참여활동	\dashv
			일상적 기억 구현과 <u>상반된 가지의 영속적 장소 구현 4.16생명안전공원</u> 본질적 가치 유지 대안적 치유장소 형성 마을내 거점공간	╡╽
	I			
제6장	제1절	x -1	연구요약 연구내용 및 결과 종합정리	
결론	제2절	종합	시사점 논문의 의의 및 활용방안	

3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기억장소의 공간사회적 의미를 해석한 연구의 본론에 해당한다. 앞서 도출된 생산, 소멸, 변용이라는 생성변화과정과 연계하여 3가지 의미해석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기억과 공감을 위한 물리적·비물리적 장소 생산, 망각과 외면으로 인한 장소 소멸, 대안적 기억활동에 따른 장소 변용이다. 장소를 지키기 위한 기억의 과정, 의견충돌과 갈등으로 인한 망각의 시간,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된 변용의 결과 등이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공간적 특성 및 그이면에 담긴 사회적 함의로 정리될 수 있다.

결론인 마지막 6장에서는 그간 진행한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 및 제언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앞서 도출된 사회적 의미해석 내용을 종합하며 연구자가 주장하고 싶은 기억장소의 특별한 의미를 정리하고 향후 재난 발생 시 지향점을 제안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했다.

제3절 이론적 고찰 및 연구방법

1. 세월호 참사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재난 극복 현안 중심 연구

세월호 참사는 재난 대응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 재난 상황에 직면한 당사자들의 사회적 고통,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 등에 대한 고민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차원의 연구⁹⁾가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본 연구에 적용 가능한 연구들을 추출하여 4가

^{9) 2021}년 12월 19일 기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통합검색)에서 '세월호'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는 824건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사회과학 507건, 인문학 156건, 예술체육 35건, 공학 32건, 농수 해양 19건, 자연과학 10건, 의약학 11건, 복합학 51건으로 파악된다.

지 범주로 구분했다. 첫 번째 유가족, 생존자 등의 심리상태 및 회복지원 상황을 파악했고, 두 번째로 지역사회에 대두된 갈등 양상과 치유회복을 위한 노력의 과정을 알아보았다. 세 번째로 세월호 참사 이후 중요하게 대두된 기억과 추모의 의미를 파악하여 그 가치와 의미를 도출했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억과 추모를 대중적으로 확산하기위한 움직임을 분석했다.

먼저 재난 참사 초기에 진행된 피해당사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강현철(2015), 김익한(2016), 박기묵(2015), 배천직(2017), 이현정(2016)의 연구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일상적 생활이 불가능했다. 대부분이 미안함 때문에 아프다는 표현도 하지 않고, 치료와 도움 없이 스스로 견뎌내고 있었다. 유가족의심리상태를 분석한 이들 연구에서 공통으로 전하는 바는 피해자를 환자로만 보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내면적인 욕구를 먼저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고통이기 때문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후 진행된 사참위(2019), 유기영(2021)의 연구를 통해 참사 후 현시점에서 유가족들의 경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진 상규명 등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 였다. 하지만 사별의 고통에만 매몰되지 않고 능동적 삶을 통해 일상 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다. 이때 아픔의 공감대 가 형성된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큰 힘이 되었고, 늘 곁에 서 함께 해주는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살아가는 이유가 됐다고 한 다.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사회적 참여활동이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는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지역사회 차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주대 (2014)의 연구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가 지역사회 전반에 퍼져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했다. 하지만 사고 수습장기화 및 미숙한 대처 등으로 인해 갈등 양상은 심각해졌다. 김서영

외(2020)는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파악했다. 거리의 현수막, 정부합동분향소, 추모공원 등의 이슈들에 대한 불신과 불편한 감정이 극대화되어 있었다. 강현철(2016)에 따르면 이러한 양상은 재난갈등이정치적 이념 갈등으로 진화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다. 강현철은 진상규명 등의 핵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잠재된 갈등 양상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김수영 외(2017), 한소정 외(2019)는 초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돌봄과 치유 활동을 전개한 안산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분석했다. 노진철(2015), 이용숙 외(2018), 안산시(2018)는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세월호 유가족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큰 버팀목이 된 시민사회활동을 평가했다. 이들은 피해지역에 머물면서 지역밀착형 회복 활동을 전개했고, 물리적 공간을 개별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했다. 이는 본연구에서 다루는 자발적 형태의 기억장소 형성과 관련 있다. 그 외에도 김도훈 외(2020)는 주민중심 공동체 회복, 주성수(2015)는 사회적공감대 형성과 자원봉사 활동, 정원옥(2015)은 촛불행동의 민주주의실현, 홍영의(2015)는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적 회복을 통해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노력의 과정을 파악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애도의 마음을 표출했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그간 한국 사회에 발생했던 대부분 재난은 사고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기억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하고자 김영욱 외(2015), 정원옥(2014)은 사회적 담론을 분석하였고, 김명희(2019), 이나빈 외(2017), 문희정 외(2016), 심영섭(2018), 이현정(2016a)은 시민들이 지금까지 형성해 온 세월호 참사 기억과 애도, 추모 현상은 피해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손상된 사회관계를 회복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연대를 만드는 실천적 방법이라고 했다.

표 3. 재난 극복 현안 중심 연구 동향

구분	저자	제목	비고
직접적 당사자 심리상태 및 회복지원 상황	강현철(2015)	세월호 유가족들의 삶과 우리사회의 과제,	초기
	김익한 외(20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의 생활실태 및 심리상태에 따른 공동체 욕구조사	초기
	박기묵(2015)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부모들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기술적 접근	초기
	배천직(2017)	우리나라 재난피해자 구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구호를 중심으로	초기
	사참위(2019)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심화연구	현재
	유기영 외(2021)	세월호 참사 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월호 유가족으로 살아 가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현재
	한정민 외(2020)	세월호 참사 단원고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	생존자
	이현정(2016a)	세월호 참사와 사회적 고통 : 표상, 경험, 개입에 관하여	초기
	강현철(2016)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세월호 참사 갈등과정 분석	갈등
	김도훈 외(2020)	재난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4.16 세월호 참사이후 안산시 사례	회복
	김서영 외(2020)	세월호 참사 후 안산 시민의 갈등 사례연구 : 자영업자들의 경 험을 중심으로	갈등
간접적	김수영 외(2017)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의 동고(同苦) 경험에 관한 연구 :"우리함께"의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회복 (복지사)
당사자 지역사회 특성 및 입장파악	노진철(2015)	재난에 노출된 공동체의 탄력성 위기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변화-세월호 참사 사례의 안산시를 중심으로	회복 (NGO)
	아주대(2014)	지역사회 건강조사 기반 사회심리 및 안전인식도 조사	회복
	안산시(2018)	세월호 그 곁에 선 사람들 인터뷰 기록집	회복
	이용숙 외(2018)	재난 대응 거버넌스에서 지역 NGO 의 역할 안산 세월호 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회복 (NGO)
	주성수(2015)	세월호 참사 관련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회복
	정원옥(2015)	416이후 안산 지역의 촛불행동 애도와 민주주의	회복
	홍영의(2015)	4·16 참사 기억·기록운동의 전개과정과 의미	회복
	한소정 외(2019)	세월호 참사 관련 사회복지실천 경험 연구	회복 (복지사)
기억과 추모	김명희(2019)	재난의 감정정치와 추모의 사회학	감정 공감
	김영욱 외(2015)	세월호 침몰은 참사인가? 사고인가?: 비판적 담론분석 (CDA)을 적용한 세월호 담론 경쟁	담론 논쟁
	이나빈 외(2017)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침습기억과 사건중심성 간 관계에서 사회적 공유의 매개효과	사회적 공유
	문희정 외 (2016)	재난으로 인한 외상성 상실에 대한 추모 현상 분석: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추모
	심영섭(2018)	집단적 기억과 기억 공간 : 에쉐데와 엔쉐데 그리고 세월호	집단 기억
	정원옥(2014)	4.16과 애도 담론 :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윤리적 과제	애도
대중적	김헌식 외(2014)	다크 투어리즘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적용 방안 연구	관광
추모확산	이민영(2015)	세월호 다크 투어리즘 : 관광지화를 통해 잊지 않겠습니다. 실천	관광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연구이다. 대중적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등에서 구현한사례를 통해 세월호 다크투어 개념이 제시됐다. 관광이라는 특수성과연계하여 기억하고 잊히지 않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헌식 외, 2014). 재난현장 진도 팽목항, 아이들이 머물던 안산 단원고, 세월호선체가 거치된 목포신항 등에 관광의 개념을 접목해 대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했다(이민영, 2015).

지금까지 다양한 차원으로 진행된 세월호 참사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사항은 세월호 참사의 이해, 기억장소 생성변화 과정, 공간사회적 의미해석을 위한 방향 설정에 활용하고자 했다. 이들 내용은 다음 단계의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 대상지 연구와 연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 기억장소 현장 중심 연구

본 연구는 안산, 진도, 서울, 제주, 목포 거점의 기억장소를 대상지로 한다. 연구의 시작에 앞서서 선행연구에서 진행한 대상지 분석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여, 이와 관련된 사항을 표로 정리했다. 이를 통해 어떤 기억장소 연구가 진행되었고, 개별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통해 대부분기억장소에 머무르면서 직접 자료를 수집했지만, 현장에서 취득할 수없는 내용은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빠진 사항들을 보완했다.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 연구는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20건이 진행됐지만, 전체를 통합적으로 들여다보기보다는 당시 발생한 이슈 중심으로 개별공간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기억교실, 기억 저장소, 광화문광장, 추모공원, 고잔동 소생길, 합동분향소 등을 둘러 싼 사회적 상황을 중심으로 내용이 서술되어 있고, 조성과정과 필요 성이 정리되어 있다.

표 4. 기억장소 현장 중심 연구 동향

구분	저자	제목	비고
기억 교실	박진형(2021)	단원고 기억교실에 관한 기록학적 쟁점들과 그 함의	안산
	이현정(2019)	4.16 교실 존치 투쟁과 새로운 장소성의 생성: 피해자성의 기억론을 넘어 인격성의 기억론을 향하여	안산
기억 저장소	김익한(2014)	세월호 기억 저장소를 만들자	안산
	윤승현(2014)	세월호 기억저장소 1호관	안산
광화문 광장	방희조(2017)	세월호 광장의 공동체적 치유의 힘	서울
	양민철 외(2016)	광장의 교회: 광화문 세월호 광장 천막카페 이야기	서울
	진예린(2018)	점유를 통한 장소 만들기: 광화문 세월호 광장을 사례로	서울
추모 공원	김도훈(2020)	도심형 메모리얼파크의 사회적 담론 및 인식분석을 통한 4.16 세월호 참사 추모공원 방향성 제안 연구	안산
	김민환(2019)	사회적 기억의 과정과 추모의 역할 : 생명안전공원에서 무 엇을 기억할 것인가	안산
	김성호(2021)	4.16 생명안전공원의 공간적 의미	안산
	김소라(2019)	추모 공간의 지역공존과 가치확산	안산
마을 거점	김홍선(2018)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지역교회의 섬김: 치유와 회복, 그리고 기억	안산 고잔동
	박수경(2017)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 커뮤니티에 형성된 치유의 공간에 대한 지리적 고찰.	피해지역 치유공간
	우리함께 (2016)	마을 창작단과 함께하는 마을길 조성 프로젝트	안산 고잔동
	윤솔희(2015)	침체된 도시를 건축으로 일으키다 : 4.16기억저장소와 안 산프로젝트	안산 고잔동
합동 분향소	안산시(2016)	4.16세월호참사 안산시 백서 : 수십지원 활동 1년의 기록	안산
기타	김훈(2019)	연필로 쓰기 (목포신항·동거차도·팽목항)	진도 • 목포
	박래군(2020)	우리에게 기억할 것이 있다 (목포신항·팽목항·기억교실·광화문)	진도 · 목포 서울 · 안산
	신혜란(2016)	기억의 영토화 : 세월호 기억공간 형성과정을 사례로 (기억교실·광화문광장·제주기억공간)	안산·서울 제주
	진예린(2020)	기억 장소성의 생산과 재구성 (추모공원·팽목항· 목포신항)	안산 · 진도 목포

박진형(2021)과 이현정(2019)은 단원고 기억교실 존치를 위한 투쟁의 과정과 새로운 장소를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고 정리한 연구를 수행했다. 사회적 갈등으로 기존 공간이 사라지고, 새로운 곳에 재현된과정을 직접 참여하고 관찰하면서 상세하게 기술했다. 김익한(2014)과 윤승현(2014)은 연구자가 기억저장소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건축가는연구자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공간을 만든 결과를 정리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기억교실과 기억저장소는 세월호 참사 초기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인데, 이후 공간의 생산과 소멸의 관점에서 기억장소 생성변화에 영향을 준 결과물이다.

광화문광장은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기억장소가 됐다. 방희조(2017), 양민철 외(2016), 진예린(2018)은 이곳을 세월호 광장이라고 부르며 농성장에서 기억장소로 이어진 변화의 과정을 정리했다. 특히 이곳에서는 유가족들이 주체가 되고 시민들의 협력을 통해 세월호 참사 메시지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활동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다음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했던 250명 단원고 희생자들의 안식처 추모공원에 관련된 사항이다. 김도훈(2020), 김민환(2019), 김성호 (2021), 김소라(2019)는 기존 한국 사회에 만들어진 추모공원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4.16생명안전공원은 사회적 참사로 인한 슬픔이 사회적 애도를 넘어 미래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지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기억장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세월호 집중피해지역 고잔동, 와동 마을의 기억장소 연구를 알아보고자 한다. 김홍선(2018)은 지역교회 차원에서 이해당사자들과함께 소생길이라는 기억장소를 조성하는 데 참여했던 경험과 의미에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우리함께(2016)도 소생길을 만드는 기획자 입장에서 조성 방향 및 역할을 분석하여 정리했다. 윤솔희(2015)는 건축가의 사회참여 관점에서 헌신적 노력의 과정을 전달했다. 박수경(2017)은 마을에 만들어진 치유공간의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복지사, 문화예술가, 사회활동가

등이 자발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유가족과 지역주민들의 치유회복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의 성과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정부합동분향소에 대한 내용은 안산시(2016)에서 세월호 수습지원활동백서를 발간하여 공간의 규모 및 방문객 수 등의 현황 정보를 제공했다. 김훈(2019)과 박래군(2020)은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가 있는 진도 팽목항, 목포신항, 기억교실, 광화문광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소회를 저서를 통해서 풀어내었다.

신혜란(2016)과 진예린(2020)은 공간사회학적 관점으로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았는데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신혜란은 기억의 영토화라는 관점으로 세월호 기억공간의 형성과정을 분석했다. 기억교실, 광화문광장, 제주기억공간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관찰을 진행하여세월호 기억공간에 관한 사회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진예린(2020)은 안산, 진도, 목포에 만들어진 기억공간을 중심으로 세월호참사 기억담론과 기억장소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며 다차원적공간분석의 틀을 마련했다. 공간사회적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에 접근한 연구는 이들의 연구가 유일하다. 하지만 특정 장소와 시기에 국한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전개 및 이후 과정을 관통하지못하는 한계가 있다.

2.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1) 참여관찰 연구방법론

현장중심 질적연구 이해

본 연구에서는 안산, 진도, 서울, 제주, 목포 지역에 분포된 기억장소를 살펴보며 시대적 여건변화, 만들어지는 과정, 운영자와 이용자인식변화, 대내외적 영향력 등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들 기억장소는정치, 사회, 문화 등 복합적이며 다층적 요소들이 연계되어 있어서 양적연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공간과 장소 관련 현상

및 그곳에 머무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질적연구 방법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장소와 터전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지역적 맥락에 대한 이해, 장소별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했다.

Norberg Schulz(1996)도 장소 연구는 복합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연구방법보다는 질적인 연구방법이 적합하다고 했다.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이념적, 상징적, 추상적 상황을 해석하는 연구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사결정 구조를 이루거나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태를 파악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과 양적 데이터 기반 합리성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직접 만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 분석하는 관찰조사 및 심층인터뷰 방식은 질적연구 방법론의 강점이다(신혜란, 2007).

Spradley(2006)는 질적연구 수행을 위해서 현장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여형 현장조사는 현지인의 관점에서 다른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이며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도 있는 현장연구는 실제 공간에 머물거나 그곳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참여형 현장연구 수행을 위해서 현장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공간에서 이뤄지는 활동 경험을 직접 관찰했다. 유가족, 지역주민,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고,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면서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했다.

이러한 과정을 현장 중심 참여관찰이라 하고,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 연구에 적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는 단지 관찰만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연구대상 사이의 상호작용 등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방법이면서 연구대상과 사회적 현상이 어떻게 경험되고 이해되는지를 살펴보는 해석적 연구이다. 또한 하나의 사건과 특별한 장소들을 통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방법론이라고할 수 있다.

연구자료 수집 방법

참여관찰에서 지역사회 문화를 분석하는 것은 현지인 관점에서 생활 방식을 이해하며, 그 장소를 보고·듣고·느끼고·말하고·생각하고·행동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를 연구적 차원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참여관찰이 필요하다(Creswell, 2015; Spradley, 2006). 참여관찰이란 연구하는 사람이 관찰자이면서 참여자가 되어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이며,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 현장연구는 깊이 있는 몰입의 경험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장으로 들어가 당사자들과 관계망을 형성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연구자가 현장을 중심으로 충분한 경험적 자료를 습득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형성하는 필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직접 공간 조성 및 운영 활동에참여하면서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연구자료를 수집하여분석했다. 기억공간이라는 공유거점에서 활동, 역할,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장기간의 참여관찰을 통해 행동을 파악하여 기술했고, 구성원 인터뷰를 통해 문화적 지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수행했다.

연구자는 안산에 거주하면서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현장조사와 질문을 반복했다.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기억 공간들은 조성에 직접 참여하거나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활동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었다¹⁰⁾. 희생자들이 생전에 함께했던 행복한 추억의 장소 현황, 그러한 공간을 조성했던 과정, 현재 그 공간을 운영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개별공간마다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망을 형성하였고, 내부자 관점으로 대두되는 이슈와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고자 했다.

^{10) 2014}년 세월호 참사 초기에는 연구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에, 당시 상황분석은 주로 문헌 자료 및 인터뷰를 근거로 해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자는 안산시 희망마을사업추진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특 별법에 따른 유가족 및 지역주민 지원 사업을 담당했다. 현장중심 업 무 추진을 위해 2015년 5월 안산으로 이주하여 2020년 7월까지 지역 에 머물면서 관련 활동에 참여했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들은 5 년 동안 현장에 머물면서 조사하고 수집한 자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연구자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정리, 분석하는 현장중심 참여관찰 연구라 할 수 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지역주민들 과 함께 본 연구에서 언급한 기억공간을 직접 조성하기도 했고, 간접 적으로 개별공간을 조성 · 운영하기도 했다. 그에 따라 유가족들과 잦 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고 진도 팽목항, 안산 분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목포 세월호 선체 등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공간들도 직접 접근하여 관찰할 수 있었다. 4.16가족협의회 자문위원¹¹⁾, 4.16재단 기 억과 추모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억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원업무도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 에 현장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용이했고, 구성원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이유로 세월호 공간들에서 이뤄지는 당사자들의 일상적 활동을 마주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다. 개별 개공간에 대해 축적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불가피하게 관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간 운영자와 관계자 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했다. 15개의 기억장소 전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여건변화의 과정을 깊이 있게 살펴보며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했다. 5년의 긴 연구 기간 지역사회 여건변화에 따라 방향 및 내용이 수정되기도했다. 당시 현장에서 기록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한 내용은 문헌 자료를 통해 확인하거나 별도의 인터뷰로 내용을 보완했다.

^{11) 2020}년 7월부터는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 현장기반 참여관찰 및 실행연구를 수행하면서 축척 된 데이터, 비공식 면담 자료
 - 세월호 유가족, 피해지역 주민, NGO 비영리민간단체, 행정기관, 건축도시조경 전문가그룹 등
- > 자료보완을 위해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심층면담 자료
- > 각 기관 및 연구자가 직접발행한 아카이브, 구술증언, 지역연구 등 문헌자료

연구자 현장 경험 및 관계

- > 세월호 집중피해지역 공동체회복 및 사회적 갈등업무 수행 안산시청 산하 희망마을사업추진단
- > 안산 지역 비영리민간단체 네트워크 4.16안산시민연대 활동 자문위원(지역사회 갈등회복)
- > 세월호 추모공원 운영관리 조직 4.16재단 기억과추모위원회 위원(세월호 추모공원 운영방안마련)
-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추모부서 자문위원(세월호 참사 관련 기억공간 조성 기획)

그림 2. 참여관찰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자 현장경험

2) 공간사회적 의미해석 및 분석의 틀

기억을 해석하는 방법 : 기억의 사회적 틀

본 절에서는 기억장소를 왜 공간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 이를 위해 공간사회적 의미분석 및 해석의 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공간사회적 의미해석¹²⁾은 모리스 알박스 (Maurice Halbwachs)¹³⁾의 '기억의 사회적 틀¹⁴⁾'로부터 기인했는데, 먼저 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억은 타인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적 상황¹⁵⁾에 따라 재구성된다.

¹²⁾ 기억은 여러 집단 및 집합적 사고 흐름,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 즉 사회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며, 기억이 다시 인식하고 배치되는 것도 사회 속에서 가능하다. 이를 볼 때 기억을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김영범, 1999), 이를 새로운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을 공간사회적 의미해석이라고 한다.

¹³⁾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는 기억이론의 선구자로 프랑스 사회학자이다. 기억을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을 경계하고 어떤 기억도 사회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시간지속과 기억이라는 주제를 뒤르켐의 집합주의적 관점과 접목시켜 '집합기억' 개념을 제시했다. 기억은 본래부터 사회적 현상이므로 철학이나 심리학이 아닌 사회학적 관점과 방법으로연구되어야 한다고 했다(안병직, 2007: 280, 김영범, 1999: 557).

¹⁴⁾ 기억의 사회적 틀이란 사회가 기억에 대해 집합적인 틀을 제공해준다는 것을 뜻한다. 그 틀을 사용하면 과거 회상의 범위와 내용이 결정지어지고 복구될 수 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외에 사회적 조건을 인식과 사고의 조건으로 추가시켰다. 사회적 교섭 속에서 언어가 발생하며 시공간의 범주화가 이뤄지고 그것을 통해 개인의 사고가 전개된다는 것이다(Halbwachs, 1992).

¹⁵⁾ 내가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할 때 내 기억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기억을 떠올릴

따라서 기억은 사회적 틀 속에서 이뤄지며, 기억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알박스 기억연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다. 안병직 (2007)은 개인적 차원에서 기억을 이해하는 것을 경계하고, 집단적·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억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기억의 사회적 틀'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도 세월호 참사 관련 장소를 둘러싼 기억의 해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알박스가 제안한 기억의 사회적 틀을 적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타인들과의 관계, 사회적 여건변화, 시대적 상황 등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연구를 진행했다.

공간·시간·관계 기반 분석의 틀 설정

알박스는 기억의 사회적 틀 가운데 과거를 가장 잘 인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간, 시간, 관계라고 했다¹⁶⁾. 공간은 다수의 사람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집합기억이 형성되고, 모두가 공감하는 대중적 기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일·월·년·계절 등 흐름에 따라서 기억이 인지되는 순간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기억이 정렬되면, 여러 종류의 복잡함이 정리되어 쉽게 떠올릴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기억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관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이들과의 교류와 접촉을 통해 사고방식, 입장, 태도, 관점 등이 파악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된 3가지 요소를 본 연구에 적용하여 '물리적 공간특성', '단계적 시간특성', '상호간 관계특성'의 관점으로 기억장소 의미분석 및 해석의 틀을 도출했다. 개별공간을 둘러싸고 존재하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재촉하는 행위를 통해 기억을 재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은 사회 속에서 얻어지며, 그것을 상기하고 인식하고 배치하는 것도 사회 속에서 가능하다. 이런 모든 의미에서 기억은 하나의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인 것이다. 기억의 사회적 틀을 통해 회상의 범위와 내용이 결정되고 제대로 복구가 될 수 있다(김영범, 1999).

¹⁶⁾ 알박스 연구를 수행한 김영범(1999)의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연구자가 보완해서 작성했다.

는 물리적 현장에 대한 이해, 시대적 상황에 따른 시간적 변화, 당시 상황에 참여했던 이들의 집단사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노 력했다. 공간사회적 특성 분석과 연계해서는 전국에 분포한 기억장소 의 상황 및 여건을 파악하여 물리적 공간 특징을 구분하고자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는 시대적 이슈 및 정치 사회적 쟁점에 따라 서 기억장소가 어떻게 생성되고 대응하는지를 단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특성에서는 피해당사자 및 지역주민 등 자 발적으로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권력 양상에 따른 수동적 참 여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기억장소 분석의 틀 적용

기억장소 분석의 틀은 '물리적 공간 분석', '단계적 시간 분석', '상호 간 관계 분석'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기억장소의 생성변화 과정, 사회적 함의, 대내외적 영향력 등의 특별한 의미를 도출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공간, 시간, 관계 요소들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관점으로 기억장소를 분석하고 해석하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첫 번째는 '물리적 공간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땅 위에 구조물을 짓거나, 물리적 공간에 자신만의 형태를 각인시킨 공간적 틀 안에서 기억을 재생시키면서 유지한다. 이는 토지, 건물, 조형물 등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공간형태를 통해서 기억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지여건, 주변환경, 지역특성, 건축규모, 점유형태 등을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물리적 공간으로의 기억장소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했다. 다음으로 진도·안산·목포·서울·제주 5개 지역별 상황에 따라 '기억장소의 지역분포현황 및 특성분석'을 했다. 그리고 '기억장소의 기능 및 역할'을 통해서 이러한 공간에서 피해당사자와 지역주민들이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활동을 분석했다. 지역별 특성 및 분위기에 따라 변화를 만드는 환대

공간이 되기도 하고, 복잡한 사회 이슈로 인한 갈등 공간 등 물리적 공간을 둘러싼 변화들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세월호 참사 이후의 시대적 흐름과 변화과정에 따른 분 석을 유도하는 '단계적 시간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시간은 기억 을 떠올리는 중요한 기초적 틀이다. 일, 월, 년을 기준으로 낮과 밤, 또는 계절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시간의 틀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 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2021년까지 7년 6개월여의 세월이 지 났다. 세월호 참사 관련 시간의 변화는 아이들의 생일, 다시 돌아오는 봄, 매년 4월 16일 개최되는 추모식으로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일반적 변화이기 때문에 체계적 연구를 위해서 관 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앞서 분석된 세월호 참사 단계 별 전개 양상을 바탕으로 참사 이후 진행 과정을 '집중기', '역할 모색기', '소통 확대기', '회복역량 강화기'로 구분하여 시간의 흐름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단계적 시간의 틀을 마련했다. 이 안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치적 쟁점, 지속자립화 여부 등에 영향을 받아 공간의 생산과 구성을 둘러싼 경합이 진행된 다. 기억장소에서는 물리적·비물리적 요소들이 생성되는데, 이러한 과 정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중첩되면 서 진행되며 끊임없는 변화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억장소를 둘러싼 집단기억을 통해 공통적 사고, 태도, 관점을 확인하는 '상호 간 관계특성'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는 기억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통해 개인의 기억에 타인의 기억을 더하는 것이다. 기억장소는 관계를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하므로 다양한 사회적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며, 긍정적 기억과 부정적 기억이 공존한다. 유가족, 행정, 주민, 활동가, 전문가 등의 참여 시기, 참여 동기, 참여 형태, 참여 방식 등을 분석하여 상호 간의역할 및 관계성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갈등양상,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실천과정, 협력적 관계망으로 인한사회적 자본 형성과 회복력 기반구축 등을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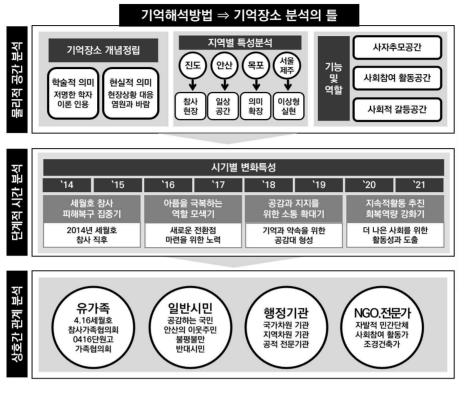


그림 3. 기억장소 분석의 틀과 공간사회적 의미해석 단계

제2장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의 특성과 생성변화 과정

제1절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의 이해

1. 개념 정립 및 의미설정

기억의 이해

안정희(2021)에 따르면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흔적을 되새겨 다음 세대까지 전승하는 것이고, 기억으로 인해 현재를 인지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듯 기억을 통해 지나간 시간을 추억 하며 특별한 의미를 간직하게 되고, 떠나간 사람과 함께 했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며 잊지 않게 된다. 하지만 기억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똑같은 경험을 해도 다르게 기억될 수 있다. 이는 시대가 경험한 모 든 기억이 유지될 수 없고, 상황 및 여건변화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누군가는 간절하게 기억하려고 하지만 잊고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심영섭, 2018), 기억이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의 힘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억하는 과정에서 집단 간 갈등과 긴장,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다(김왕배, 2014). 특히 재난이나 전쟁 등 불편하고 부정적인 기억은 심각한 논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트라우마가 형성되기도 한다.

기억은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의사소통 및 평가과정을 거쳐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이는 집단의 이데올로기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념에 따라 다양한 변화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사회적 합의를통해 구성원 마음속에 정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일부 기억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남겨지기도 하지만, 주로 복잡한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립된다고 할 수 있다. 기억은 과거에 있었던 경험, 사회적 사건을 단순하게 상기시키는 것 이상으로 당시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생각, 신체의 감각기능이 느끼는 오감 등을 떠올리는 것이다. 태지호(2014)도 과거에 가졌던 인상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다시 생각해 내는 것을 기억이라고 했다. 즉 예전에 경험했던 상황을 다시 떠올려 현재 상황에 맞게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기억장소의 이론적 층위

지금부터는 앞서 언급된 기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기억장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안정희(2021)는 박물관, 문학관, 기록관, 기념관등은 기억을 공유하고 확장하는 기반이 된다고 했다. 이는 물리적 장소가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연결의 매개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도 이러한 차원에서 조성되어 운영됐다고 할 수 있다.

공간적으로 생성 및 재현된 기억장소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 경험을 기억하고자 했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특별한 활동 주체가 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기반을 형성한 것이다. 과거 경험한 기억은 시간이지나면서 사라지지만, 물질적 감각을 연상시키는 장소를 통해 형성된기억은 현재까지도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다(양재혁 2016). 장소는 기억을 저장하는 중요한 매체 역할을 하면서 기억을 생산 및 재생산하는 효과적인 도구 역할을 한다(Hayden, 1995). 장소는 기억과 만남을통해 과거를 되살아나게 하고 현재를 안정화하는 힘을 갖고 있다(Casey, 1987). 기억은 장소를 기반으로 형성되거나, 장소 지향적인 성향이 있는데(전종한, 2009), 장소를 통해 생동감 있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화되는 사회적 기억으로 확산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억이라는 대상이 장소에 담기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넘어 좀더 구체성이고 지속화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렇듯 기억과 장소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구성원들이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며 현재와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장소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문화적이거나 지역적 맥락을 담고 있다. 태지호(2014)에 따르면 기억은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수단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스스로를 존재하게 해준다. 그 기억이 의미 있게 재생되고, 사회적・미래지향적으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렇듯 기억이 생산되며 확산하는 이유는 물리적 장소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환경특성17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 사회적 관계 증진 역

¹⁷⁾ 정치지리학자 에그뉴는 모든 장소는 위치, 로케일(locale), 장소감을 가진다고 했다. 위치란 한 장소가 갖는 절대적 혹은 상대적 위치를 의미하고, 로케일이란 장소가 지닌 물질성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이때 물질성은 지질학적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현장으로서의 물질적 환경을 뜻한다(전종한, 2009).

할을 했기 때문이다. 장소는 어떤 일이 이뤄지거나 일어나는 곳으로,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기억장소 는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현재 사회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담아내고 보관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 개념 정립 및 의미 설정

피에르 노라(2010)에 따르면 장소는 물질적, 상징적, 기능적 3가지의미가 있어야 한다. 비록 사진, 물품, 이야기 등 기록물이 보관된 물리적 장소라도, 기억을 위한 사회문화적 이념 등 상징성이 담기지 않으면 기억의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 골목길, 공원 등 기능적인 장소라도 기억하고 추모하는 애도의 의미가 없으면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 묵념의 시간, 추억의 순간, 기념식 등 기억을 위한 상징적 행위도 물리적 공간과 연결되지 않으면 기억의 장소가될 수 없다. 이처럼 물질적, 상징적, 기능적 측면이 공존하는 특별함이 있는 곳이 기억의 장소가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억장소의 의미를 기억과 장소로 구분하여 알아보고, 다양한 차원의 기억장소 관련 이론을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직접적인 주제와 연결해 세월호 참사라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기된 잊지않고 기억한다는 의미와 연계하여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의 개념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기억장소라는 명칭은 앞선 학자들의 제안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재난 참사현장에서 유가족, 시민단체 등이 자연스럽게 이름을 지정하고 부르면서 시작됐다. 물론 상황에 따라 '기억장소', '기억 공간', '기억관' 등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왜 모든 공간이 기억장소와 유사하게 불리게 된 것인지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인 기억과 더 나은 사회 만들기를 위한 바람과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피에르 노라가 '기억의 장소'를 통해 과거 프랑스의 역사기억과 민족적 정체성을 재조명하고자 했던 것처럼¹⁸⁾,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를 통해 정체성 확산 및 대중적 공감대 형성 목적과 연계해서 볼 수 있다.

당시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도 불편한 진실들이 왜곡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며 잊히기가 강요되었다. 그로 인해 현장의 장소정체성은 훼손되었고 오해와 불신의 감정이 커졌다. 프랑스인들이 겪은 정체성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기억의 장소'가 탄생한(이용재, 2011) 것처럼,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 개념도 역사적 정체성과 상징적교훈을 망각하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판 기억의 장소를 본받아서 유럽 전역에 각자의 기억장소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처럼(이용재, 2011),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는 사회적 아픔을함께 공감하고, 희생된 이들을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전국 혹은 다른나라19이에도 조성되어 대내외적 확산을 시도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는 세월호 참사이후 잊고자 하는 분위기를 기억하려는 노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생성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사건 당시의 아픈 기억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행복했던 추억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공간적으로 재현하거나 재구성된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기억장소는 현장의 진실 왜곡하고 피해 자의 목소리를 배제하거나 존재를 부정하는 움직임에 대한 저항의 상 징이다. 참사로 인해서 대두된 가치, 역사적 정체성 등 죽음의 교훈을 잊지 않고 지속되는 기억을 만들어가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강한 결속력을 함양하는 촉매제라고 도 할 수 있다.

¹⁸⁾ 피에르 노라가 프랑스의 국가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자 노력한 것처럼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지의 역사가들이 프랑스 연구자들의 '기억의 장소'를 통해 제기했던 문제의식을 모방하여 본국 특유의 민족 기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했다(이용재, 2011).

^{19) 4.16}해외연대를 중심으로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자발적인 활동으로 기억 장소를 생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 조성된 기억장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학술적 의미'의 기억장소 기억이 의미 있게 생산되고, 사회적·미래적으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과거 경험은 사라지지만, 물질적 장소를 통해 온전 하게 전달될 수 있다(양재혁,2016).

장소는 기억을 저장하는 중요한 매체이며, 기억을 생산 및 재생산하는 도구이다(Hayden, 1995).

프랑스인들의 집단기억 포섭, 역사적 정보 왜곡 등 정체성 위기 대응을 위해서 '기억의장소'를 탄생시 키게 되었다(피에르 노라,2010).

'현실적 의미'의 기억장소

존재의 부정에 대한 저항 지속적 기억을 통한 사회변화 염원

세월호 참사 현장의 진실 왜곡, 피해자 목소리 배제, 기억보다는 망각하기 위한 분위기 전개

역사적 정체성과 죽음의 교훈을 망각하지 않는 노력 세월호 참사 의미 전국적 확산

아픔의 기억 ⇒ 기억장소를 통한 공감대 형성 ⇒ 강한 결속력 함양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 사회적 의미(아픔과 추억) + 사회적관계 + 공간적 특성

그림 4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 개념 정립

2. 지역별 분포현황 및 주요 특성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는 희생된 이들의 죽음을 교훈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자,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전국적으로 분포한 연구대상 대부분은 본래 평범한 일상 속 장소였지만,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사회적 의미화가 진행되어 특별한 장소가됐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라고했으며, 이들 공간은 안산, 진도, 목포, 서울, 제주 등에 위치한다. 세월호 참사는 다른 재난 참사와는 다르게 '재난현장'을 한 군데로 한정 지을 수 없다. 단계별로 진행되는 이슈들로 인해서 재난현장이라는 공간의 범주가 다양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단기억²00으로 강한 인상이 남겨진 5개지역을 선정하고 그곳에 조성된 장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기억의 장소성이 서려 있는 진도, 안산, 목포, 서울, 제주를 중심으로 기억장소의 지역별 분포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

²⁰⁾ 집단이 같은 경험을 했을 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의사소통과 상징적인 재현의 과정을 집단기억이라고 한다(신혜란, 2016).

다. 물론 이 지역 전체를 기억장소라고 규정할 수 없으므로, 지역별로 조성된 15개의 특별한 장소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들여다보았다. 각각의 지역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기억과 연관성을 맺고 있어, 개별 공간별로 다양화된 기억장소들이 만들어졌다. 이들 지역에 조성된 장소가 기억과 어떠한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지, 지역과 관계된 장소성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기억장소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누적된 이슈 등이 반영 되어 특별한 정체성을 갖는다. 지역 특색이 묻어나는 지리적 위치와 정치적 이념에 따른 사회 현상들이 세월호 참사 기억과 연결되어 차 별화된 가치와 의미들이 생산됐다. 진예린(2020)에 따르면 기억공간을 생산하는 방식은 사건 발생 지점을 그대로 두거나 같은 곳에 상징적 의미를 담은 물리적 공간 및 구조물을 세우는 것이다. 특별한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상징적 의미가 남겨진 장소에 기억공간을 만들어 애 도, 추모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어디에나 있는 공통된 현 상이다. 304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세월호 참사도 국민 모두를 충격 에 빠지게 했고, 상처와 아픔을 나누기 위해 지역별 이슈에 부합하는 형태로 물리적 공간이 조성됐다. 잊지 않으려는 의지, 희생된 이들의 가치와 의미 확산 등의 가치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퍼졌다. 개 별공간들은 재난 이후 사고 수습, 치유회복, 진상규명 등 특별한 상황 들이 전개됨에 따라 목적 및 역할이 달라지는 변화를 겪기도 했다.

세월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과 공간을 중심으로 집단기억이 형성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장소성이 형성되며 각 지역의 세월호참사 기억장소가 만들어졌다. 본 절에서는 진도, 안산, 목포, 서울, 제주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집단기억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 그에 따라 만들어진 기억장소의 지역별 특색 및 상황에 따른 특성을분석하고자 했다. 먼저 진도, 안산, 목포는 맥락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세월호 참사 현장으로서 장소성을 함축하고 있다(진예린, 2020). 사고현장과 피해자 연고지로서 관련이 있는 곳이다. 서울과 제주도는세월호 참사 피해를 받은 재난현장은 아니지만, 피해당사자들의 적극

적인 활동과 염원이 담긴 장소로서 관련이 있다.

전국적으로 분포된 기억장소들은 지역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기억과 사회적 담론을 통해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성됐다. 때로는 공감과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침체한 지역사회의 분위기전환을 바라는 이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기억장소 조성과정과 운영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이 펼쳐졌고, 정치 사회적 이념 갈등 등의 활동도 일어났다. 본 절에서는 5개의 지역별 여건 및 사회적 이슈에 따라 기억장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분석했다. 이러한 맥락적 특성에 따라서 장소성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와 그 의미 또한 파악했다.



그림 5. 기억장소가 위치하는 전국 5개 지역(진도, 안산, 목포, 서울, 제주도)

진도군 팽목항 일대 : 상처와 아픔의 사건 현장

먼저 사회적 참사 발생 현장은 사실적 집단기억의 장소적 특징을 담고 있는데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이 이와 관련된 장소이다. 이곳은 실제적으로는 참사가 발생한 현장은 아니지만, 당시 언론 보도에 반 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세월호 침몰과 직접적으로 연 관된 장소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이후 다양한 사회적 담론들이 등장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단기억이 형성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언론기사를 통해 희생자 이름을 들으면서 슬픔과 분노를 느꼈고, 미수습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염원했다. 팽목항은 선체가침몰한 지점과 육로 교통으로 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항구였고, 사고 수습 및 상황대처를 지원하며 탑승자 구조를 기다렸던 곳이다. 진도체육관은 유가족들이 머물면서 생사 소식과 사고 수습 과정을 지켜보던 장소이다. 배 안에 살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오랜 기간 차가운 체육관 바닥에서 생활하며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2014년 4월 16일 당일부터 11월 11일 수중수색을 종료하기까지 팽목하과 진도체육관을 중심으로 시신 수습 과정이 언론에 보도²¹⁾됐다. 때문에 이곳은 통곡의 현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고 당일부터 선체인양 때까지 팽목항에서는 수색작업, 수습 활동, 자원봉사, 추모행사등이 이뤄졌다. 210일 동안 벌어진 모든 상황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졌고, 희생된 개인에 대한 슬픔을 넘어 304명 모두를 애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수습이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은 불만을 호소하며 분향소, 노란 리본, 팽목항 등대 철거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²²⁾ 원래 팽목항은 관광지인 조도와 관매도로 가기 위한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자 낚시꾼이 많이 찾는 곳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낚시를 금지하게 되었고, 관광객이 오지 않아 슈퍼마켓, 음식점, 낚시점 등의 매출이 급감해 생계가 막막하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팽목항 인근에는 오드리햅번 어린이 재단과 국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세월호 기억의 숲이 있다. 팽목

²¹⁾ 침몰시점부터 사흘간 29명 시신이 수습됐고 20일간은 하루도 빠짐없이 시신이 발견되면서 4월 29일까지 200구가 넘어섰다(장덕종, "마지막 한명까지 세월호 실종자 수색 210일 사투", 연합뉴스, 2014.11.11., https://www.yna.co.kr/view/AKR20141111104500054?input=1195m

²²⁾ 진도군은 팽목항 관광객 수가 세월호 사고 직전인 2013년 21만명에서 2015년 17만명, 2017년 8만명으로 줄곧 내림세다. 팽목항 선착장 박선영(49) 소장은 "안산시도 올해 초 상인들 장사 안된다고 세월호 관련 시설물을 다 치우기로 했는데, 진도에만 계속 추모시설을 두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팽목항 확장·개발은 진도 주민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년 전부터 요구해온 사업이다. 2012년 7월 1단계 공사를 마친 이 사업은 세월호 사고로 중단됐다. 2016년 10월부터 2단계 개발 공사를 시작해 2020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다(김승재, "팽목항 주민들 세월호 위해 4년 참았다. 우리도 이젠 먹고살아야", 조선일보, 2018.09.12.,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2/2018091200116.html).

항과 체육관이라는 사고 수습 현장을 넘어서, 시민들의 공감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기억장소이다.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월호 선체가 침몰한 해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는 동거차도라는 섬마을이 있다. 이곳 주민들은 사고 발생 당시 희생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다. 유가족들은 장기간 이곳에 머물면서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을 지켜보았다.

안산시 단원고 일대 : 희생된 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

안산은 피해자 304명 가운데 261명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이 머물렀던 공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억장소다. 재난현장의 끔찍한 충격이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애절한 슬픈 집단기억이 형성된 장소다. 이곳은 직접적인 재난의 현장은 아니지만 떠난 이의 행복했던 추억이 서려 있는 장소이므로, 그리움과 기다림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가슴 아픈 희생이 일어났던 진도 앞바다와는 다르게 희생된 이들의 고향으로서 연관된다. 아이들이 자라나며 뛰어놀던 마을 놀이터와 골목길에서부터 가족들과 주말이면 소풍 가던 유원지가 있는 곳이다. 희생된 이들과 일상을 함께 보내던 이웃들의 아픔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이 힘들다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었고, 이에 국가에서는 참사현장은 아니지만, 안산시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다. 이로 인해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사고현장이 아닌 안산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 이후 정부합동분향소가 설치되었고 그로 인해 추모와 애도의 도시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됐다. 4년동안 73만명이 다녀가며 사회적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남겼다23).

이곳은 희생된 학생들의 명복을 비는 추모의 장소였다면, 단원고 기억교실은 아이들의 일상을 상기하며 상실의 고통을 애도로 승화시

^{23) &}quot;세월호 참사는 다른 재난 참사와 다르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텔레비전 화면을 지켜보면서 다른 어느 사람도 아닌, 자신들에게 충격적인 경험이 됐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남의 불행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충격과 고통이기 때문에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만 하는 절박함으로 무엇이든 하려고 했다(정원옥, 2014, p.320.)."

켜가는 장소이다. 이곳은 희생된 이들이 살아생전에 많은 시간을 보내며, 친구들과 꿈을 키우던 장소이다. 아이들이 사용하던 교실은 주인을 잃어버린 빈자리의 공허함이 크게 남았다. 학교에 남아 있던 재학생들이 먼저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책상에 꽃과사진, 편지 등을 남겼고, 이러한 것들이 축적되어 기억교실이 됐다. 그 이후 희생된 이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던 그곳은 아이에 대한 기억과 애도가 생생하게 이뤄지는 소중한 장소가 됐다. 떠난 이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이 남아있으며, 그 기억들이 켜켜이쌓여있다.

안산은 평범한 동네였지만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소소한 공간에 가치와 의미가 더해지면서 곳곳에 기억장소가 형성됐다. '학교가는 등굣길', '산책하던 마을길', '가족피크닉 장소인 유원지' 등의 상징적 공간이 새롭게 탄생했다. 피에르 노라(2010)는 장소는 과거의 경험이 그대로 존재하여, 현재까지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했다. 장소기억이라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라 생각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 만, 특별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한동네에 살던 아이들 250명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의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갑자기 떠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뿐이었다. 희 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친구들과 머물렀던 공간과 함께 걷던 등굣길이 기억의 장소가 됐다. 이웃 주민들과 함께 산책하던 워고잔공워 마을 길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기억이 만들어진 장소이 다. 가족들이 주말에 함께 방문했던 화랑유원지 공원에는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행복한 추억이 서려 있다. 이후 이들 공간을 중심으로 민간 의 자발적 참여와 행정의 재정적 지원으로 4.16기억전시관, 4.16생명 안전공원, 4.16민주시민교육원(단원고 기억교실) 등의 기억장소가 조 성됐다.

목포시 신항만 : 세월호 선체 인양으로 의미가 확장된 지역

목포는 안산이나 진도와 달리, 사고 발생 당시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없던 지역이다. 하지만 침몰한 선체가 3년 만에 인양되었고, 임시로 목포신항만에 거치되어 있다가 고하도에서 영구보존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기억장소가 됐다. 처음 선체 거치 장소를 두고 안산 대부도, 진도 팽목항 인근, 인천시 등이 거론되면서 긍정과 부정의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었지만, 목포시민들의 적극적 지지²⁴⁾에 힘입어 고하도 신항 배후부지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목포는 세월호선체를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추모를 특성화해서 새로운 관광문화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조완동, 2020). 2014년 4월 16일 형성된 대중들의 집단기억에는 침몰하고 있던 선체의 마지막모습이 강렬하게 인지되었다. 마지막까지 배 안에서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아이들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뜯기고 잘려나간 창, 그 창을 얼마나 두드렸을까. 멍이 든 팔이며, 새까만 손톱은 훌렁 벗겨져 있었다. 필사의 탈출을 한 흔적들을 그들은 몸 전체에 남겼다(박래군, 2021)."

세월호 선체를 바다에서 건져 올린 거대한 무덤이다. 잠수사들이 시신을 수습할 때 희생자 대부분이 침몰한 배 안에서 발견했다. 선체는 희생자들이 마지막으로 살아 있던 현장이면서 죽음을 맞이한 끔찍한 기억의 장소이다. 세월호 선체가 위치하게 되면서 목포는 재난 참사의 증거현장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됐다. 거대한 물리적 실체가 이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세월호 참사와 깊은 관계성이 생겼다. 침몰해역이 있는 팽목항과 맹골수도의 참사현장 의미가 목포 지역으로 확장되어 재생산된 것이다. 이렇듯 세월호 참사는 다른 재난들과는 다르게기억의 현장이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고 이동하며 확장되기도 한다.

²⁴⁾ 목포시는 고하도 신항 배후부지 세월호 거치 시민 의견 수렴을 했는데 13,092명(시 인구의 5.8%)이 설문에 참여해 찬성 74%, 반대 26%로 결과가 집계됐다. 세월호 선체 고하도 거치를 찬성 이유는 생명·안전·교육 공간 조성, 새로운 관광자원 활용, 선체 인양 인근지역 순으로 조사됐다(조완동, 2020).

김훈(2019)은 세월호 선체는 한국 현대사의 괴로운 자화상이며, 국민에게 가르쳐주는 죽음과 '통곡의 교훈'이라고 표현했다. 재난 참사의 실체가 되는 증거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기에, 아직 선체를 개방하지 않고 있음에도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목포신항을 방문하고 있다.

서울시 및 제주도 : 이념과 이상향 실현을 위한 장소

광화문광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염원과 전 국민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상징적 공간이다(방희조, 2017). 충격에 빠진 국민들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피해당사자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다짐한 장소이며,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 및 진상규명을 위한 대중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성이 이루어지던 곳이다. 참사 초기에는 투쟁과 저항의 장소였지만 시간이 지나 사회문화적 소통공간으로 변모했다.

광화문광장에 기억과 빛 공간을 설계한 건축가 이민아(2021)는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 열망을 담아 촛불 시민혁명이 시작되었고, 세월호 기억공간은 그 중심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적 공감대로 시작된 촛불 항쟁이 이곳에서 세월호 이슈와 함께했고, 기억과 약속이라는 추모의 일상성이 실천됐다. 물론 긴 시간 광화문광장에 머물면서 정치적 이견이 있는 단체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함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간절한마음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기억장소를 조성하고 운영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연계된 정치·사회적 이슈때문에 불가피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고 현재 서울시 의회로비 공간으로 잠시 이전했다.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는 복잡한 시대적 상황과 함께 생성과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제주도는 세월호가 인천에서 출발하여 닿아야 하는 종착지이다. 아이들의 수학여행 여정이 제주도까지 이어질 수 없게 되어, 애절한 마음이 담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시민들을 중심으로 제주도에

기억장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자발적으로 공간을 조성·운영했다. 이들의 헌신적 활동으로 인해서 희생된 아이들이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염원을 제주도 지역에 담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제주도에 있는 기억공간은 치열한 투쟁의 현장 광화문이나사건 현장의 정서가 담겨있는 팽목항과는 다르게 부담 없이 방문해서따뜻하게 아이들을 만나고 기억할 수 있는 장소이다.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희생된 이들이 못다 이룬 꿈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물리적 공간의 힘이 있어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세월호가 향하던, 목적지였던 제주도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희생자들이 가고자 했던 제주도에 기억장소가 있다면 방문하는 이들에게 큰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거 같았어요(황용운 인터뷰).²⁵⁾"

표 5. 지역별 기억장소 특성

7.11	특	ril 사고		
구분	사회적 이슈 및 담론	대중적 인식과 집단기억	대상지	
진도	수중수색에 대한 언론보도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 팽목항 주민들의 불만 호소	시신 수습 과정 및 희생자 이름 유가족들의 고통 속 절규 모습 체육관 바닥에 머무는 유가족 상처와 아픔의 사고현장	팽목항 분향소, 등대 진도체육관 대기실 세월호 기억의 숲 침몰해역 동거차도	
안산	2014년 특별재난구역 선포 정부합동분향소 73만명 방문 추모와 애도의 분위기 고조 수습장기화에 따른 갈등 대두	250명 학생 교실과 책상 희생자 애도 선물과 편지 일상 속 공간의 상징적 의미화 희생자들의 일상이 담긴 동네	정부합동분향소, 고잔동 등굣길, 4.16기억전시관 4.16생명안전공원, 단원고 기억교실, 민간운영 대안공간	
목포	세월호 선체 거치장소 논쟁 목포시민 74% 긍정적 지지 재난참사 현장의 이동확장	침몰하는 세월호 선체 형상 탈출을 위해 노력하던 희생자들 재난참사 실체 및 증거현장	세월호 선체 원형보존 4.16생명기억관	
서울	세월호 참사 대중적 공감동 진상규명 투쟁과 저항 장기간 공간점유 비판	대국민 참여 촛불항쟁의 시작 정치적 이념 충돌과 사회갈등 강제 철거와 자진 해체	광화문광장 천막농성장 기억전시공간 기억과 빛	
제주도	끝나지 않은 여정 애절함 자발적 시민활동가 움직임	수학여행의 종착지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염원 따뜻하게 아이들을 만나는 장소	제주기억관 기억공간 Re-born	

²⁵⁾ 세월호 그 곁에 선 사람들 인터뷰 기록집(안산시, 2018 : p.211.)

3. 유형화 및 역할 파악

기억장소 특성에 따른 유형 구분

세월호 기억공간에서는 재난 당시 지원 활동이 있었고, 7년여의 세월 동안 진상규명 투쟁과 저항의 노력이 전개됐다. 그동안 시대적 상황이 변화하면서 정치사회 이슈 대응, 사회적 연대 활동, 유가족과 시민들을 위한 치유회복 목적의 활동 등이 전개됐다. 이와 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구분하면 세 가지 특성의 장소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거나 아픔이 누적된 직접적 사고현장이다. 이는 선체가 침몰한 진도 팽목항과 선체 인양 이후 거치된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한다. 주로 끔찍한 참사가 발생한 죽음의 공간,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기다림의 공간,희생자들이 시신을 마주했던절규의 현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곳은 다수의 시민이 애도의 마음을 나누고 사회적 연대를 경험한 곳으로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다.

두 번째는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사건 현장이라고 할 수 없지만, 희생자들의 살아생전 기억이 서려 있는 추억의 장소이다. 이는 다른 재난 참사에서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기억장소이다. 전체 희생자 304명 가운데 250명이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일상적 기억장소라는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아이들이 머물던 단원고 교실과 교정, 등굣길 그리고 태어나서 자란 동네가 중심이 된다. 상처와 아픔의 공간이기보다는 그들과의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게하는 생활현장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가족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새롭게 형성되거나 의미가 부여된 장소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 장소는 광화 문광장이다. 이곳에서는 특별법 제정 및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됐다. 제주기억관과 기억공간 Re-born도 제주도에 있는 기억장소이다. 인천을 떠난 세월 호가 닿았어야 하는 종착지 제주도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곳이다. 희생자들의 꿈과 유가족들의 염원을 담은 공간을 조성하여 그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림 6. 기억장소 특성에 따른 유형 구분

기억장소의 기능 및 역할

다음은 기억장소 유형에 따른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행정적 지원 혹은 자발적 참여로 다양한 형태의 기억장소들이 조성됐다. 기존 공간에 의미가 부여되면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곳도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사회적 애도와 추모, 헌신적 봉사를 위한 사회참여 활동이 재난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었다. 그이후 수습 장기화, 진상규명 이슈가 부각 되면서 집회와 시위를 위한 정치 활동 장소, 사회 부조리와 분노를 표출하는 투쟁의 장소들이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의 미래를 다짐하는 장소, 공감하고 위로하는 평화의 상징적 장소 등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곳으로 변화했다. 이처럼 시대적 상황 및 사회적 이슈에따라 다양한 형태로 생성 및 변화하는 기억의 장소들이 존재한다.

먼저 죽은 사람을 잊지 못하는 사자 추모라는 기억장소의 본원적 특성이다. 떠난 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미래세대로 전해주는 것이 남은 이들의 책무라고 본다면, 기억장소는 희생자들이 우리 사회에 남긴 가치와 의미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담

아내는 의미가 있다. 기억하면서 아픔을 극복하게 되고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담기게 된다. 사회연대와 시민운동 등 구성원 모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기억하며 의미를 부여하였다.

다음은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의 아픔을 치유회복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연구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 대부분이 분노, 죄책감, 우울, 무기력, 불안 등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으며, 76%가 정상적 일상생활이 불가하고, 54%가 극단적 생각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박기묵, 2015). 그런 가운데서도 기억장소를 통해 적극적인참여 기회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용기와 힘을 얻는다고 한다. 사회참여 활동이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거점이 기억장소라고 볼 수 있다. 끔찍한 사고를 잊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로 인하여 사회에 전해지는 의미를 바탕으로 달라진 사회로 만드는 참여활동 자체가 위로의 계기가 됐다(김민정, 2018).

마지막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정치화된 기억의 장소다. 기억장소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마냥 환영받기만 하는 곳이 아니다. 갈등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매개요소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스만(2003)에 따르면 하나의 장소를 둘러싸고 가치관이 다른 기억들이 서로 경합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에서도 사고 수습 장기화로인해 피로감이 증폭되면서 기억을 지우자는 분위기와 아직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계속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충돌했다. 이를 기억의 정치(Politics of Memory) 과정이라고 부른다. 특정한 기억이 지속하거나 망각되는 차이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견해가 담겨 있다(아스만, 2003). 누군가 지속적 기억으로 이익을 가진다면, 다른 이는 그와 반대로 지워지기를 바랄 수 있다. 이때 판단해야 할 것은 모두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엇을 남기고무엇을 지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일부 장소는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특별한 장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가치와 의미를 확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사자 추모 공간 떠난 이에 대한 기억과 약속

존재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 기억해야하는 남은 이들의 책무 (안정희, 2021)

희생자들이 전한 가치와 의미 더나은사회를위한방향설정 사회참여 활동 공간 손상된 자아의 책임감과 역할

유가족들의 분노, 죄책감, 무기력 극단적 선택을 위험성 내재 (박기묵, 2015)

잊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닌 기억하고 참여하는 동력 형성 사회적 갈등 공간 기억의 징치화에 따른 가치관 대립

서로 다른 가치관과 다른 기억이 경합하는 복잡한 사회적 상황 (아스만, 2003)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는 인정 '기억 ' 과 '망각' 선택

그림 7. 기억장소 기능 및 역할

제2절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의 사회적 맥락

1. 세월호 참사 전개 과정과 기억장소 특성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 당시에는 국민 모두 희생자를 애도하며 상처와 아픔에 공감했지만, 재난 대응 미비로 오해와 불신이 생겼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다(강현철, 2015). 그 과정에서본 이슈가 정치공방으로 변화되어 재난 갈등이 정치적 이념 갈등으로전환되기도 했다. 이렇듯 세월호 참사는 정치·사회적으로 다양한 여건변화를 겪으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절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의 전개 양상 및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14년 참사가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세월호 참사 관련 이슈 및 여건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매년 4월 16일이라는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상황 변화가 이뤄졌다. 참사 직후 전국 131개 분향소에서 사회적 추모와 애도의 분위기를 형성했다. 희생자시신이 수습될 때마다 슬픔을 함께 나누고, 미수습된 시신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같이 전달했다. 2018년 합동분향소가 철거되기전까지 사회적 추모가 이어졌다. 현재는 2024년 10주기 추모공원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선체 인양을 지켜보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족들이 동거차도에 머물렀던 상황, 2016년 단원고 기억교실

과 2018년 합동분향소 철거 등의 이슈가 정치 사회적 상황들과 연계되어 발생했다. 2021년에는 광화문 기억관 자진철거 및 이전, 4.16생명안전공원 당선작 선정 등의 상황 변화가 있었다.

안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기별 이슈와 세월호 참사 단계적 상황 변화는 다음과 같다(연구자가 직접 참여했던 희망제작소(2020) 연구자 료를 바탕으로 했고, 연차별로 살펴보면서 지역사회에 대두된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을 구분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시계열 분석 을 통해 참사 발생(2014년), 희생자 보상 이슈 대두(2015년), 기억교실 이전 논란(2016년),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추진(2017), 화랑유원지 명 품화 사업 추진(2019) 5단계로 구분했다.

2014년 당시 안산시 차원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발적 봉사와 시 민사회대책위 등의 활동은 피해 확산을 막는 대응체계 기반을 제시했 다. 하지만 단원고 희생 학생 및 유가족에 대한 선입견, 구조 상황에 대한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면서 지역사회에 갈등이 불거졌다. 2015년에는 희생자 보상 이슈가 대두되면서 유가족 에 대한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가족들은 진 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투쟁 을 이어왔다. 그 결과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 공동체 회복과 피해 자 지원,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때 유가족들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를 출범해 사고 수습 및 중장기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유가족들에 게 있어 2016년은 아쉬움이 많은 남은 시기이다. 단원고 희생 학생들 이 머물던 교실의 존치 또는 이전 여부를 두고 지역주민, 시민사회단 체, 행정기관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종교계 중재로 결국 교 실은 비워주고 기억장소를 이전하게 됐다. 2017년에는 안산 지역사회 를 넘어 전국에 생명안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4.16재단이 설립되었 다. 안산시는 특별법에 따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을 실행했다.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지역 내 갈등이 있 던 시기이기도 하다. 2019년에는 추모공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 해소 를 위해 화랑유원지 전체를 개발하는 명품화 사업이 시작됐다. 고잔 동 단원고 앞에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하여 유가족의 치유회복과 함께 주민과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다음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2019)에서 진행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피해당사자들이 인지하는 세월호 참사 이후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희생 학생 부모들이 인지하는 시간의 흐름과 경험을 기준으로 참사 초기, 진상규명 투쟁 시기, 인양 감시 및 기억교실 존치 시기, 세월호 인양 이후 지금까지의 4단계로 나누고 기간별상황을 기술했다.

첫 번째 2014년 참사 초기에는 무력감, 죄책감, 비통함 등의 감정이 있었고, 아이를 떠난 보낸 이후 일상 속 고통과 분노의 마음이 누적되어 있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무너진 정부에 대한 신뢰, 대인기피증, 사회공포증 등의 인식이 형성됐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함께해준 헌신적 자원봉사자와 지지자들의 위로에 희망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

두 번째 진상규명 투쟁 시기에는 350만 명 국민 서명 운동이 진행됐다. 불완전한 특별법 제정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재판 및 청문회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기도 했으나, 진상규명을 통한 안전사회, 정의로운 나라 구현을 위한 노력이 두드러진 시기다. 유가족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시민들의 냉담한 마음이 표면으로 드러난 시기이기도 하다.

세 번째 시기에는 세월호 수색 중단 이후 인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아이들의 추억이 서린 장소 단원고 기억교실을 존치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해 상하이 셀비지가 선정되었고, 유가족들은 동거차도 산 정상에 머물면서 이를 지켜보고 기록했다. 무사히 선체가 인양되어 미수습자 가족들의 염원이 실현되고, 침몰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게 됐다. 당시 단원고 학교 정상화 방침에 따라 재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희생된 아이들은 제적 처리되

고, 그들이 머물던 공간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명예 졸업으로 학교를 떠났고, 기억교실은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네 번째는 세월호 인양 이후 지금에 이르는 현재 진행 중인 시기이다. 정권교체에 따른 기대감 상승과 현실적 한계에 따른 실망감이 동시에 대두되고 있다. 진상규명은 사회 구조적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어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자는 분위기가 있다. 희생 학생 부모들은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보면서 감격과 분노의 마음이 교차했고,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한다. 안산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추모공원을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인식이 형성되어시민과 유가족 간의 갈등이 발발했는데,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문제가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으로, 새로운 전환점 마련이 요구된다.

마지막은 안산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과정 변화를 분석한 내용이다. 김서영과 이혁구(2020)는 안산시민들이 인지하는 세월호 참사 이후 동태 변화를 연구하며, 지역사회 동요와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공동체의 안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학습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한 긍정적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했다. 참사 초기 안산시민들은 세월호 희생 학생 부모들과 심리적 공감을 이루었으나 잘못된 정보전파로 인하여 부정적 인식이 퍼졌고,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 연구결과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과정을 충격기, 갈등기, 긴장기, 충돌기, 피로기 5단계로 구분했다.

충격기는 안산시민들도 이웃의 아픔으로 인해 허탈함과 망연자실함이 큰 시기이다.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국가의 무능함과 부도덕함에 대한 공통된 분노의 마음이 표출됐다. 두 번째는 갈등기인데, 지속적 경기침체로 인해 시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이 증폭되는 시점이다. 보상금 문제나 유가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등의 왜곡된 정보로 인해 불편함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길어지는 애도 분위기에서

일상적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며 부분적인 갈등이 시 작됐다. 세 번째 긴장기에는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현장이 아닌 안산 에 세월호 선체를 거치하거나, 세월호 관련 기억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가 쌓이기 시작했다. 이는 망각과 기억의 양 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전 국민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조금씩 잊히고 관심이 줄어들자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네 번 째는 잠재된 갈등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충돌기다. 특히 추모공원 건립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했다. 그간 세월호 인양 등 문제로 추모 공원 건립이 소강상태였다가 안산시 차원에서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 역사회에 첨예한 갈등이 시작됐다. 일부에서 추모공원을 납골당으로 선전해 그동안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던 사람들도 집값 하락을 우려 하는가 하면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다섯 번째 피로기에는 사 고 수습 장기화 및 추모공원 갈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공동체의 와 해를 경험하게 됐다. 2020년 선거를 앞두며 과거 세월호 참사 문제가 정치문제로 비화 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 아 분열된 민심을 더욱 부추길 우려도 있었다. 이와 같은 단계를 볼 때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모든 이에게 상실과 아픔의 공감대가 형성 되었지만, 왜곡된 정보와 정치 논리 개입으로 사회적 애도의 정서가 희박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에는 현재 진행형인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전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교 검토한 세월호 참사 단계별 전개 과정은 시기별 전국 상황에 따라서는 2014년을 기준으로 7년여의 과정으로 구분했다. 시기별 이슈를 기준으로는 5단계, 유가족들의 경험에 따라서는 4단계, 안산시민들이 인지하는 상황에 따라서는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본연구에서는 4단계 기준²⁶⁾을 최종단계로 도출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피해복구 집중기, 아픔을 극복하는 역할 모색기, 공감과 지지를 위한소통확대기, 지속적 활동 추진을 위한 회복역량 강화기로 구성된다.

²⁶⁾ 본 내용은 연구자가 안산시청에 재직할 때 희망제작소(2020)가 함께 진행했던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 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연구결과를 재구성하여 4단계 과정으로 제안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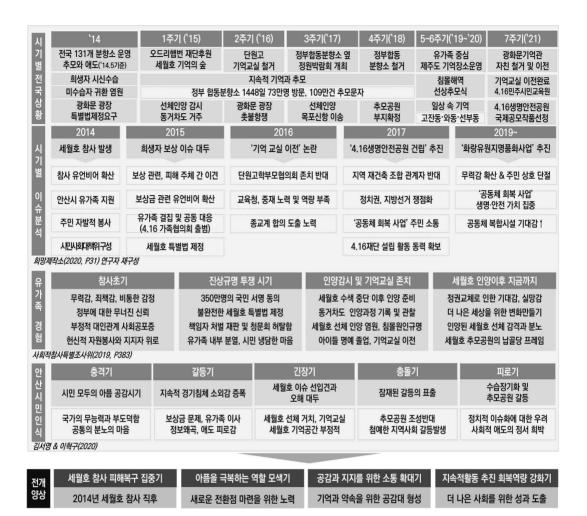


그림 8. 세월호 참사 단계별 전개과정

이를 정리해 보면 '추모애도', '기억기록', '의미확장', '가 치정립'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4년 피해복구 집중기에는 정부합동 분향소, 팽목항, 진도체육관, 단원고 교정, 광화문 천막농성장 등 기억 장소가 생성되었고 이들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추모 애도의 특성을 나타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아픔을 극복하는 역할 모색기라 고 할 수 있다. 동거차도라는 새로운 사건 현장이 등장, 사회적 추모 분위기로 세월호 기억의 숲이 만들어졌다. 4.16기억전시관 및 4.16기 억저장소를 통해 가치를 확산하고자 했지만, 단원고 기억교실 이전을 통해 장소성이 상실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 당시의 기억장소는 기억과 기록을 통한 사회적 활동현장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부터 2018년은 공감과 지지의 소통 확대기로, 농성장이었던 광화문광장이 기억과 빛이라는 기억문화 공간으로 전환됐다. 합동분 향소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개최되었고, 고잔동 마을에서 아이들의 등굣길을 소생길이라고 명명하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때는 세월호 참사의 의미가 시민들에게 확산되는 시간이었으며 기억장소는 일상적 소통현장으로 의미가 확장됐다. 마지막 2019년 이후 지금까지는 회복역량 강화기라고할 수 있다. 이전된 단원고 기억교실이 4.16민주시민교육원으로 재탄생했고, 국내 최초 도심형 메모리얼 파크 4.16생명안전공원의 형태가 윤곽을 드러냈다. 목포신항으로 옮겨진 세월호 선체를 4.16생명기념관으로 조성하기 위한 고민도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꿈과 이상이담긴 땅 제주도에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안식처 기능을 하는 제주기억관이 만들어졌다.

표 6. 세월호 참사 전개과정에 따른 기억장소 특성구분

	발생시점	기억장소		기억장소	
전개과정		장소명	기능 및 역할	특성구분	
세월호 참사 피해복구 집중기	'14년	정부합동분향소	304명 희생자 영정사진 재난 대응을 국가적 지원 국민의 사회적 애도 지원	직접적 - 사건현장 추모애도	
		팽목항/진도체육관	시신 수습 및 미수습자 기다림 유가족들의 충격과 공포 현장 참사 현장의 장소성		
		단원고 교정	무사 귀환을 바라는 기도 250명 단원고 희생자 애도 생존자들의 일상회귀		
		광화문 천막농성장	국가에 대한 투쟁과 저항 유가족들의 슬픔 토로 정치적 이념 갈등 현장		
	'15년~ '16년	동거차도 산마루 움막	유가족 주체적 활동 시작 세월호 선체 인양과정 기록	사회적 - 활동현장 기억기록	
아픔을 그ㅂ뒨노		세월호 기억의 숲	사회적 지원을 통한 장소형성 304명 희생자 흔적 남기기		
극복하는 역할 모색기		4.16기억전시관	기록으로 기억하기 방향설정 자발적 장소 형성 및 운영		
		단원고 기억교실	250명 아이들의 흔적 지키기 공간 이전을 통한 장소성 상실		
	'17년~ '18년	광화문 기억과 빛	사회적 소통공간 기능전환 대중적 공감대 형성유도	일상적 소통현장 의미 확장	
공감과 지지 소통 확대기		정원박람회 작가정원	메가이벤트를 통한 의미생성 침체된 분위기 인식전환		
		고잔동 소생길	일상공간의 상징적 특성화 주민과 유가족 공감대 형성		
	역량 19년 이호	4.16민주시민교육원	이전된 기억교실 역할 정립 대안교육 가치발굴 및 실현		
지속적 활동 회복역량		4.16생명안전공원	삶과 죽음 공존 모델창출 생명존중과 안전사회 가치구현	역사적 교훈현장	
외독특당 강화기		4.16생명기억관	참사현장 상징적 장소성 부각 참사의 증거 및 역사적 교훈	가치 정립	
		제주기억관	꿈과 희망 이념과 이상향 실현 상처받은 사람들의 안식처		

2. 참여주체별 활동특성 및 역할

지금부터는 장소와 관련된 참여주체들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행정조직과 민간의 자발적 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재난 극복 활동을 전개했다. 국가 차원에서 관련 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재난수습 대책위가 꾸려졌는데, 유가족들은 참여주체로서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시민사회 조직들은 지역사회 의제 해결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김도훈 외 2020; 한소정, 2018; 이용숙, 2018). 이렇게 주체별 사회참여 활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기억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담아내거나 추진력 있는 활동 거점으로 쓰기 위한 공간이 조성·운영됐다. 이들 물리적 공간이 본 연구에서 집중하는 기억장소이다. 이와 같은 기억장소들은 협력과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플랫폼 역할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한 이해관계자를 '민간주체와 공적주체' ²⁷⁾로 구분하였다. 민간주체는 세월호 참사 의미를 확산하기 위한 공간전략을 수행하였는데, 잊지 않고 기억되기를 바라는 유가족들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행정은 세월호 특별법을 근거로 지원을 하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공적주체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억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²⁷⁾ 세월호 참사 이후 조성된 기억장소를 둘러싼 주체를 공적주체와 민간주체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공적주체의 공적 주체는 법·제도·예산 등 지원 공적기금이 지원을 받아서 의무적으로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주로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성 및 운영되고 있는데 정보기관으로는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이 있고,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을 포함하고 있다.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목포시도 새롭게 추가된 공적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법에서는 피해당사자 및 지역공동체 치유회복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 4.16재단, 온마음센터, 희망마을사업추진단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적주체는 법 제도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므로 신속한 절차이행 및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조직이 민간주체이다. 아픔에 공감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긍정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참여하는 일반시민들과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으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시민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민간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등도 민간주체의 일원이다. 세월호 참사는 다른 사회적 재난과는 다르게 피해당사자인 유가족들이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참여했다. 따라서 민간주체의 범주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각 주체들이 공간과 맺는 실천적인 관계, 공간과의 상호작용, 주변 공간과의 관계 등을 파악했다. 또한, 기억장소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대상, 참여 행위, 개입 범위, 그에 따른영향력 등을 파악하여 실천적 참여주체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며 활동했던 각 주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공간 안에서 형성되는 콘텐츠, 즉 물리적 실체 속에 내재하는 실천 활동을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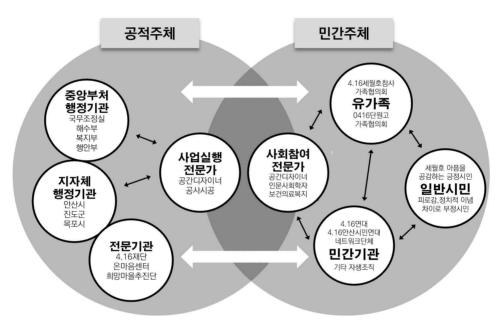


그림 9. 참여주체(공적주체 + 민간주체) 구분

앙리 르페브르(2011)는 공간은 사회의 공간이며 모든 주체는 공간속에 위치한다고 했다. 4.16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공공재로서 역할을 하는 공간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직접적인 활동으로는 물리적 공간이 만들어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제도적 지원, 부지 협의, 건립비 지원 등이 이뤄졌다. 간접적으로는 디자인의 방향, 지역사회 인식 개선, 공간 운영 책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이 전개됐다. 이들 이해관계자는 피해당사자인 유가족,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 세월호 지원 행정기관,

공간조성에 기여한 사회참여 전문가,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일반 시민 등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가운데 단원고 학생 250명의 유가족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소극적 피해당사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기 위해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 의회, (사)0416단원고가족협의회라는 공식적인 조직을 구성하기도 했 다. 이들은 기억장소를 조성 및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 주 체라고 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양한 형태의 시민단체들이 결성 · 운영됐다. 국민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결성된 네트워크 조직 4.16연대와 4.16안산시민연대는 유가족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 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관련 정치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며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만들기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2개의 대 표기관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들도 있다. 2014년 11월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을 실행하기 위한 주체로서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전담 행정기관이 구성됐다. 국무조정 실 세월호참사 지원단28),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안산시 세월호수습지원단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 중이며 행정안전부, 보건복 지부 등이 일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지원으로 운 영되는 4.16재단, 온마음센터, 희망마을사업추진단 등의 전문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전문가들 역시 본인들이 가진 지식과 역량으로 가 능한 사회참여 활동을 했다. 건축가들을 세월호 참사 가치를 닦은 공 간을 설계·조성했고, 조경가들은 기억과 추모의 상징적 의미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인문사회학자들은 역사적 기록화, 진상규명에 대한 사 회적 공감대 형성,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회복을 위한 활동을 지원했 다. 마지막으로 유가족들 곁에서 함께 울고 웃어주던 일반 시민들이 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응원했다. 이웃의 아픔을 가까 이에서 접한 안산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슬픔을 나눴다. 물론 일

²⁸⁾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시설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

반 시민 가운데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사고 수습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증폭, 정치적 이슈 부각으로 인한 오해와 불신 등이 원인이 되어 이들과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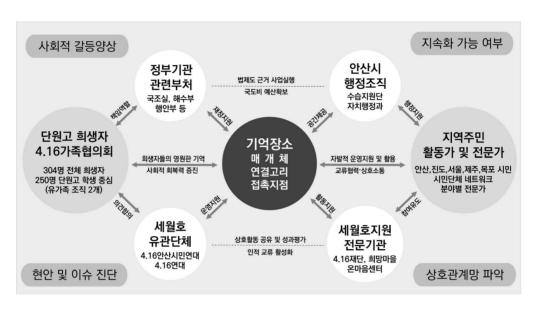


그림 10. 참여주체 역할 및 관계망

기억장소를 이해하는 데 있어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공간을 점유하여 관리하는 주체들의 입장과 역할을 인지하는 것과 조성된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장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실천적 참여주체들과 물리적 공간의 상호작용이 극대화될 때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참여주체들이 수행했던 주요 기능 및 역할에 따라서 유형화 분류를 시행하여 공간사회적 의미해석을 위한 분석의 틀로 활용했다. 참여 대상,참여 정도, 주요 역할 등을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유가족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시민단체, 행정기관, 전문가, 시민들의 협력적 지원으로 기억장소를 만든 것이다. 두 번째는 일반 시민의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유가족들과 함께한다는 마음이 중심이 되어 조성된 공간이다. 세 번째는 세월호 특별법 등 법제도적 지

원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고 진행한 사항이다. 유가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가치 확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한 활동 이다. 여기에는 유가족과 전문가의 협력적 지원이 수반된다.



활동특성에 따른 실천적 참여주체 구분		참여방식	참여목적			
01	세월호 유가족 피해당사자의 <mark>주체적 참여</mark>	활동조직구성 ← 독자적 혹은 민관지원	가치확산을 통한 대중적 공감대 형성			
02	일반시민들의 자기동기화에 따른 자발적 참여	자아중심 능동적 행동(조직X, 지원X)	희생자 기억추모, 무너진 신뢰 분노			
03	정책적 지원에 따른 행정기관의 <mark>공적 참여</mark>	법제도 및 예산지원 체계적 운영	국가의 책임에 따른 임무수행			
04	민간단체 및 전문가 책임행동에 따른 사회적 참여	협력적 관계형성(후원금, 재능기부)	긴급상황 신속실행, 윤리적 가치실현			

그림 11. 참여주체 특성 분석

피해당사자의 주체적 참여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본인의 삶이 무너지고, 이 웃과의 관계가 파괴되며, 국가에 대한 불신이 강해졌다. 이현정(2016)은 이러한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사회적 의미구조와의 연결성을 가진 사회적 고통(social suffering)²⁹⁾이라고 했다. 이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본래 아픔은 개인적 차원에서 마음의 불편함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것이지만,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 상황 및 관계에 따라 피해자들의 마음의 동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재난을

²⁹⁾ 세월호 참사에서의 고통의 문제는 미디어를 통해 의도적 이미지가 드리워지면서, 사회집단들 로 부터 갈등이 심화됐다. 또한 국가 및 사회 지도자들의 대응 방식에서 나타나듯, 국가적 재 앙 속에서도 공동체 성원들의 공감의 능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양상했다(이현정, 2016).

경험한 피해자들에게 심리학적·신경학적으로 접근해 트라우마 치유에 초점을 맞추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피해당사자들이 갖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극복을 위해 온마음센터³⁰⁾라는 전문기관을 안산시에 설치하여 재난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돕고자 했다. 하지만 김익환(2016)은 피해당사자들을 환자로 바라보고 장애 극복을 위한 치료적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당사자들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초기 유가족 대부분이 마음의 고통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픔을 삭이며 일상생활을 하거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을 했다.

"수업 연장선으로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가 갑자기 돌아오지 못했어요. 세월호는 왜 침몰했고 국가는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지도 못했는데 좀 힘들다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어요(유가족 인터뷰)."

따라서 피해당사자들이 회복하고 온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남겨진 사회적 의미³¹⁾를 실천하는 행위를 동반하면서 일반 시민들과 동등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심층적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과 욕구를 이해하면서 내면적 치료가 진행되는 것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인지하게 된 중요 지점이다.

"아이가 떠난 일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나마 이곳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작은 힘을 얻게 되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말하고 나누는 동안 아픔을 많이 극복했어요(유가족 인터뷰)."

³⁰⁾ 세월호 특별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조직으로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라는 이름으로 정신과의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들을 파견하여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의료학적 관점에 치유회복하도록 하는 전문기관이다.

³¹⁾ 생명존중의 가치 확산,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지원, 사회적 갈등 해소를 통한 더불어 함께 사는 삶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림 12. 세월호 유가족들의 주체적 참여활동 사례

김민정(2018)은 아픔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것은 끔찍한 사고를 잊어서가 아니며, 오히려 지우지 않고 기억하는 것 자체가 치유의 첫 시작이 된다고 했다. 기억하는 것 자체가 사회 공동체의 아픔을 넘어치유의 시작인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고통을 남기는 특별한 사건은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고, 모두가 공감하게 될 때 완전한 재난 극복이 이뤄진다. 유가족들의 사회참여 활동은 기억장소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의 사회적 의미를 더 많이알리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피해당사자들의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기억장소는 유가족들이 주체가 되어 세월호 참사 이후의 건강한 사

회를 만드는 활동의 무대가 됐다. 특히 기억장소와 연계한 문화예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4.16공방, 4.16가족나눔봉사단, 4.16가족극단, 4.16합창단, 4.16희망목공소 등의 조직을 운영했다.

심리학적·신경학적 접근 보건의료 관점 재난 피해자들이 가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극복 트라우마 치유회복

>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의료복지 관련 전문 인력 파견 심리적 고통 치유회복 전문기관

공간과 장소를 매개로 한 지속적 참여활동 사회적 애도하는 법을 배우고 공감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는 노력

가족협의회 기억공간 연계협력 운영관리 사회적 가치확산을 위한 조직구축 "4.16공방/4.16가족-남봉사단/4.16합창단 4.16가족-국단노란라본/4.16희망목공소"

그림 13.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 치유회복 의미 변화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광복 이후 중요한 사건을 물어보는 여론조사에서 세월호 참사와 한 국전쟁³²⁾이 가장 높은 순위로 선정됐다. 물론 이는 2014년 12월에 실시한 관계로 당시 충격이 국민들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있던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얼마나 큰 심리적·사회적 충격과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예상할 수는 있다. 이는 피해당사자는 물론, 안산 지역사회를 비롯해 국민 모두에게 각인된 충격적 사건이다. 알박스는 기억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개인과 집단이 경험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연계하여 사회적 상황으로 축적된 집단기억으로 이뤄진 자발적 시민참여 활동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재난 극복의 힘을 키우는 노력을 전개했고, 자기 동기화 및 목적 실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 활동을 추진했다.

세월호 참사 초기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국 131개33) 분향

³²⁾ 세대별로 조사 결과는 20대 세월호(16.9%)와 한국전쟁(13.2%), 30대 세월호(14.6%), 한국전쟁 (12.6%), 40대 세월호(15.2%)와 한국전쟁(10.6%), 50대 한국전쟁(16.6%)와 세월호(12%), 60대 세월호(8.8%)와 한국전쟁(23.6%)이 이와 같다(이정애, 2014).

소가 설치되었고, 안산합동분향소에는 4년간 73만명이 방문했다.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희생된 이들을 애도하고 끔찍한 참사가 발생한 것에대한 분노의 마음이 컸다. 당시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자원봉사단체들은 팽목항과 합동분향소로가서 봉사활동을 했고 민간기업들은 구호품과 기부금이 지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사 귀환을 바라는 촛불집회를 4월 16일 밤부터 시작해서 89일간 매일 진행했다.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서 재난관리 매뉴얼에 따라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가 할 일을 찾았어요. 특히 유가족들은 식사를 전혀 못 하고 그냥 울고만 계셨기 때문에 긴급 주먹밥을 만들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전달해 드렸어요(당시 대한적십자사 안산지구협의회 박팔문 회장 인터뷰)34)."

참사 초기에는 모두가 희생자 추모에 집중했고 국가 차원의 사고수습 및 대책 마련이 미흡해지자 집회와 단식농성으로 이어졌다. 주성수(2015)는 당시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들의 사회참여 유형을 참사현장 자원봉사, 금전적 기부, 촛불집회 참여, 희생자 추모 분향소 방문, 노란 리본 달기, 진상규명 촉구 집회와 시위 참여 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활동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됐다고 했다. 이러한 활동은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진행돼 매년 4월 16일 기억식을 중심으로 많은이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기억과 추모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나빈외(2017)는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사건과 관련한 슬픔, 죄책감, 분노 등의 감정을 느낀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는 시민들의 사회참여 차원으로 바라볼 때 그간 발생했던 재난 참사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먼저 자원봉사 및 기부 등 활동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시위가 활성화됐다. 미흡한 정

^{33) 2014}년 5월 5일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는 경기도 37곳, 서울 17곳, 전남 18곳, 강원 13곳 등 모두 131곳의 분향소가 설치됐다(강창구,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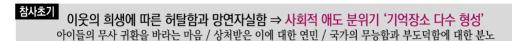
³⁴⁾ 세월호 그 곁에 선 사람들 인터뷰 기록집(안산시, 2018 : p.65.)

부의 수습 지원에 대한 저항적 시민참여가 이뤄졌다. 시민사회단체 주도의 참여활동보다는 피해당사자인 유가족들이 직접 조직화하여 활 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정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 피해 당사자들의 애절한 바람이 국민에게 전달되면서 대중적 공감대가 형 성되었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세월호 참사만의 특별한 시민참여 활동은 다양한 장소들과 연결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앞에 언급했던 안산 정부합동분 향소와 전국 일반분향소는 장소를 매개로 시민들의 방문을 유도하여 희생된 이들을 '애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던 단원고와 고잔동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들 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는 곳이자, 선물과 편지를 남기며 '공감하는 마음'을 기르는 곳이다. 유가족들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던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은 '봉사와 헌신의 마음'을 전하는 활동공간이 됐다. 기억장소와 연계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활동은 개인의 삶에 주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는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렇게 기억장소는 사고 발생 당시에는 연 대의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당시 경험을 상 기시키며 현장의 장소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 사 희생자들이 남긴 사회적 의미를 확산하는 변화의 동력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기억장소는 긍정적인 시민참여만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애도의 분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가 지속되었고, 그 원인을 기억장소에 두는 시민들이 등장했다. 사회적 추모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과 지역 내에 기억장소가 건립되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단원고 기억교실 존치, 추모공원 봉안시설 건립, 광화문광장 점유 등의 문제들이 대두됐다. 또한 세월호참사 이슈가 정치권 공방에 놓이면서 정치적 이념에 따른 반대 행동도 등장했다. 재난 이후 물리적 공간을 둘러싼 갈등 양상은 다양하게나타난다. 기억장소를 둘러싼 시민참여의 양상은 복잡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구성원 모두가 함께 경험하면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개별적 설득을 넘어서 사회가 회복되고 한 단계 성장하는 역할을 했다.



팽목항 및 진도체육관 봉사활동(민간잠수사 참여 시신수색, 전국 봉사단체 집중행동) 정부합동분향소 73만명 방문(전국 131개 분향소 운영), 단원고 정문 앞 슬픈 선물



그림 14.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참여 활동 전개 양상

행정기관의 공적 참여

2014년 진도군과 안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정, 재정, 금융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약속했다.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대책본부35)를 구성해서 세월호 사고 수습과 사후대책 마련 및 실행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후 유가족들의 오랜 요구의 결과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특별법'과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를 근거로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통해 생명존중안전사회 전환점 마련, 지역사회에 대두된 사회적 갈등 해소, 기억과추모를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시행하게 됐다. 국무총리실에 있는 세월호피해자지원추모사업지원단과 해양수산부에 있는 세월호후속대책추

³⁵⁾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본부장으로 부본부장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교육부·복지부·국방부·문체부 장관, 해양경찰청장·소방방재청 장·해군참모총장·전남지사가 참여했다.

진단은 특별법을 근거로 한 사업들이 실행될 수 있는 지원조직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참여와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이들도 완전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재난 대응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Myers(2005)는 미래지향적 재난 관리라는 용어를 제안하며, 지역구성원이 중심이 되는 재난이후 회복력 증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난 이후 물리적 재건과 사회적 회복은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는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적극적 요구와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실행 시점 및 역할에 따라서 국가에서 직접 실행하거나 지자체 위임 및 민간전문기관 위탁 방식으로 당사자들의 치유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안산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우울, 불안 등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아주대, 2014). 보건복지부는 정신건 강트라우마센터를 안산시에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심리적 치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안산시는 행정안전부 예산지원을 받아서 희망마을사업추진단을 운영하며 아픔을 삭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안산의 경우 기억장소가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유발하고, 주민들의 상호 갈등을 유발한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정부합동분향소 장기점유, 단원고 기억교실 존치, 화랑유원지 내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 조성 등 물리적 공간 이슈와 주민 갈등은 지역공동체 와해에 대한 불안감을 형성하게 했다. 이 기억장소들은 국가적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

때로는 기억장소를 둘러싸고 유가족과 행정기관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진도군이 죽음의 공간 이미지가 드리워진 팽목항이란 이름을 진도항으로 바꾸고, 398억원을 들여 터미널 조성 공사를 시작하면서 팽목항에 있던 세월호 참사 흔적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³⁶⁾을 이유로 기억공간 철거를 통보했고,

기록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를 요구했다. 유가족 측은 공사에 따른 이동에 협조하겠지만, 공사 이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억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담은 공간을 재조성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서울시 입장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유족들의 입장이 대립했다. 다행히 강제철거로 인한 몸싸움은 발생하지 않고 서울시의회 중재로 의회 본관으로 임시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이렇듯 행정기관의 공적참여가 다수의 시민 입장을 고려한다면 불 가피하게 기억장소를 철거 혹은 이전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분 별하게 지워버리는 망각의 행동보다는 현장의 장소성을 담을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5. 행정기관 공적 참여 (왼쪽:특별재난지역 선포이후 지원, 오른쪽: 정치적 이념에 따른 철거)

민간단체 및 전문가의 사회공헌 참여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차원의 책임감 있는 역할 부재에 대한 지적이 다양하게 제기됐다(강현철, 2016; 이현정; 배천직, 2017). 사회적 재난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다행인 것은 정부

³⁶⁾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 면적을 기존 1만 8840㎡에서 6만 9300㎡로 3.7배 확장하는 사업

와 일부 전문가 주도 한계를 사전에 인지하고 시민사회, 비영리단체, 사회공헌 전문가 등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재난 대응 활동을 전개했다는 점이다. 본 절에서는 정부주도 하향식 재난 대응에서 거 버넌스 연계 상향식 대응으로 전환하는 것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기 억장소의 생성 및 변화과정에서 민간단체 및 전문가들의 책임감 있는 사회참여 활동을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재난 극복을 위한 지역사 회 일상회복과 온전한 치유를 위한 활동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들의 활동은 참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전환점 을 마련하는 기반이 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극복 및 치유회복은 희생자와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혹은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인식을 전환해야 했다. 박수정(2017)에 따르면 이는 개인적 트라우마 치유를 넘어 집단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사회적 불신, 차별적 분열, 경제적 파괴 등의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Saul, 2014).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 지역주민, 시민단체, 행정기관 모두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적 거버년스 운영이 중요하다. 일부 전문가들과 행정기관만이 이러한 문제를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벗어나 모두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안산에서는 4.16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재난 피해자 지원 및 지역주민들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했다(이용숙, 2018).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 생존자, 형제자매, 지역주민 등 특별한 대상의 치유회복을 위한 조직들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고잔동과 와동에 대안적 치유공간을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며 유가족과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회복 지원 활동을 했다. 치유밥상, 뜨개질, 체험활동, 대화나눔 등 소소한 일상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박수정, 2017). 고잔복지센터 쉼과힘·생존자문화공간 쉼표·치유공간 이웃·와리마루·복지관 네트워크 우리함께·소금버스37) 등이다. 주로 소소한 문화활동을 통해 이웃 간의 관

³⁷⁾ 치유공간 이웃, 우리함께, 소금버스는 현재 사라져서 6개의 공간 가운데 3개만 남아있다.

계를 회복하고 유대감을 만드는 활동을 했다.

전국적으로는 4.16연대를 중심으로 각 지역 시민단체 및 행정기관 협력을 통해 기억장소 조성 및 운영 활동이 전개됐다. 특히 세월호 참사 초기 전국 분향소를 운영하며 희생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애도 를 지원했다. 그 이후 국가의 미비한 대응으로 인한 사고 수습 장기 화 및 진상규명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유가족들은 광화문에 머물며 메시지를 확산하는 활동을 했다. 이와 같은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서 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4.16연대와 민간 전문가의 협력적 참여가 있었다. 건축가, 조경가, 화가 등의 지원을 받아 특별한 의미와 활동이 발생하는 기억장소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기억장소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민간 전문가들의 사회적 책 임을 기반으로 한 실천 활동은 유가족들과 지역사회의 변화에 이바지 했다. 컨트롤타워 부재 및 전문적 지식 부족으로 당시 우왕좌왕하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조성룡 건축가의 세월호 선체 모형 제작 및 단원고 앞 휴게공간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유승현, 조준 배 건축가, 새건축사협의회 회원들의 지원으로 4.16기억저장소와 4.16 기억전시관도 만들어졌다. 이곳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의 과정과 기억 을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 공원, 정원, 놀이터 등 외부 공간 조성에는 조경가들의 참여가 있었다. 이주은 회 채혁 작가는 경기정 원문화박람회 일환으로 세월호 추모정원을 조성하여 당시 합동분향소 와 연계된 기억장소를 만들었고, 대학생 및 청년 조경가들은 유가족 과 함께 1반에서 10반까지 아이들의 정원을 만들었다. 이들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환경 전문가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있었다. 이들의 활동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오해하고 불신하는 마음을 가진 지역주민들의 이 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기억장소를 매개로 공동체 내의 애착과 연대를 강화하며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

표 7. 시민사회 및 전문가 참여 기억장소 조성 활동

구분		기억공간	기관단체	전문가 사회참여 활동			
	1 正	기탁중선	기단인제	전문가	주요역할		
진도		팽목항 기억관 세월호 기억의 숲	광주시민 상주모임 오드리햅번재단	양수인(건축) 트리플래닛(사회적기업)	오드리헵번어린이 재단 연계 크라우드펀딩 활용 가금마련		
안 산	고잔동 마을	고잔동소생길, 기억의 정원	일촌가드너, 명성교회 우리함께, 쉼과힘	푸르네 정원문화센터	정원을 통한 장소기억 및 지역사회 분위기 전환		
		4.16기억전시관, 기억저장소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	새건축사협의회 윤승현 조준배 건축가 외	마을 내 상가건물을 활용하여 세월호 관련 전시 및 안내		
	단 원 고	단원고 학교가는길	단원고재학생, YMCA	조성룡 조남호 이동욱 이민아 건축가	단원고 등굣길 벤치, 쉼터 재학생들 휴게공간 조성		
		단원고 기억교실	경기도교육청	승효상 건축가	단원고 기억교실 이전 갈등 해소 아이디어 제시		
		단원고 추모조형물	단원고	최명환 건축가	승천하는 고래 형상 조형물		
	화랑 유원지	4.16세월호 추모공원	4.16재단 4.16안산시민연대	이충기(건축) 외 전문위원)	국제공모전 운영 준비 추모공원 방향성 구체화		
		제5회 경기정원문화 박람회 참여정원	경기도 및 안산시	이주은, 최재혁 조경가 청년 조경가	세월호 합동분향소 인근 기억과 약속의 정원조성		
목포		세월호 선체 활용 생명기억관	해양수산부	문정석 건축가	세월호 선체 거치 이후 활용방안 아이디어 수립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전시관	4.16연대	주대관 건축가 이민아 건축가	광화문광장 내 상징적 기억공간 조성 활동 지원		

3. 사회적 맥락 분석

손은신(2021)은 기억장소는 사건에 대한 관점, 이해관계자 참여도, 사회적 상황 및 여건, 공간기획자 생각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본 연구 대상지도 이렇게 다양한 요인에 따른 전개 과정을 거쳐왔고, 각각의 공간특성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 단계에서 이뤄지는 '기억장소 생성변화'과정을 도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공간, 행위자, 행동, 감정, 시간, 목 적 등 사회적 맥락 분석 방법³⁸⁾ 6가지 관점³⁹⁾을 활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지인 15개 기억장소를 기준으로 물리적 장소로서의 공간, 관련된 사람들로서의 행위자,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으로서의 활동, 느끼고 표현되는 정서인 감정, 일련의 상황이 발생하는 시점으로의 시간, 사람들이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목적 등에 따른 특성을파악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고, 그로 인한 감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장소들이 조성되고 운영되는 시점을 적용하여 생성변화 시점을 구분하고, 목적과 이유를 파악하여 사회적 함의를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맥락 분석 결과는 복잡한 사회적 상황의 전개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기억장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연구자가 5년 동안 현장에 머물면서 조사 분석한 활동의 결과물이다. 이를 잘 활용하여 본 연구의 최종목적인 기억장소의 공간적 특성과 사회적 함의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³⁸⁾ Spradley(2006)는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사회적 맥락(social situation) 분석 방법을 제안했다. 사회적 맥락(social situation)은 장소, 행위자, 활동 세 가지 요소로 규정된다. 참여관찰을 함에 있어 어떤 장소를 바라볼지 찾게 되고, 그곳에서 어떤 행위자들이 있는지 인지하게 되며, 어떠한 활동들이 이뤄지는지 관찰하게 되는 것이다(Spradley, 2006, p.49.).

³⁹⁾ 이는 본래 9가지 요소(공간, 행위자, 사물, 동작, 활동, 사건, 시간, 목적, 감정)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사물, 동작, 사건 항목을 제외한 6가지 요소로 사용했다.

표 8.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 사회적 맥락 분석

_								
구분	연구대상지 기억장소	지역	물리적 장소 공 간	관련된 사람들 행위자	사람들이 행하는 행 동	표현되는 정서 감 정	상황 발생시점 시 간	보여주려는 노력 목 적
1	단원고 운동장과 정문		촛불 기도 장소 운동장 및 정문	함께하는 시민 오바마 대통령	머물며 기다림 메시지 남기기	고통과 절규 슬픔과 위로	`14년 4월 직후	무사 귀환 염원
2	정부합동분향소		올림픽기념관 화랑유원지 주차장	위로하는 시민	현장방문 유가족 만남	공감과 연민 기억하는 다짐	`14년~`18년	삶과 죽음 공존
3	기억저장소, 기억전시관		고잔동 연립상가	유가족, NGO	기억투쟁	자발적 연대	`14년 이후 현재	잊히지 않는 노력
4	단원고 기억교실	안	10개반+교무실	유가족, 재학생부모	일상적 장소기억 보존과 반대	간절한 바람 학습권 보장요구	`14년 4월 직후	기억을 통한 사회적 가치확산
5	고잔동 소중한 생명길	산	등굣길, 산책로 마을정원, 원고잔공원	고잔동 주민 지역거주 NGO	자발적 주민참여활동	미래지향적 기대와 희망	`15년 이후 현재	상징적 마을 자산화
6	화랑유원지 정원박람회		작가정원, 아이들정원	조경가(전문가, 청년)	기억공간 구현	대중적 공감대마련	`17년 이후 현재	세월호 가치확산
7	4.16민주시민교육원		안산교육지원청	유가족, 교육전담기관	이전된 공간 새로운 가치부여	변화를 위한 도전	`21년 조성	생명안전중심 시민의식전환
8	4.16생명안전공원		화랑유원지 남측	유가족, 정부	250명 안식처	간절한 바람	`24년 조성예정	도심형 추모공간
9	팽목항		영안실, 하늘우체통 빨간등대, 기억의벽	유가족, 정부	고통 속 신원 확인 장소기억 지키기	절규와 눈물	`15년 이후 현재	사고 수습 희생자 위로
10	진도체육관	진	안내판, 임시거주시설	유가족, 정부	간절한 기도	오해와 불신	`14년 4월 직후	재난상황 이해
11	동거차도	도	미역양식장, 산마루 선체침몰해역	유가족, 마을주민	감시와 관찰	결의와 다짐	`15년~`18년	진상규명 의지
12	세월호 기억의 숲		은행나무, 기억의벽	유가족, 오드리햅번	후원 공간조성	공감마음 나눔	`15년 이후 현재	함께하는 연대의식
13	세월호 광장	서울	천막농성장, 기억과 빛 기억관	유가족, 서울시	농성장 조성철거 기억공간 의미화산	결의와 다짐	`14년~`21년	세월호 참사 상징적 부여
14	제주기억관	제주	제주4.3 가는길	유가족, NGO	후원 공간조성	용기와 희망	`19년 이후 현재	아이들의 꿈실현
15	4.16생명기념관	목포	목포신항	유가족, 정부	선체활용 공간조성	결의와 다짐	`19년 이후 현재	기억과추모 완결

제3절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의 생성변화 단계

1. 단계별 생성변화 과정 도출

공간과 장소⁴⁰⁾는 시대 흐름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시간이지나면서 사라지는 생성 및 변화 과정을 거친다.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물리적 공간이 형성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에서 사람들은 활동하게 된다. 그곳에 머무는 이들의 행동에 따라 확장되거나 축소되면서 형태가 변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이 누적되고 그 속에서 의미가 형성되면, 이로써 특별한 장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장소는 사람, 시간, 상황에 따라 생성과 변화를 거치면서 유지되거나 달라진다. 여기서 생성⁴¹⁾은 존재나 사물의 상태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되는 것을 말한다. 변화는 성질, 모양, 상태가 달라짐에 따라고정적이고 질서화된 형태를 탈피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조성된 기억장소를 대상으로 어떠한 상황적 변화가 있었고, 어떠한 기능 및 역할을 했는지를 파악하고자한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그로 인한 차별화된특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기억장소의 생성변화' 관점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연구대상지 15개 기억장소를 대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생성변화 관점에서 각각의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적・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 필요나요구, 문제의식 없이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없다(윤택림, 2013). 따라서 기억장소 생성변화 분석은 시대적 여건에 따라 발생한 정치적변화, 사회적 이슈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기억장소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⁴⁰⁾ 공간은 객관적이고 장소는 주관적이라고 한다. 공간은 주인 없는 텅 빈 곳이고, 거기에 어떤 특정한 주체가 들어서면 그곳은 그의 장소가 된다. 공간 그 자체는 추상적이고 공허하지만, 사람들이 들어서서 장소가 되면 그림이 전혀 달라진다(서영채, 2020 : p.204.).

⁴¹⁾ 들뢰즈는 생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의미 창출을 통해서, 각 개체 간의 상호 '되기 becoming'를 만드는 것이고 다양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했다(송정은, 2016).

이러한 생성변화 과정은 단순히 시간의 관점으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변화를 찾아내는 것은 아니다. 기억장소의 생성변화는 미셸 푸코⁴²⁾가 강조한 것처럼 공간의 관점에서 관계망이 변화된 양상을 인지하고자 했다. 공간구성의 형식, 공간운영의 주체, 공간을 소유하는 기관, 공간에서 수행하는 기능 등 복잡한 관계를 분석했다. 또한공간에 대한 새로운 사유 방식을 제기한 들뢰즈⁴³⁾의 공간론 '생성의공간'이론 공간분석의 관점도 연구에 적용했다. 공간은 멈추지 않고 그 자체로 변화를 거듭하게 되고, 단수의 공간이 아니라 복수의공간들이 생성하고, 소멸하고, 이동하고, 변이한다(지바 마사야, 2017). 들뢰즈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양한 환경들이 겹쳐 있으며, 주기적 반복과 계열화에 따라 공간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다(김은주, 2016). 제한되고 통제된 공간을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 구조 차원에서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이 생성변화 관점이다. 이렇듯 푸코와 들뢰즈의 '공간의 생성변화 분석'이론을 바탕으로 기억공간생성 및 변화형태를 분석하고자 했다.

공간사회학자 앙리 르페브르(2011)는 공간에 대해서는 물리적 공간, 사회적 공간, 정신적 공간이라는 세 가지 구분된 개념을 설정했고, 최 종적으로 이들이 사회적 공간으로 수렴되는 과정에 주목했다. 사회적 공간은 사회적 생산물⁴⁴⁾이며, 하나의 사회는 자신만의 공간을 생산한 다. 공간은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층위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을 통해서 전반적인 시대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다. 또한 모든 사회적 관계와 의미는 공간에서 존재감과 구체성을 얻

⁴²⁾ 푸코는 역사라는 거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것이 19세기이며 20세기는 공간의 시대라고 했다. 역사는 발전이나 진보라는 개념을 통한 시간의 커다란 흐름만을 말한다. 이에 비해 공간은 단면을 드러낸 나무줄기의 횡단면처럼 흩어져 있는 것들이 만들어 내는 연결망을 보여준다. "세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거대한 생명체가 아니라, 공간을 통해 여러 지점이 연결되고 실타래처럼 교차하는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서영채, 2020: p.202.)

⁴³⁾ 들뢰즈의 생성공간 연구는 공간을 단순히 물리적 틀만으로 검토하지 않고, 사회, 기술, 문화, 종교, 계급, 젠더 등을 사회문화적 현상과 연결성을 가지게 한다. 이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세대 간의 양식 격차, 개발 양극화가 일으키는 공간 불균형,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론 역할을 한다(김은주, 2016: p.31.).

⁴⁴⁾ 생산물은 사물이나 물체가 아니라 관계의 집합을 가리키는 개념이다(김준호, 2011).

게 되고, 공간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연결되는 사회관계가 중요하다(김준호, 2011). 르페브르는 사회와 함께 더불어 변화하는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적 현상과 시대적 변화를 공간을 통해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공간이 생산되는 방식 및 형성된 공간의 특징을 기준으로 '공간의 실천, 공간 재현, 재현 공간' 세가지 층위⁴⁵⁾로 구분했다. 이는 공간의 사회적 관점으로 활용되거나 변화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억장소도이러한 상황과 과정에 따라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고, 르페브르가 제시한 세 가지 층위를 바탕으로 분석 작업을 수행했다. 물론 사회적관계와 공간적 관계가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을 수 있고, 세월호 참사이후 기억장소의 생성된 층위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변수를 고려해 각각의 조건들을 연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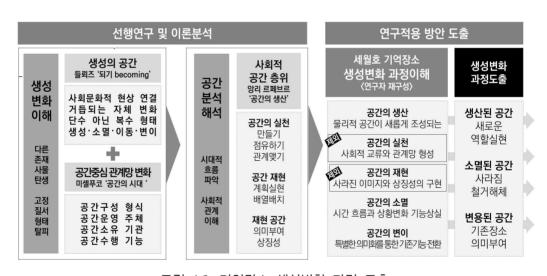


그림 16. 기억장소 생성변화 과정 도출

⁴⁵⁾ 공간적 실천은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적 활동을 통해 공간을 만들고 점유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공간 재현은 전문적 지식과 합리적 기술에 의해서 공간이 구체적 계획에 의해서 기획되는 것으로 도시계획가 및 행정기관에서 공간을 구획하고 배열하는 것이다. 재현 공간은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을 말하며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장소, 조상의 넋이 서려 있는 선산,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젊음의 거리 등을 예시가 될 수 있다(앙리 르페브르, 2011: p.87; 김준호, 2011; 진태원, 2012).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시대적 요구, 사회적 필요성 등에 따라 기억장소를 둘러싼 다양한 생성변화가 전개됐다. 물리적 공간이 새롭게 조성되는 생산, 일상적 행동과 사회관계망이 형성되는 실천, 사라진 이미지와 상징성이 구현되는 재현, 시간의 흐름과 정치적 양상에따라 필요성 상실되는 소멸, 기존 공간에 의미가 부여되어 기능변화를 동반하는 전환 등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기억장소는 생산, 실천, 재현, 소멸, 전환 등의 생성변화 과정을 거쳐 왔다. 이를 세월호 참사기억장소들과 연결하여 '생산된 공간', '소멸된 공간', '변용된 공간' 세 가지로 구분했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은 제외했다. 이렇게 구분된 사항에 따라서 각각의 특성을 적용하여 15개의 연구대상지를 유형화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 단계에서 제시했다.

2. 생산-소멸-변용 생성변화 특성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억장소를 대상으로 그 공간들이 만들어진 과정과 내재한 의미를 찾아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지역적 상황을 이해하면서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공간사회적 의미를 해석하여 도출하고자 했다. 그간 연구자는 참여자와 관찰자의 입장을 오가며 현장에 머물면서 가까운 일상적 상황을 지켜보기도 하고, 멀리서 사회문화적 맥락을 지켜보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했다. 이를 '생산된 공간', '소멸된 공간', '변용된 공간'이란 생성변화 과정에 적용하여 분석했다.

첫 번째, '생산된 공간'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두된 희생자에 대한 기억, 진상규명, 생명존중 등 가치 확산을 위하여 공간을 점유하거나 새롭게 조성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공간은 진도, 안산을 중심으로위치해 있으며 지역별 특성과 연계된 장소성 및 정체성이 부여되어있다. 두 번째, '소멸된 공간'은 참사 초기에 형성된 장소들로서 당시의 시급한 상황에 따라 사건 현장을 보존하거나, 투쟁과 저항 등의

목적으로 임시로 조성된 공간들이다. 이들은 사고 수습 장기화 및 오해, 불신 증가로 인한 부정적 의견이 불평불만의 호소로 전환되어 철거 혹은 지움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 이러한 기억장소는 안산, 서울, 진도에 분포하고 있다. 세 번째는 '변용된 공간'인데, 이는 평소에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을 보내던 공간이었지만, 세월호 참사이후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면서 기능 및 역할이 변화된 경우이다. 일상적 공간의 상징적 의미화 과정을 거쳐서 기억장소가 된 것이며, 슬픔과 아픔을 넘어서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들 공간은 안산, 목포, 제주에 새롭게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의 가치와 의미를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지속적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다.

	생산된 장소	소멸된 장소	변용된 장소
	장소보존 및 의미확장	사회적 갈등과 기능상실	상징적 의미화 및 대안적 역할이행
의미	"사건 발생 지점을 보존하거나 같은 자리에 기억의 의미를 담은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대표적 기억공간의생산방식이다(진예린, 2020)." p42	"사회문화적 가치에 따라 폐기되거나, 특별한 사건사고로 살아지거나, 세월 이 지나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진다(안정희, 2021)."p70	"일상적 장소에는 과거 기억이 생생하 게 남아있다. 그때 경험을 떠올리며 이 에 대한 의미화가 진행되면 특별한 가 치가 부여된 기억장소가 된다." p99
진단	집단기억 목적실현을 위한 특정 공간 점유	발생 당시 긴급성으로 사건현장 공간 조성	일상적 공간 상징적 의미화 ⇒ 장소생성
	지역별 특성과 연계된 세월호 장소성 부여	집단의 이해관계로 의도적 지움과 강제철거	죽은자가 과거에 간직했던 기억의 중요성
분석	목적, 의도, 동기, 효과 등 체계적 분석	공적 애도를 위한 임시적 추모공간 역할파악	개인의 경험추억 ⇒ 집단적 공감대 형성전환
	공간 조성 운영의 전문성 및 지속성 평가	'기억'과 '망각 ' 담론에 따른 차이발생 분석	주변 연계를 통한 장소성 강화,확산 성과분석

팽목항, 기억의 숲 (진도) 4.16기억저장소, 기억전시관 (안산) 4.16생명안전공원 (안산) 4.16민주시민교육원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억교실 (안산) 광화문 세월호 광장 (서울) 동거차도, 진도체육관 (진도) 고잔동 마을 학교 가는길 (안산) 화랑유원지 정원박람회 기억정원 (안산) 4.16생명기념관 (목포) 기억공간 Re-born, 제주기억관 (제주)

그림 17. 기억장소 생성변화 과정에 따른 특성

1) 생산된 장소 : 장소보존 및 의미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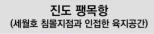
지금부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기능 및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 조성된 '생산된 공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산된 공간은 기억

장소가 되어 유가족들과 지역사회 구성원, 국민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곳에서의 그간의 과정을 분석 하고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기억장소가 특별한 것은 시간 의 흐름에 따른 변화, 지역사회가 직면한 현상 등을 반영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특정 장소의 위치와 그곳의 물질적 특징이 갖는 기억과 연관되면서 다른 곳과 차별화된 고유한 의미를 생산하는 특성이 있다. 사건 발생 지점을 보존하거나 같은 자리에 기 억의 의미를 담은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대표적인 기억공간의 생산방식이다(진예린, 2020). 세월호 참사 이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지, 희생된 이들의 가치와 의미 확산 등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공공공간의 형태로 생산됐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형성된 집단기 억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과 공간을 중심으로 장소성을 형 성했고, 공간의 생산 차원에서 다양한 장소를 만든 것이다. 공간의 생 산은 사회적 담론과 실천적 경험에 의해서 이뤄진다. 본 절에서는 세 월호 참사 기억장소가 물리적 공간 조성을 넘어 집단기억을 보존하거 나 재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공간의 생산 관점으로 개별 장소의 형성과정과 특성을 분석했다. 일반적인 재난의 경우는 사건 발생 현장을 즉각 보존하여 그 장소를 기억공간으로 활용하지만, 세 월호 참사는 재난현장이라는 특정 공간을 규정하기 어렵다46). 육지에 서 발생한 재난 사고가 아니라 해상사고이기 때문에 발생 지점을 특 정하기가 어렵고, 사건 발생 경위와 사후 대처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 문들이 규명되지 않아서 복잡한 상황이다.

진도, 안산, 목포 지역을 중심으로 맥락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세월호 참사 현장으로서의 장소성을 함축하고 있다(진예린, 2020). 재난발생의 흔적이 남아 있는 직접적인 장소는 아니지만, 지역별 특성을 부여받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장소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 진도는 사

⁴⁶⁾ 세월호 참사는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기억보다는 세월호가 침몰하는 마지막 장면에 대한 기억이 중요한 이미지로 남아있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현장의 모습은 기울어진 선체의 일부만이 수면 밖으로 나와 있는 장면이며, 이때 피해자들의 죽음이 발생한 공간인 세월호는 현장의 장면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다(진예린, 2020; p.46.).

고의 직접적인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참사 초기부터 계속 언론 을 통해 거론되어 세월호 참사의 상징적 공간으로 인지되고 있다. 특 히 진도 팽목항은 세월호 침몰 지점과 인접한 육지 공간이라 시신 수 습 및 수색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진도체육관은 유가족들이 머 물면서 생사 소식을 기다리며 사고 수습 과정을 지켜보던 장소이다. 이곳은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 전까지 유가족들의 기다림과 전 국민 의 애도의 마음을 담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했다. 그러한 차원에서 팽 목항 등대, 팽목기억관, 기억 조형물 등의 기억장소들이 생산되어 현 재까지 보존되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팽목항 인근 에는 오드리햅번 어린이재단과 국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세월호 기억의 숲이 있다. 팽목항과 체육관에 있는 시민들에게 공감과 응원 의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기억장소이다. 안산은 피해자 304명 가 운데 261명(학생과 교사들)의 단원고 구성원이 거주했던 공간이기 때 문에 중요한 장소가 됐다. 이곳은 직접적인 재난의 현장은 아니지만 떠난 이의 행복했던 추억이 서려 있는 장소이므로, 그리움과 기다림 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행정의 재 정적 지원으로 4.16기억전시관, 4.16생명안전공원, 4.16민주시민교육원 등 기억장소가 조성됐다. 목포는 처음에는 세월호 참사와 긴밀한 연 관성이 없던 지역이다. 하지만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어 목포신항만에 거치되면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됐다. 피해자 시신의 상당수가 침몰한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선체 공간의 현장 장소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고 수습 및 진상규명 등 해결하지 못한 이슈들 때문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알리는 가치 확산 사업은 아직까지 준비 중인 상황이다. 선체는 향후 4.16생명기념관이라는 기 억장소로 새롭게 탄생해 대중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유가족들의 기다림 (시신수습 및 수색) 전국민적 애도 마음 표현 (추모와 봉사)

검안소와 영안실 ⇒ 분향소 영정사진 하늘나라 우체동(유기족이픔, 방문객자자) 기다림의 등대와 기억의 벽(4,656타일) 팽목기억관 ⇒ 4.16기록관(진행중) 오드리 햅번 재단 기억의 숲 은행나무

4.16기억저장소/전시관 (기록으로 기억을 생산하는 공간)



민간인 후원과 유가족 참여 최초 공간 기록전문가+건축가 재능기부 사회참여

삼두빌라 상가동 1호관(저장소) - 종이관(5,000개) 적층 한 이미지월 - 기록물 매개 지역주민 소통공간 현대아트빌라 상가동 2호관(전시관) - 천장 304개 유품 및 편지 보관함

4면 전체 벽 활용한 기록 전시다양한 전시 및 문화프로그램 진행

화랑유원지 내 추모공원 (단원고 희생자 250명 안식처)



희생자 추억공간 ⇒ 삶과 죽음 공존 실현 사회적 담론형성을 통한 갈등해소 노력

기억과 질문의 공간 (봉안실, 전시관, 수장고, 도서관 등) 창조적 생산지원 공간 (다목적홀, 문화교육실, 공연장, 사무실) 지역사회 연계형 외부공간 (빛의 광장, 들꽃언덕, 기억의 숲)

그림 18. 생산된 장소 특성분석

2) 소멸된 장소 : 사회적 갈등과 기능상실

기억은 생성되고 나면 생로병사의 길을 걷다가 언젠가는 소멸한다 (안정희, 2021). 기억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들도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사라지기도 한다. 본 절에서는 앞서 설명한 '공간의 생산'에 이어서 특정 사건과 상황 변화로 인해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 '공간의 소멸'을 다루고자 한다. 공간이 생산되고 소멸하는 과정은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 형성된 사회적 담론과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 실천 경험 때문에 변화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공간과 장소들에 어떠한 변화과정이 있었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절의 내용이다. 아무리 특별한 공간과 장소라 해도 사회문화적 가치에 따라 폐기되거나, 특별한 사건·사고에 의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사라지기도 한다. 모든 물리적 공간에 장소성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부여된 장소성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특정한 장소에 대한 당사자의 깊이 있는 공간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배경과 함께 장소성이 생산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공간을 둘러싼 사회적 양상들이 변화되면, 당시의 장소성이 그대로 남아있지 못하고 변하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세월호 기억의 장소 또한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다. 세월호 참사는 정치·사회적으로 복잡한 이슈들이 많아서 내·외부적인 갈등 양상이 다양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단계적 변화양상에 따라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있었고, 이에 따라 기억의 장소도 생산과 소멸의 과정을 겪었다. 본 절에서는 소멸한 공간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했다. 기능과 역할이 다하여 자발적으로 소멸하는 것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소멸하는 것을 구분하여살펴봤다.

과거의 상황을 기억하는 작업에는 보존·재현하며 기념하자는 욕구 뿐만 아니라 그만 잊어버리자는 망각의 욕구가 수반된다(신혜란, 2016).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하지만, 기억 이 존재함에 따라 피해를 보는 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의도적으로 잊히는 경우들도 있다. 충분히 슬퍼할 수 있어야 무엇을 잃어버렸는 지 인지할 수 있고 잊을 수 있다(안정희, 2021). 우리는 죽음을 맞이 했을 때 상실의 아픔을 나누고 애도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한다. 특히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전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전쟁 이나 테러 등의 직접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는 그 장소가 바로 참사의 현장이 되고 기억해야 하는 장소가 된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는 선체 가 침몰한 바다가 참사의 현장이다. 동거차도에서 7.5km 떨어진 병풍 도 인근 앞바다의 물리적 현장이 기억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선체 인양으로 현장성이 약해졌고, 바다 한가운데라는 위치적 특수성 으로 사회적 공감을 얻기가 어려웠다. 진도·안산·목포·서울·제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기억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장소는 어느 지역과 무슨 장소를 중심으로 장소성이 드러나야 할 것인지 인정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

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진예린, 2020). 이는 기억장소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공간의 점유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유가족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지지하며 '잊지 말고 함께하자는 기억', 피로감과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망각'의 욕구 사이에서 담론 경쟁 양상이 대두됐다. 유가족들은 안산 합동분향소, 단원고 교실, 광화문 세월호 광장이 영원한 기억장소가 되어 잊지 않고 기억되기를 바랐지만, 정치 사회적으로 통렬히 잊고자 하는 망각의 욕망이 강하게 드러나 생산과 소멸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물론 소멸한 기억공간들이 모두 의도적 지움과 강제적 철거에 의해 서만 그런 결과를 맞이한 건 아니다. 시대적 상황 변화로 인해 자연 스럽게 전환된 기억공간들도 있다. 공적 추모를 위한 임시 메모리얼 공간들이 대표적이다. 이는 예기치 못한 사건의 기억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지하게 하고, 대중적 여론을 형성하여 시민의 관 심과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했다(손은신, 2021). 대체로 이러한 현상은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사건의 현장 주위에서 이뤄 진다(진예린, 2020). 팽목항에 방문한 추모객들이 방파제에 노란 리본 을 걸면서 기억공간이 형성됐다. 단원고 정문 앞과 교실에 추모 글을 적어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꽃, 편지, 과자 등을 내려놓으면서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 기억공간이 됐다. 애도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하는 것 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세월호 참사 초기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로 자연스럽게 기억공간이 만들었다. 물론 이들 공간은 현재 사라졌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소중한 기억의 장소이다. 동거차도 산마루에 있던 세월호 인양 관찰 공간은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했다가 철거한 공간이다. 돔하우 스 생활을 하며 1년 6개월 동안 24시간 침몰해역을 바라보면서 인양 과정을 기록했다. 동거차도 기억의 장소는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어 목포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철거되었고,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다.

정부합동분향소 (기억과 애도를 위한 사회적 추모공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와 유가족 운영 전국민적 애도 마음 표현 (추모와 봉사)

올림픽기념관 임시분향소

- `14.4.28까지 운영(18만명 조문객) * 과도한 방문 지역주민 불편함 호소
- 정부합동분향소(14.4.29운영)
- 유가족 대기실, 자원봉사 지원공간 엄마아빠공방,극단,합창단 활동 전개
- 합동영결식 이후 철거(4년간 73만명)

단원고 기억교실 (재학생 학습권 보장 ⇒ 존치 교실 이전)



희생자 일상 추억이 담긴 물리적 매체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 갈등⇒이전합의

단원고 2학년 10개 교실과 1개 교무실 - 책상, 필기용품, 메모지 등 일상 흔적

4.16기념관 조성을 통한 학교리모델링 - 교실 증축 및 사회적현장 유지 바람

안산교육지원청 부지 공간이전 및 재현 - 4.16 민주시민교육원 개소('21.4)

광화문 광장 기억전시공간 (농성장 ⇒ 추모문화공간 ⇒ 자진해체)



촛불항쟁 발원지, 추모의 일상성 반영 광장 재구조화에 따른 이전(서울시 갈등)

진상규명 촉구 단식농성 점유공간 - 아픔치유 및 사회문화적 소통공간

재난안전 가치전달 '기억과 빛' 조성 - 변화를 위한 시민들 광장행동 지원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한 전문가 직접해체 - 서울시의회 전시공간 임시 이전

그림 19. 소멸된 장소 특성분석

3) 변용된 장소 : 상징적 의미화와 대안적 역할이행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일상적 공간들에서 상징적 의미화47)가 진행 됐다. 그 가치와 의미에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금은 기억의 장 소가 만들어졌다. '학교가는 등굣길', '산책하던 마을길', 피크닉 장소인 유원지', '수학여행 목적지' 등 평범한 물리적 공 간에 가치와 실천이 부여되어 특별한 공간이 된 것이다. '장소'에 는 과거의 생생한 경험이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현재까지도 온 전하게 전달될 수 있다(양재혁, 2016). 이는 역사적 유물처럼 그대로 보존하고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경험을 회상하면서 의미를 떠 올리게 될 때 '기억의 장소'라는 가치가 담겨서 돌아오는 것이다. 사람들은 개인 또는 단체로, 남자 또는 여자로 공간을 향유하며 자기 삶을 살아간다. 장소기억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언젠가 특별한 상황에 직면하

⁴⁷⁾ 어떤 사물이나 일의 숨겨진 뜻이나 가치가 밝혀지게 됨(네이버 국어사전).

는 이들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한동 네에 살던 아이들 250명이 한순간에 사라지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갑자기 떠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뿐이었다. 기억의 장 소에서 기억은 산 자의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과거에 간직했던 기 억도 포함된다(양재혁, 2016). 기억은 본래 장소 지향적이거나 적어도 장소의 지원을 받아 견고해지는 특성이 있다(Casey, 1987). 희생된 학 생들이 머물던 공간과 가고 싶던 장소들에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더 해지면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됐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과거의 기억들이 아이들의 생생한 체험을 간직하면서 지금의 장소에 남아 존재하게 됐다. 본 절에서는 먼저 단원고 학생들이 다니 던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양상과 의미를 살펴 보았다. 이와 연계된 학교가는길, 마을산책길이 지금은 특별한 기억의 장소가 되었는데, 그 의미화 작업에 참여했던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파악했다. 안산시민들의 휴식처였던 화랑유원 지에 합동분향소가 들어서면서 잠시 분위기가 침체되었지만, 경기정 원문화박람회라는 메가이벤트가 개최되면서 또 다른 상징적 기억의 장소로 전환됐다. 마지막으로 기억공간 Re-born과 제주기억관을 통해 서 아이들이 타고 있던 세월호의 목적지이면서 대안적 삶을 상징하는 제주도의 기억장소로서의 문화적 특성을 분석했다. 기억의 장소로 '전환된 공간'들은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장소성을 강화하 고자 했다. 하나의 장소에 매이지 않고 기억장소를 중심으로 주변 지 역으로 범위를 확산시키고자 한 데서 다른 장소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20. 변용된 장소 특성분석

3. 기억장소 생성변화와 의미해석 관계 설정

세월호 참사 이후 조성된 기억장소는 생산, 소멸, 변용이라는 생성 및 변화과정을 3단계로 구분했다. 앞서 분석된 내용을 통해 세월호 참사 전개 양상 및 대상지 여건에 따라서 개별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생성변화 과정을 통해 기억장소를 바라보는 시선 을 구조화하여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3 장, 4장, 5장에서 서술될 의미해석 결과가 생성변화 단계와 관계성을 가진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소 생산의 측면에서는 기억장소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생성'과 재난현장이 존치되는 '유지'라는 특성이 나타났고, 장소 소멸적 측면으로 보면 사회적 갈등에 따른 '지움'과 누군가의 불편함에 따른 '망각'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장소 변용은 새로운 차원의 대안적기억이 등장이라는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도출된 특성 분석과 의미해석 결과를 활용하여 기억장소의 사

회적 재난 상황에서의 중요한 의미를 도출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치유회복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했다.

3장 '물리적·비물리적 장소 생산'에서 영구적으로 만들어진 물리적 공간은 재난 현장을 보존하고 유지했다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비물리적 장소 구현은 특별한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기억장소이다. 아픔에 공감하는 이들이 감정을 표출하며, 사회적 성찰의계기를 마련 했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는 기억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물리적 장소의 경우는 실체가 있으므로 지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물리적 장소는 특별한 목적 및 상황에 따라 공간이 가변적이라는 내용이 전개된다.

4장 '망각과 외면으로 인한 장소 소멸'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보다는 죽음의 분위기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오해와 불편함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희생자 애도에는 공감하지만, 생활 공간에 추모와 애도가 지속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는 가치대립과 이해충돌이 발생했고 삶과 죽음이 공존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불가피한 변화를 맞이하는 것을 서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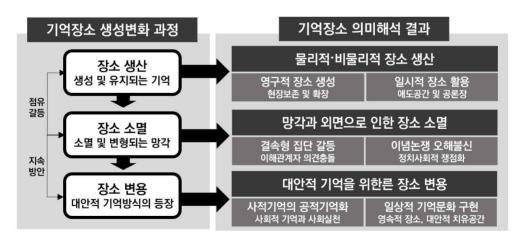


그림 21. 기억장소 생성변화와 의미해석 관계 설정

이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기억이라는 의미보다는 죽음의 공간을 혐오 시설로 인식하는 부정적 사고가 두드러지면서 나타난 상황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애도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대안적 기억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5장은 '대안적 기억 활동에 따른 장소의 변용'이라는 다른 차원으로 제시된 특별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발견한 새로운 지향점이다.

제3장 물리적 · 비물리적 장소 생산

본 장은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는 특별한 역할 수행을 위해 새롭게 생성되거나, 기존 재난현장이 지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이는 장소보존과 의미확장을 위해 '생산된 기억장소'라고 할 수 있으며 물리적 ·비물리적 장소 특성이 나타났다. 공간활용적 측면으로는 '영구적 공간형태로 조성된 물리적 장소'와 '일시적 공간 재현이 실현된 비물리적 장소'로 구분된다.

먼저 '물리적 장소로 구현된 영구적 공간'은 재난현장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장소를 만들거나 재난현장을 유지하는 실체가 있는 공간조성 방식이다. 기억장소를 통해서 살아남은 이들이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과정이며, 현장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미래의 변화를 만드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봉인된 과거가 아닌 살아 있는 기억이되고, 내재한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기억장소는 전시관·기념관·숲과 정원·조각품 등 영구적 장소로 생성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 기억장소를 선정하여 상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했다. 기존의 재난현장이 보존·유지되던 곳은 팽목항, 동거차도, 세월호 침몰해역이다. 재난현장이 확장되어 새로운 장소가 생성된 곳은 목포신항, 제주기억관, 4.16민주시민교육원이다.

다음으로 다루고자 하는 '비물리적 장소로 재현된 일시적 공간 활 용'은 헌화분향・집회시위・추모의레・문화축제・교류행사 등 형태 로 구현되는 장소 활용 방식이다. 안산에서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던 시민들은 분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단원고 교실에 선물을 두었 고. 전시관을 직접 만들어 대외적 공감대 형성 활동을 했다.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유가족들 곁에 힘 이 되어줄 수 있게 머물러 주는 행동도 이에 해당한다. 일시적 기억 활동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표출하면서 마음속 응어리진 감정을 해 소하는 데 이바지했고, 사회적으로는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변화 를 만드는 기반이 됐다. 단원고 정문에서 처음 시작된 촛불과 안산시 민들이 함께 했던 촛불문화제는 일시적 애도의 공감장으로서 의미가 있다. 화랑유원지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대중적 문화행사를 기반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기억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시도한 사례이다. 기 억장소에서 이뤄진 활동이 기억을 드러내서 전달하고 의미를 확산하 는 역할을 한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도출된 구체적 실행방안이 실제 대상지에서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어떤 의미가 형성되 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22. 물리적·비물리적 장소 생산

제1절 장소기억을 활용한 영구적 장소생성

1. 재난현장 보존과 유지 : 팽목항, 침몰해역, 동거차도

물리적으로 조성된 장소에 과거 사건의 정보가 담겨 있으면, 그곳을 방문하고 머무는 이들에게 경험적 의미가 전달된다. 과거의 기억을 승화시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의미 있는 장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는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양한 차원의 기억 확산과정이 반복되면서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재난 참사현장을 보존하고 유지하며 현재와 미래까지 온전하게 전달되고자 했다. 세월호참사 재난현장은 사고 수습 종료 이후 모든 이들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잊힐 수 있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의 활동으로 재난 현장정체성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도출되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먼저 팽목항, 동거차도, 세월호 선체 침몰해역을 살펴보며 아픔의 재난현장이 보존·유지하면서 영구적 장소가 된 상황을 파악했다.

재난 참사의 현장 진도 팽목항

팽목항은 세월호 참사 이후 등장한 기억장소 가운데 가장 먼저 알려졌고 많은 이들이 인지하고 있는 곳이다. 2014년 4월 16일 희생자가족들은 사고 소식을 접하고 가장 먼저 이곳을 찾았다.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침몰한 선체에서 살아돌아온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사고 수습이 진행되면서 팽목항은 수면 위로 떠오른 시신을 맞이하는 장소가 됐다. 당시 팽목항은 304명의 죽음을 알리는 끔찍한 장소였다. 침몰한 선체에서 발견된 이들의이름을 매일 발표했고, 언론 보도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면서 당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온 이들을 맞이한 가

족은 하나둘씩 이곳을 떠났고,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만이 남아 무사 귀환을 염원했다. 팽목항은 가족과 친구의 죽음을 직면하며 애타게 이름을 부르짖던 아픔의 장소이고, 바다 밑에 가라앉은 선체 안 어딘가에 살아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품은 기도의 장소이다.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어요. 울고 소리 지르다 기절하고 아비 규환이었어요. 가끔 아이 생각나면 그곳으로 내려가요. 팽목항에 가면 붉은 등대가 있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서 배 안에서 나온 우리 아이를 직접 보고 안았으니까. 그 차디찬 몸을 내가 안았던 기억이 아직 잊히지 않아요(유가족 인터뷰)."

당시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팽목항에서 좌절, 무력감, 분노의 감정을 가슴 깊이 새겼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과 재난현장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수습을 총괄해야 하는 국가의 미숙한 대응은 피해당사자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었다. 아수라장 같은 참사 수습 초기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⁴⁸⁾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

"터미널 앞쪽에 공터에는 많은 사람이 혼재되어 있었다. 실종자가족, 언론사 기자, 경찰, 정부 관계자가 뒤섞여서 충돌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울면서 경찰, 정부 관계자를 찾고 있었다. 기자들은 가족들과 경찰을 찾아다녔다. 경찰들은 가족들과 기자를 피해 다녔다.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이성적인 움직임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은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다. 살면서 이토록 많은 인원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충격이었다. 아직도 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방송기자연합회, 2015)." 49)

참사 이후 210일 동안 선체 및 해역 일대를 대상으로 실종자를 수

⁴⁸⁾ 팽목항을 취재하던 기자들은 외상적 사건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배려 교육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취재 경쟁을 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재난방송의 민낯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 고, 이후 일부 언론인들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⁴⁹⁾ 언론인들의 세월호 참사 취재 반성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보도 저널리즘의 침몰' 연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230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당시 팽목항의 상황을 취재한 기자가 받은 인상을 인터뷰한 내용이 담겼다(방송기자연합회, 2015).

중수색500했고, 9개월 동안 작업을 이어나가다 295번째 시신 인양 이후 작업을 중단했다. 팽목항에서 형성된 재난현장의 참사 초기 기억은 여기까지다. 배가 침몰한 이후 희생자들을 맞이했던 절규의 순간들과 마지막까지 수색작업을 하면서 미수습자를 찾고자 했던 노력의과정이 재난현장으로의 장소기억이 형성 됐다. 이 과정에서 팽목항에는 '시신을 수습하는 접안시설', '희생자 얼굴을 확인하던 항구', '희생자를 안치하던 간이영안실' 등의 장소들이 만들어졌지만, 대부분 사고 수습지원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임시로 만든 시설인 관계로인원 철수 이후 전부 사라졌다.

시신 수습 과정이 끝나면서 정부에서는 참사 당시의 흔적들을 정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이 팽목항에 남아있었다.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팽목항에 기억장소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고, 임시 검안소와 간이 영안실 자리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팽목기억관 분향소를 설치했다. 머무는 공간이 사라지게 되면 구조작업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영원히 잊힐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유가족들이 직접 기억장소를 만든 것이다. 미수습된 이들과 그 친구들의 영정사진을 함께 놓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렇게 남겨진 팽목기억관은 여전히 피해자들과 시민들에게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고,이 장소가 아물지 않은 상처의 현장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했다.

"우리 부모들끼리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애들 시신 다 찾으면 우리 한꺼번에 안산으로 올라가자고 했어요. 혹시 아이를 먼저 수습하더라도 안산 올라갔다가 꼭 다시 와서 모든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같이 있자는 이야기를 자주 했죠. 진도군에서는 팽목항에 우리가 있던 자리를 빨리 정리하고 싶어 했어요.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지만 수색작업을 끝내고자 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남겨서라

⁵⁰⁾ 해경·해군·소방대원·민간잠수사 중심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선체 수색과 구조작 업을 했고, 수습과정에서 민간잠수사 2명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9명의 실종자를 남긴 채 수색 작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도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분향소를 만들게 된 거예요(우재 아빠 인터뷰)." 51)



그림 23. 팽목항 희생자 수습 접안시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18962



그림 24. 팽목항 간이 영안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112&aid=0002562362



그림 25. 분향소 외부공간 추모조형물 https://www.yna.co.kr/view/AKR20180411038700054?input=1195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2635



그림 26. 분향소 내 희생자 영정사진

팽목항의 상징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팽목기억관은 이렇게 탄생 했다. 희생된 아이들의 사진이 있어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 게 하고, 추모를 위해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기억캠프, 순례길, 문 화예술마당52) 등의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의 장소 성 및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경각 심을 심어주고, 죽음의 의미를 대내 외적으로 알리는 상징적 공간

^{51) 4.16}기억저장소 (2020). 그날을 말하다 : 우재 아빠 고영환. 한울엠플러스. 4.16구술증언록 단원 고 2학년 8반 제4권, p.132.

^{52) 2021.10.30.(}토)~31(일) 팽목 기억캠프 순례, 예술마당 행사가 진행됐다.

역할을 하고 있다.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의 현장이자,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해역과 가장 가까운 곳이고, 당시에 생존자 아이들을 구조했고, 부모들이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으면서 아이들을 기다리던 장소이다. 세월호 참사의 현장에 무엇인가를 남겨서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우재 아빠 인터뷰)." 53)

지금의 팽목항이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경험과 활동의 기억 때문이다. 이곳을 상징하는 사진과 언론 보도에 등장하는 붉은 등대, 바람에 날리는 노란 리본은 당시 이곳을 방문했던 시민들이 직접 만든 장소이다. 참사 초기에는 희생자 시신을 이동하는 가슴 아픈 현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시민들은 추모와 애도의마음을 전하는 노란 리본을 걸면서 상징적 기억공간이 됐다. 그 이후세월호 참사와 팽목항을 떠올리면 먼저 생각나는 장소가 됐다.

또 다른 기억장소로 알려진 곳 참사 100일이 되는 날 만들어진 하늘나라 우체통54)이다. 우체통을 통해서 유가족은 슬픔과 아픔을 담은 편지를, 방문객은 아픔에 동참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며 기도하고 떠나간 이들을 기억하는 역할을 했다. 이 작은 기억장소는 상처와 아픔을 가진 유가족,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가진 시민들이 상호 소통하는 기반이 되었고, 과거의기억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억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간절한 마음은 언젠가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될 것으로 믿는다. 참사 100일을 맞아 가족을 잃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은 국민들은 애도의 마음을 엽서에 담아 우체통에 넣어 주었다(최영경, 2014)."

^{53) 4.16}기억저장소 (2020). 그날을 말하다 : 우재 아빠 고영환. 한울엠플러스. 4.16구술증언록 단원 고 2학년 8번 제4권, p.132.

⁵⁴⁾ 높이 160cm 우체통은 노아의 방주로 형태로 새생명과 새나라를 향한 열망을 나타냈다. 기억 (ㄱ)과 눈물(ㄴ)을 집 모양으로 형상화했다. 두 개의 밧줄은 떠난 자와 남은 자의 소통의 끈으로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짐했다. 우체통 옆면에는 세월호 침몰 희생자인 단원고 양온유 학생이 남긴 글 '슬퍼하지 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문구도 새겨져 있다.

기억의벽55)은 전국 4,500여 명의 시민과 작가 500명의 그림이 그려진 4,656장의 타일을 170m 방파제에 부착하여 만든 기억장소이다. 이는 기다림의 등대가 있는 방파제에 설치 되었다. 기억의 벽도 자발적시민 참여로 만들어 졌다. 작업에 참여한 이들은 참사 이후 끊어진 추모객 행렬을 아쉬워하며, 다시 많은 이들이 방문하게 하고자 예술작품으로 기억장소를 조성했다. 현장의 가슴 아픈 기억을 희망으로 승화시켜 방문객들이 희생된 이들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정부는 선체 인양 이후 분향소를 정리하겠다고 했던 진도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18년 9월 팽목항에 있는 기억장소를 철거하기로 했다. 이는 진도 군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대규모 개발사업56)을 시행하기 위해서이다. 이로 인해 그간의 재난현장 기억을 지켜온 팽목항의 장소성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팽목기억관 재조성57)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및 진도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난 참사 이후 현장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팽목항 기억장소는 피해당사자의 적극적 의지와 시민들의 지원 덕분에 현장의 기억을 잘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위기의순간이 도래했고, 이를 현명하게 해쳐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듯 재난현장의 살아 있는 기억을 유지하며 역사적 사실로 오래남기는 것은 사회가 직면한 숙제이다.

⁵⁵⁾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엿새 앞둔 이날, '세월호를 기억하려는 어린이책 작가 모임'이 진행한 기억의벽 2차 설치작업이 팽목항 방파제에서 시작됐다. 결코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정말로 그랬듯이 멍하니 지켜봐서는 안 됐던 일을, 이제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믿음에서 기억의벽이 만들어진다.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추억하겠다는 전국 수천 명이 한뼘 타일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오미환, 2015).

⁵⁶⁾ 진도군은 팽목항을 진도항으로 부르는데, 진도항 2단계 사업을 통해 398억원을 들여 진도항에 지상 2층, 건축면적 1,100㎡ 규모의 터미널을 비롯해 부두의 편의시설과 접안시설을 완공하는 공사를 시행하려 한다.

⁵⁷⁾ 희생자 기림비 건립, 소공연장, 팽목 4.16공원, 희생자 인지하는 표지석 설치, 지상 1층 66~99 ㎡ 크기 4.16기록관을 조성하여 역사적 현장에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림 27. 기억의 벽 그림 타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4101927939268



그림 28. 하늘우체통과 기다림 등대 앞 공연 4.16합창단 박미리 지휘자 페이스북('21.10.31)



그림 29. 진도 국제항(팽목항) 조감도 http://www.cn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80



그림 30. 팽목기억공간 조감도 팽목 기억공간 조성 대책위 제공

지금까지 팽목항의 사례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현장의 보존과 유지 과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장소성과 정체성을 보존하기위해서 일시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영구적 장소로 전환하려는 노력이었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재난현장을 대했던 태도와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⁸⁾.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 및 행정기관의 행정절차 등 정치 사회적 이유로 재난현장을 지키기는 쉽지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재난현장으로서의 팽목항에서는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김교빈(2015)은 세월호 참사는

^{58) 19}명의 유치원생을 포함하여 2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는 국민을 가슴 아 프게 한 사건이지만, 사고의 무게에 비해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공간은 초라하다. 참사현장 옆 은 아직까지 공터로 남아 있고 야자수 마을카페가 조성되어 참사의 장소기억 흔적은 사라졌 다. 추모비는 현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직접 설립한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 안전교육체험 관에 세워져 있고 일반인들의 접근은 어렵다고 한다.

희생당한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했다. 아픔의 순 간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억한다는 의미가 지속해서 전달되 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선체 침몰해역

앞서 살펴본 팽목항은 세월호 참사의 현장기억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곳은 사고를 수습하던 공간이지 재난이 발생한 장소는 아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선체가 침몰하던 장면을 지켜봤었던 진도군 앞바다⁵⁹⁾가 재난 참사의 직접적 현장이다. 바다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특수성과 이미 선체가 인양되어 목포신항으로옮겨졌기 때문에 침몰현장으로의 장소성이 약해졌지만, 상징적 기억장소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곳이다. 비록 박물관, 기념관 등의 건물 형태로 흔적을 보존하고 기억이 저장된 기억장소(안정희, 2021)는아니지만, 넓게 펼쳐진 바다의 경관과 침몰현장은 시공간을 초월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이 배 밖으로만 나왔으면 지금 이곳에서 누군가 손을 잡아 주었을 텐데,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떠다니고 있으면 구조를 받았을 텐데. 여기 바닷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것만 같아서 이곳에 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요. 그래도 여기오면 아이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는 것 같아서 계속 생각이 나요. 이 바다 위에 올 때마다 우리 아이 이름을 크게 부르게 되네요. 금방이라도 누가 답할 것 같은데, 바다는 너무 고용하네요(유가족 인터뷰)."

2020년 6주기부터 참사해역에서는 선상 추모식이 열렸다. 배를 타고 가야 하므로 많은 인원은 참여할 수 없고, 일부 유가족과 관계자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노란색 부표가 떠 있는 그곳이 세월호 선체가 침몰한 곳⁶⁰⁾이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흰 국화꽃을 바다에 헌

⁵⁹⁾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인근 해상

화하는 추모의례를 진행했다. 기억장소는 과거의 기억이 물질적으로 재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징적 공간은 존재하는 것으로도 의미를 가진다. 특별한 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행사를 진행하여 그 가치와 의미를 잘 담아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다. 이곳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내재 된의미를 잘 보존하고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에게는 희생자를데려간 야속한 공간이며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장소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는 역사적 현장이 될 수 있다.



그림 31. 세월호 침몰해역 노란색 부표 https://www.newsl.kr/photos/view/?4148592



그림 32. 동거차도 진실호 직접촬영⁽¹⁾

침몰 지점과 가까운 섬 동거차도

침몰해역 인근에는 동거차도⁶²⁾라는 섬이 있다.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있는 오지이지만, 해상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선박들이 많이 거쳐 가는 곳이라고 한다. 세월호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거친 물살을 이겨내지 못하고 침몰했는데, 이곳은 물결이 거칠어 거친 곳의섬이란 뜻으로 거차도⁶³⁾라고 부르기도 한다. 동거차도는 세월호 인양

⁶⁰⁾ 목포 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해경 함정을 타고 출발하면 3시간 정도 소요된다.

^{61)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진실호는 유가족들이 참사해역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배이다. 평소에는 동거차도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다.

⁶²⁾ 동거차도는 87가구에 182명이 살고 있으며 넓이 2.23km에 해안선 길이는 12km에 이른다. 생활권인 목포와는 68km 떨어진 지점에 자리 잡고 있으며 파도가 험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백제시대에 제주도를 왕래하면서 이 섬을 경유하게 되어 거차도라 했다고 한다(이재언, 2014)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 섬이었다. 당시 동거차도는 그냥 인근에 있는 섬 중 하나였을 뿐, 기억장소라고 하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다. 어부들이 침몰 당시 희생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선체가 가라앉는 모습을 가장 먼저 지켜보았고, 당시의 긴급한 상황에 구조를 도와주고자 적극적으로 달려왔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알게 된 유가족들은 동거차도 주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그때 배가 넘어져서 떠오르더라고, 그 배를 보고 우리들이 먼저 갔죠. 현장으로. 우리 동네 있는 모든 배 12척 정도가 급하게 갔어.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조도면 전체 배들이 다 왔더라고(동거차도 주민인터뷰)." 64)

유가족들은 동거차도에 처음 방문했을 때 큰 충격에 받았다. 섬이 침몰 지점과 너무 가까이 있었고, 희생된 이들이 배 밖으로 나왔다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당시 저희 입장에서는 인양 과정을 믿고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성 아버님이 동거차도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동거차도를 알게 되었고 그곳을 직접 가봤죠. 막상 방문하니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니까요(동수 아빠 인터뷰)." 65)

이곳을 처음 알려준 지성이 가족에게 동거차도는 특별한 장소이다. 단원고 2학년 1반 지성이는 다른 친구들처럼 배 안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참사 15일째가 되던 날 어부가 미역 닻줄을 교체하던 중에 동 거차도에서 발견됐다. 이 섬과의 관계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가슴 아픈 사건이 계기가 되어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졌고, 서로의 마음을

⁶³⁾ 세월호 침몰해역이 있는 병풍도와 동거차도는 7.5km 정도 떨어져 있다.

^{64) 4.16}기억저장소 (2020). 그날을 말하다 : 동거차도 주민 I . 한울엠플러스. 4.16구술증언록 동거 차도 주민 제1권, p.170.

^{65) 4.16}기억저장소 (2020). 그날을 말하다 : 동수 아빠 정성욱. 한울엠플러스. 4.16구술증언록 단원 고 2학년 7반 제8권, p.143.

헤아리면서 떠난 이의 빈자리를 새로운 관계로 채우게 됐다.

"지성이 장례를 치르고 동거차도로 갔어요.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었고, 그때 상황을 듣고 싶었어요. 애가 그대로 흘러가 버렸으면 못 찾을 거지만 돌아와 준 거에 감사했죠. 그리고 그 어부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만나서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이쁜 아이였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흡족해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인연이 되었으니 지성이를 양딸로 삼아야 하겠다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동거차도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되었죠(지성 엄마 인터뷰)." 66)

유가족들은 동거차도에서 세월호가 인양되는 과정을 지켜보기로 하고 오랜 기간 머물렀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장소성이 부여되어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그렇게 이곳은 또 다른 기억장소가 됐다. 침몰현장이 잘 내려다보이는 산마루에 작은 기억장소를 만들고, 24시간 망원렌즈로 지켜보기 시작했다. 이는 재난현장의 보존과 유지라는 특별한 목적 실현을 위하여 만들어진 공간이다. 산 정상은 마을에서도 30분이나 걸리는 곳이며, 대나무와 동백나무가 가득한 숲길을 지나야 닿을 수 있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지켜보면서 주민들은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산 정상에 머무는 유가족들에게 든든하게 먹어야 버틸 수 있다며 생선과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쉬어 갈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어주기도 했다.

"내가 힘들어도 나는 조금만 더 참고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자식 잃은 저 부모들 마음만큼 아프진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묵묵히 오면 은 온 거고, 가면은 간 거고. 어떻게 보면 산에 올라갈 때 베이스캠프 역할을 했어요(동거차도 주민인터뷰)." 67)

^{66) 4.16}기억저장소 (2020). 그날을 말하다 : 지성 엄마 안명미. 한울엠플러스. 4.16구술증언록 단원 고 2학년 1반 제4권, p.69.

^{67) 4.16}기억저장소 (2020). 그날을 말하다 : 동거차도 주민Ⅱ. 한울엠플러스. 4.16구술증언록 동거 차도 주민 제2권, p.23.



그림 33. 동거차도 산마루 관찰공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144976



그림 34. 남겨진 돌무더기 노란 리본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22



그림 35. 돔하우스 기억장소 Yongman Kim 페이스북



그림 36. 돔형 베이스캠프 제작과정 http://www.pck-goo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

유가족들이 머무는 유일한 공간은 강한 바람을 견디고자 격자 끈으로 묶은 비닐하우스가 전부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파손 위험이 커졌고, 세겹줄교회 연합회 회장 정진훈 목사와 서울하우징 김영만 대표의 도움으로 돔 하우스 두 개를 조성하게 됐다. 이것이 동거차도 산마루에 만들어진 기억의 장소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닐 천막과 돔하우스는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을 생각하던 그리움의 장소이면서, 세월호 선체가 온전하게 인양되기를 염원하면서 하염없이 침몰해역을바라보던 기다림의 장소이다. 그리고 세월호 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밖으로 나왔으면, 이곳 동거차도까지 헤엄쳐 올 수도 있을 것 같은아쉬움이 남겨진 장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동거차도 산 정상에 만들어진 돔 하우스는 기억장소 역할을 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게됐다. 동거차도 야산 산마루에서 1년 6개월째 감시 활동을 하던 유가족들도 마지막 해저 수색 과정68)까지 지켜본 이후 목포로 자리를 옮

졌다. 산마루에 있던 텐트를 철거하고 대신 그 자리에 돌무더기를 쌓아 노란 리본을 만들고, 그곳이 힘들었던 기다림의 장소였다는 흔적을 남겼다(박래군, 2020).

아픔의 현장으로 침몰해역과 동거차도는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 어느 장소보다 직접적인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담겨 있었다. 접근하기 어려워 당시 장소기억이 훼손되거나, 잊히기 위한 시도는 없었다. 하지만, 인지도가 낮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이들과 동거차도에 사는 주민들만이 기억장소라고 인지하고 있다. 팽목항과 더불어 재난 참사 현장성을 지닌 곳이지만,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얻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유가족들도 1년 한 번 정도 이곳을 방문해서 기억을 유지하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속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장의 훼손 없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좋지만, 당시의 경험을 담은 새로운 물리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 팽목항, 단원고 인근, 광화문광장, 목포신항, 제주 등을 거점으로 기억장소들이 정착되고 나면 침몰해역과 동거차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2. 장소 발견과 기억의 확장 : 목포신항, 제주기억관, 4.16민주시민교육원

세월호 참사 이후 대두된 대표적 기억장소는 팽목항, 진도체육관, 정부합동분향소, 단원고, 광화문광장이다. 대부분 기억장소는 참사가 발생한 재난현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억이 확장 된 측면에서 살펴보며 새로운 유형의 기억장소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는 사회적 조건 및 상황에 따라 생성 및 변화된 것이다. '장소 발견 과 기억의 확장'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목포신항, 제주기억관, 4.16

^{68) 2017}년 3월 7일 세월호 선체 인양을 최종 결정했다. 선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본인양 작업은 2017년 3월 22일 시작되어, 3월 23일 수면 위로 떠올라 녹슨 선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후 3월 31일 오전 7시 진도에서 반잠수식 선박에 실린 채 목포신항으로 출발하며, 동거차도 침몰해역을 떠나게 됐다.

민주시민교육원을 살펴보았다. 이는 이해관계자 태도 변화 및 참사관련 이슈 전개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이후 침몰해역에서 목포신항으로 이동하면서 참사현장이 달라졌고,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망각의 요구로 인해 사라진 단원고 기억 교실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다른곳에 재현됐다. 그리고 희생자들이 닿을 수 없었던 제주도에는 기억관이 조성되어 기억장소의 지역적 확장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렇게 현장의 상황 및 피해자들의 활동 변화로 형성된 곳은 또 다른 차원의 정체성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장된기억장소'라고 했다. 이곳은 당시 재난 경험을 확대 생산할 수 있는의미를 담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시민들의 사회적 애도를 지속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기억장소는 목포신항, 4.16 민주시민교육원, 제주기억관이다. 이를 대상으로 기억의 확장적 차원에서 영구적 공간형태로 조성된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을 실현하기위해 어떤 활동이 전개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상실의 흔적이 재생산된 기억장소 :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세월호 선체는 2017년 3월 31일 오전 7시 인양되어 물 위로 떠올랐고 그 이후 목포신항으로 옮겨졌다. 304명의 죽음이 발생한 그곳은 끔찍하고 가슴 아픈 기억을 담고 있는 장소이다. 세월호 선체는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사회적 증거물'이기도 하다. 세월호 선체가 진도를 떠나 목포로 이동하면서 재난현장의 공간적 이동이 일어났고, 세월호 참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대두되는 진도 팽목항은 과거의 흔적이 되었다. 이로 인해 대중적 관심은 선체가 거치된 목포로 이동했다. 진예린(2020)은 인양된 선체는 기억을 연상시키는 상징적인 기억물질이면서, 사고 당시의 기록이 내재된 증거물이라고 했다. 거대한 선체를 보기 위해 추모객들이 이곳을찾아 애도의 마음을 표현했고, 유가족들은 인양된 선체 곳곳을 살피

며 미수습된 시신을 찾고 진상규명 증거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다.

"처음 인양이 되었을 때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있어서 저 배로 무 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도 조사는 해봐야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지, 어딘가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부 증거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매우 아쉽 고 허탈했어요(예은 아빠 인터뷰)." 69)

김훈(2019)은 세월호 선체를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질문과 아픈 회한을 느낀다고 했다. 비록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세월호선체의 모습은 역사적 교훈을 전하고 있다. 탐욕과 부패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사라지는 사회적 참사는 발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재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세월호 선체는 닿을 수 있는 장소에서 직접 보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간접적으로만 접했던 팽목항의 상황을 상기할 수 있게 됐다. 목포신항에 세월호 선체가 거치되면서 새로운 기억장소가 되었고, 재난현장의 기억도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최근 새로운 기억장소가 된 목포신항은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간에는 임시로 거치된 상황이었으나, 영구거치 장소로 결정되면서 세월호 침몰에서부터 인양까지 모든 시간을 담고 있는 선체는 참사의 진실과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세월호 생명기억관^{70)'}으로 목포신항만 배후부지에 재탄생하게 됐다. 이는 목포시민들의 적극적 의지 덕분에 영구적 기억장소로 남게 됐다. 비록 재난이 직접 발생한사건 현장은 아니지만, 목포신항은 새로운 차원의 장소기억 확장과사회적 공감을 만들어 냈다. 특히 참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물리적 실체를 활용한 영구적 기억장소의 탄생은 향후 흔적이 남아있는 참사의현장으로 큰 의미를 전하게 될 것이다.

^{69) 4.16}기억저장소 (2020). 그날을 말하다 : 예은 아빠 유경근. 한울엠플러스. 4.16구술증언록 단원 고 2학년 3반 제12권, p.274.

^{70) &}quot;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1522억을 투입해 목포신항만 배후부지 일 원에 약 3만4000㎡ 규모로 조성된다. 세월호 참사 기억,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난예방교육을 담당하도록 선체 원형을 보존한 복합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이형주, 2020)."



그림 37. 세월호 생명기억관 조성부지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1207



그림 38. 세월호 생명기억관 조감도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그림 39. 인양된 세월호 선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백서



그림 40. 세월호 선체 내부 탐방 4.16안산시민연대

따뜻하게 아이들을 품은 기억장소 : 제주기억관

제주도는 인천에서 출발한 세월호의 종착지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건 발생으로 닿지 못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재난현장과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희생자들이 닿고자 한 염원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주도는 희망과 바람을 마음을 담은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장소가 됐다. 기억의 확장을 통해 이와 같은 특징이 부여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다섯 번째 봄, 첫 번째 수학여행기' 프로그램에서 생존 학생이 친구들을 기억하며 조금 늦게 떠난 제주도 여정에 잘 담겨 있다. 떠난 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행동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짐이 제주도라는 상징적 기억장소에 형성된 것이다. 생존 학생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

⁷¹⁾ KBS1 라디오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2019년 4월 16일 방송된 프로그램이다. 세월호 참 사 생존학생 장애진 양이 5년 전 친구들과 끝내 가지 못했던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이 야기를 담았다(권길여, 2019).

자 했지만, 이러한 마음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기억관⁷²⁾도 이러한 마음이 반영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건물 3동 가운데 2개의 동은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숙소 기능 의 평화쉼터를 조성했고, 나머지 1동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공간 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2019년 11월 6일 개관했는데 인근에 위치 한 제주4.3평화공원과 연계하여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이들이 잠시 머 물 수 있는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 역할을 한다. 실내 공간은 편백나무를 활용한 벽면으로 그 향기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차를 마시는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희생된 아이들의 생일을 기억하는 특별공간을 중심으로 4.16희망목공소와 4.16공방에서 직접 제작한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전시·판매되고 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기억할 수 있는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세월호 제주기억관은 제주도 전 지역에 있는 카페, 식당, 서점, 게스트하우스 등 200개 공간과 협업하여 기억공간 확장을 위한 노란 리본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리본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41. 제주기억관 개관식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그림 42. 제주기억관 내부 전시공간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6112205015#c2b

⁷²⁾ 봉개동 275-3번지 2개 숙소 건물과 함께 만들어졌는데, 2013년에 신동훈 외 2명이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평화쉼터 조성을 위해서 구매했다고 한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 생했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공감과 염원의 마음을 담아내고자 기억관을 만들게 된 것이다.

소멸한 장소기억의 재현 : 4.16민주시민교육원

희생된 이들이 머물던 기억장소가 사라지고 새롭게 재현된 4.16민 주시민교육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250명 희생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던 학교는 기억 현장으로 큰 의미가 있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재학생 학부모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새로운 장소가 만들어졌어도 아이들이 흔적이 그대로 서려있는 장소기억이 사라지면서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받았다.

기억장소를 이전하고 새로운 장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큰 사건들이 있었다. 아이들의 물건을 새로운 장소에 재현하고자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한 일이다. 당시 수립한 협약에 따르면 이전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은 학교 측과 유가족 상호 간의 조율을 통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개학 시기 등의 이유로 이삿짐센터와 공사업체를 동원해서 강제정리를 하려고 했다. 이로 인해 큰 충돌이 있었고 상호 간의 오해와 불신이 깊어졌다. 73). 유가족 측은 세월호 참사이후 단원고에 있던 모든 것들이 역사의 현장이면서 참사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전문가 및 예술가들의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방식으로이송하도록 했다. 자원봉사에 나선 예술인 100명의 도움으로 2016년 8월 20일 희생 교사와 학생들의 유품74) 등을 1.3km 떨어진 안산교육지원청 별관까지 도보 행렬을 이루며 이송할 수 있었다.

이재정 교육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단원고 교실을 똑같이 재현한 추모공간과 더불어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공간을 조성하겠다⁷⁵⁾ 했지

⁷³⁾ 단원고 희생 학생들의 교실 존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협약 행사를 앞둔 2016년 5월 5일 학교 측에서는 이삿짐센터와 공사업체를 동원해 사실상의 강제철거를 시도해 물의를 빚었다.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대학원 교수는 "역사의 현장이자 참사의 기록물 이전을 어떻게 이삿짐센터에게 맡길 수 있느냐. 사회적 합의 일정에 맞춰 전문가들에 의해 온전히 이전·보존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김기성, 2016).

⁷⁴⁾ 학생용 책상 358개, 학생용 의자 363개, 키 높이 책상 26개, 교무실 의자 11개, 교실 교탁 10 개, 교무실 책상 12개 등을 이전하게 됐다(김명진&홍용덕, 2016).

^{75) 4·16}민주시민교육원은 90억원(경기도, 도교육청 50% 부담)을 투입해 현 안산교육지원청 부지 4,840㎡에 조성됐다. 현재 안산교육지원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본관으로 사용하며, 지상 3층 규모 별관을 신축한다. 본관에는 학생 안전·민주 시민 교육 공간이, 별관에는 건물 2층과 3층은 단원고에 있던 세월호 기억교실을 그대로 복원했다(김도란, 2018).

만, 공사가 완료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교육공간이 조성되기 전까지 이송된 유품들을 박스에 담아 창고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유가족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 물품들을 전시해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 장소를 재현하고 개방하였다.

"새롭게 이전한 곳은 전혀 교실의 분위기가 나지 않았고, 그냥 칸막이 있는 임시 창고 같았어요. 물론 건물이 완공되면 다시 이전해야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공간을 새롭게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냥 누군가 왔을 때 좀 따뜻했으면 좋겠고, 아이들 이름이 잊히지 않고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원래 머물던 공간을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에는 마음을 잘 담는 게 중요했어요(이지성 소장 인터뷰)." 76)





그림 43. 자원봉사자 유품상자 이송 그림 44. 홀로 남겨진 (당시)미수습자 책상 한겨례(2016.8.20.)

이렇게 유가족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구현된 공간 1층은 아이들의 꿈을 주제로 박민선 남까의 작품을 활용해서 전시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놓아기억공간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시민들이 보내준 글과 작품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시민들에게 다

^{76) 4.16}기억저장소 (2020). 그날을 말하다 : 도언 엄마 이지성. 한울엠플러스. 4.16구술증언록 단원 고 2학년 3번 제1권, p.264.

^{77) 2014}년 9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세월호 아이들의 꿈을 인형으로 직접 제작하면서 "아이들을 한명 한명 기억하고 그 아이들에게도 꿈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더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했다(최예린, 2016).

가가기 위한 준비작업을 가졌고, 2016년 11월 21일 개방했다. 기억으로 의미를 생성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태지호, 2014). 비록 본래 장소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가족들의 적극적 참여로 새롭게 구현된 기억교실은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중요한 기록물이 됐다.

기억교실은 그로부터 4년 동안 임시운영되었고, 2021년 4월 12일 4.16민주시민교육원이 개소하면서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2개 동으로 나뉘어 있다. 옛 안산교육지원청 건물을 새로 고친 본관 '미래희망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을 할 수 있는 7개 교육실이 있고, 신축 건물인 별관 '기억관'에는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그대로 옮겨 복원한 기억교실과 영상실, 기록실 등이 위치한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을 기리고,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4.16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체계의 변화와 대안적 교육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복원된 4.16기억교실을 중심으로 기억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구현하려 하고 있다. 긍정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기억장소는 아니지만,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5. 4.16민주시민교육원 조감도 그림 46. 복원된 4.16기억교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제2절 사회적 추모를 위한 일시적 장소 활용

1. 애도를 위한 공감장(共感場) : 단원고 정문, 촛불문화제

유해정(2018)에 따르면 애도는 죽음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상실에 대한 남은 자들의 응답이라고 했다. 떠나보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행동인 것이다. 전진성ㆍ이재원(2009)은 떠난 이를 애도하는 것은 슬퍼하되, 그것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상실의 인정을 통해본인의 일상생활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상징적 재현 혹은일시적 행동을 통해 기억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는 김진영(2014)이 언급한 애도를 통한 사회적 성찰과 관련이 있다. 사회적 추모와 애도는 개인적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넘어서 공감을 통해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애도는 개인적 차원의 감정반응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차원의 공적대응인 것이다. 유명인의 운명, 공동체를 위한 희생,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 재난에 따른 참사 등이 사회적 차원의 애도가 실현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유해정, 2018).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것도 사회적 애도의한 측면이다. 희생자 가족들의 개인적 아픔이 있었지만, 배가 침몰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탑승자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랐던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 초기에 이루어진 단원고 정문의 슬픈 선물과 편지, 시민 모두가 하나된 촛불문화제 등을살펴보며 이에 대한 특성과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은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유가족에게 힘을 보탰고, 정부합동분향소와 단원고를 방문하며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이러한 과정을 김진영(2014)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연대"라고 표현했다. 이는 삶과 죽음의 경계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속에서 함께 공생하며, 이전의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확장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월

호 참사 이후의 사회적 애도는 일시적으로 장소를 생성하거나, 기존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성을 확산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전국 100개가 넘는 분향소가 마련되었고, 특히 단원고 희생자들이 태어나서 자랐던 안산에서는 기다림과 애도의 분위기가 집중화 되었다.

앞서 언급한 영구적 장소 생성과 다른 일시적 장소 활용 차원으로 기억장소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추모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소를 활용한 형태를 '애도를 위한 공감장(共感場)78)'이라고 했고,이에 대한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사회적 재난이라는 이슈를 담아내면서, 피해자 및 사회구성원이 가지는 애도의 감정을 표출하는 장소를 공감장이라고 한다. 이는 상호 간의 마음이 전달되면서 사회적 성찰과 변화를 만드는 기반이 된다. 공감장은 재난 대응을 위한 자발적 시민참여 행위와 사회적 교류를 만들어간 기억장소이고, 치유회복적 가치를 형성하여 변화의 동력이 된다. 공감장은 단계적으로 변화했다. 처음은 개인적 감정의 표출 혹은 일회적인 추모 활동으로 시작했지만, 이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전개되면서 함께 하는 강력한 연대의 힘이 마련됐다. 사회적 변화를 위한 기폭제가 된 것이다.이를 통해 유가족과 시민들 상호 간의 관계를 설정하며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애도 분위기를 마련했다.

단원고 교정에서 시작된 촛불 기도회, 그리고 정문 앞 선물과 편지

기억은 물리적 공간을 매개로 깊게 남겨지고 사회적 공감을 통해 확산된다. 단원고 교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형성된 애도의 공감장이다. 당시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학부모, 공무원, 언론사, 시민들은 학교로 몰려갔고, 안산시와 단원경찰서는 취재진과 시민들로 혼잡한 학교 앞 교통통제를 시작했다. 현장 상황을 알기 위해 모여드는

⁷⁸⁾ 공감장이라는 단어는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감성인문학연구단에서 2008년부터 '한국의 감성체계 정립'이라는 목적으로 연구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다양한 차원에서 공감장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난 이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 장소'로의미를 부여해서 기억장소와 연계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사람들로 행정실이 마비되자 본관 3층에는 긴급상황실을, 4층 실내체육관에는 학부모 대기실을 설치했다. 배가 기울어지는 것을 TV로 지켜보던 일부 시민들은 진도로 내려가거나 단원고 운동장에 남아서 아픔을 함께 나눴다⁷⁹⁾. 정원옥(2015)은 당시 사고 소식이 전해진 첫날밤에 일어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날 밤, 기이했던 적막을 깨우기라도 하듯 단원고에 수십 개의 촛불이 밝혀졌다. 이웃과 친구가 당한 불행 앞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저렇게 달려오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이구나. 안산 사람들에 대해 갖 게 된 첫 이미지였다."





a: 수학여행을 떠나는 아이들⁵⁾ b: 수학여행을 떠나는 버스(안산시 제공) 그림 47. 2014년 4월 15일 단원고 운동장 (세월호 참사 이전)





a: 아이들을 기다리는 촛불기도(안산시 제공) b: 취재 차량으로 가득한 운동장(안산시 제공) 그림 48. 2014년 4월 16일 단원고 운동장(세월호 참사 당일)

⁷⁹⁾ 안산시(2016, p.42.)에서 발행한 세월호 참사 안산시 백서 : 수습지원 활동 1년의 기록집에서 당시 단원고등학교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80) &#}x27;세월호 304 잊지 않을게'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sewol304/)

정치, 종교, 이념을 넘어서 운동장을 찾은 시민들은 단원고 학생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촛불 기도를 시작했다. 4월 16일 당일에 있었던 단원고 운동장 촛불 기도회는 와동에서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김은호 목사가 진행한 첫 번째 추모행사였다.

"지역 활동가에게 촛불 기도를 인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모두가 10시에 단원고 운동장에 모였어요. 그때는 단원고 학부모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 아이들에게 아무 일 없기 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어요. 꼭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가지고 모인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렇게 4월 16일 10시 단원고에서 처음 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김은호 목사 인터뷰)."

작은 움직임을 시작으로 일동, 고잔동, 와동·선부동, 상록수역이 '동네 촛불' 현장이 되었고, 그 이후 안산문화광장, 화랑유원지 공연 장으로 장소가 옮겨져 대규모 행사로 확대됐다.⁸¹⁾ 단원고 교정에서 시작된 촛불 기도는 다수의 안산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67일간의 문화제로 이어졌고, 이후에는 광화문광장으로 옮겨져 전국적 행사⁸²⁾로 확장됐다.

"세월호 참사 당일 안산에서 첫 촛불문화제가 시작됐다. 촛불은 67 일간 멈추지 않았다. 지금의 광화문광장의 촛불이 시작된 곳은 안산 시민촛불, 바로 세월호 촛불이다. 참사 당일 안산시민들은 단원고등학 교에 모이기 시작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함께 슬퍼했다. 안산시민들 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뭐라도 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일터에서,

^{81) 2014}년 4월 16일 저녁, 세월호 침몰 사고 소식을 접하고 단원고등학교를 찾은 안산시민들은 탑승객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촛불기도회를 가졌다. 이튿날인 4월 17일, 촛불 기도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주축으로 '무사 귀환을 위한 안산시민들의 모임'이 만들어졌고 4월 21일, '세월호문제해결을위한 안산시민사회연대'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안산시, 2016).

⁸²⁾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우리동네 촛불 지도(http://candlelights.kr)가 만들어졌다. 서울에서는 약 30 개, 경기도는 안산, 의정부, 수원, 화성 등 25개 지역에서 촛불공간을 만들었다(온라인뉴스부, "우리동네 촛불 지도 공개…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 장소 쉽게공유", 서울신문, 2014.05.10.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10500049)

집에서, 광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연대했다. 당시 안산시민들의 연대는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이었다.83)"

이는 일시적으로 공간이 활용되는 특성이 있지만,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서 한목소리로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 약속하는 행동은 그장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순간 시민 모두함께 하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였고,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림 49. 안산문화광장 촛불문화제 _{안산시 제공}



그림 50. 안산시 소재 고등학생 추모제 _{안산시 제공}

참사 당시 분향소를 방문했던 시민들이 단원고를 방문하면서 학교 앞 정문에 슬픈 선물과 편지를 남겼다. 포스트잇의 메세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등을 두면서 사회적 애도를 담은 기억장소가 형성된 것이다. 당시 페이스북에 공개된 사진⁸⁴⁾ 한 장이 희생된 단원고 아이 들을 사회적으로 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사진 속에는 제주 도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인천으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 모습이 담겨 있다. 이것이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

^{83) 2017}년 연구자가 직접 참여한 세월호 참사 특별전시회 '당신이 곁이다' 일부 내용이다.

^{84) &#}x27;세월호 304 잊지 않을게' 페이스북 페이지는 단원고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수학여행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자료를 공개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하던 사진 속 아이들은 이제 우리 곁에 없다. 수학여행의 들뜬 기분에 같은 교복을 입고 서 있는 사진 속 아이들은 가방에는 밤새 고심해 고른 옷가지가 들어있을 것이다. 사진 속 학생들은 남녀로 나뉘어 학교 운동장에 줄을 맞춰 서 있다. 움직임이 없는 사진이지만, 금방이라도 학생들이 우르르 달려나가고, 왁자지껄한 수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을 일게 했다(신은정, "3년 전 오늘 단원고 운동장", 국민일보, 2017.4.16., http://news.kmib.co.kr/article/print.asp?arcid=0011402819).

다. 떠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단원고를 찾았고, 학교 앞 정문에 마음을 담은 선물과 편지를 전했다. 단원고등학교는 마지 막으로 아이들이 머물렀던 장소이며, 추억이 서려 있는 공간이다. 이 곳을 방문한 시민들은 학교 앞 정문 담벼락에 피해자들을 응원하고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메시지와 작은 선물을 남겼다. 이 장 소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첫 번째 추모공간이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간절한 염원과 위로의 마음을 담은 글과 물건들이 놓였다.85)



그림 51. 단원고를 찾은 시민들



그림 52. 단원고 정문 앞 슬픈 선물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04135 http://news.imaeil.com/NewestAll/2014050609394029432

단원고 촛불 공간, 안산문화광장 시민참여 촛불문화제, 단원고 정문 앞 슬픈 선물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사회참여에 따라 일시 적으로 생성된 기억장소이다. 이들 공간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고 당 시의 기억은 모두의 마음속에만 남아있다. 당시 그 기억장소에서 시 민들이 가졌던 애도의 마음과 희생자들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던 다 짐은 장소가 사라졌어도 계속 확산하고 있다. 개인적 감정의 표출에 서 시작되어 연대의 힘을 이루었고, 사회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

⁸⁵⁾ 단원고 정문 앞에 우유와 초콜릿, 과자, 소시지 등이 쌓였다. 캔커피에 붙은 메모지에는 "다 혜야. 그동안 추웠지. 따뜻한 커피 마시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어"라는 글귀가 쓰여있었고, 딸기 우유 앞에는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지켜 주지 못해 다시 한번 미안하다. 미안하단 말 밖에 못해 줘서 또 미안해"라는 메모가 있었다. "과제! 꼭 살아서 돌아오기", "이거 무한 리필이에요. 꼭 다 먹고 리필해 드릴게요"라는 희망 섞인 메시지도 있었으나, 글을 읽던 조문 객들은 이내 눈물을 흘렸다(박상전, 2014.5.6.) "어린이날 선물 필요없어, 형! 빨리 돌아와", 매 일신문, 2014.5.6., http://news.imaeil.com/NewestAll/2014050609394029432).

은 애도의 공감장이라는 일시적 장소 활용으로 가능했다. 세월호 참사를 목격한 이후 대두된 마음들이 모여서 집단기억이 생성되었고, 일시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었다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자발적 시민참여를 통해 조성된 기억장소는 세월호 참사에서만 나타난 특별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김명희(2019b)에 따르면 기억하는 행동 자체만으로도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사건의 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했다. 허인숙·이정현(2004)은 시민참여는 모든 사회 과정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직접 행동하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동체를 성장하게 하는 사회적 행위라고 했다. 시민들의 참여 활동덕분에 유가족들은 외로움이 덜해질 수 있었고, 이후 사회적 공감을 불러일으켜 전국으로 확산했다. 재난을 경험하고 떠난 이들에 대한사회적 애도는 상실에 대한 치유를 함께 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다.

2. 문화행사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 :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기억하는 행동은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고 미래를 열어주는 동력이다(Past, T., 1996). 이에 기억은 기록되거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유될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것이 고통을 남긴 경험일 수도 있고 희망을 주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기억은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공감되어야 한다. 기억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은 과거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과 공감하고 성찰하며 관계를 활성화하는 적극적행위라고 할 수 있다.

김왕배(2014)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역사적 사건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행위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으로 '사회적 의례'를 이야기했다. 의례 과정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도출해내고,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의례의 일종으

로 전개한 문화행사 개최공간으로 기억장소를 살펴보려고 한다. 세월 호 참사의 사회적 의례는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했고, 때로는 사회적 확산 차원에서 대중적 공감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러한 사항을 '기억문화의 대중화 및 공론화'라고 보았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는 안전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했다(김명희, 2019a). 이는 재난 참사의 경험을 '안전한 국가'라는 보편적인 시대적 과제로 확장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성'을 확립한 궁정적 방향이다. 앞서 언급한 '사회적 추모의례'는 경건하고 엄숙해야 할 거 같지만 '대중적 공론화를 위한 의례'는 희생자 추모를 기반으로 문화적 성격이 부여된 공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행사는 일시적으로 기억장소를 조성하거나 활용하면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 옆에서진행된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통해서 공간적 특성과 사회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했다. 화랑유원지⁸⁶⁾는 본래 수려한 자연경관을볼 수 있는 호수 둘레길이 있고, 양질의 미술문화콘텐츠가 상시 제공되는 경기도미술관⁸⁷⁾이 위치해 안산시민들이 선호하는 공원이다. 하지만 이곳에 정부합동분향소가 설치되면서 주민들의 일상적 문화향유기능에 희생자를 기억하며 추모하는 죽음의 공간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불가피한 공존의 상황을 직면했다. 삶과 죽음의 불편한 동거는 이견을 가진 시민들 간의 충돌로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오랫동안 존재하는 합동분향소로 인해 침체된 도시 이미지가 드리워진다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다.

⁸⁶⁾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일대 한국전쟁 중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상이용사들을 위한 자활원(화랑 농장)에 있던 20명이 1956년에 초지동 인근으로 이주하면서 이곳을 '화랑농장', '화랑저수지', '화랑낚시터'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1980년 안산신도시 건설로 화랑농장의 30여 가구는 전국으로 흩어졌고, 1986년 안산시 승격 후 이곳이 유원지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화 랑유원지'로 불리게 됐다(이현우, 2018).

⁸⁷⁾ 안산시는 공업도시라는 이미지를 덮어줄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70만 명이 넘는 인구에 비해 도시의 강점이 너무 비하되어 있다. 단원 김홍도를 배출한 도시의 인적 배경과 역사성을 행정 구역의 명칭으로 앞세우고 있으니, 안산시에 도립미술관의 유치는 이 도시의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전진삼, 2009).

이러한 현상이 증폭되는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파생적 공포감⁸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문화박람회라는 특별한 문화행사를 통해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경가 사회참여로 만든 기억장소 : 참여작가 메모리얼 가든

화랑유원지에서 개최된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89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여 침체된 분위기 전환을위해 개최된 문화이벤트90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세월호 참사에대한 '대중적 공론화를 위한 의례'라고 보았다. 정원문화박람회는정원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이벤트이다. 이곳에는 다양한 유형의 정원이 만들어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억장소 혹은 메모리얼가든을 중심으로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화랑유원지 곳곳에 50개의 작은 정원이 만들어졌다. 좀 더 특별하게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단원고 아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이다. 이것은 합동분향소로 인한엄숙한 분위기를 전환하고 대중적 추모를 위해 만든 기억장소이다. 당시 만들어진 메모리얼 정원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과 인식전환, 이를 통한 유가족들의 치유회복을 증진하는 의미있는 역할을 이행했다.

먼저 당시 조성된 정원 가운데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된 이주은 작가의 'CORRIDOR for PRAY91)' 는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

⁸⁸⁾ 그간 무수한 대형 사고를 겪었지만,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언젠가는 나의 가까운 이에게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파생적 공포'라고 한다(지그문트 바운만, 2009).

^{89) 2017}년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합동분향소가 있는 화랑유 원지와 세월호 집중피해지역 고잔동 마을 일원에서 진행하게 됐다.

⁹⁰⁾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개최된 장소가 세월호 참사 합동분향소 옆이었고, 떠난 이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 차원으로 보면 경건하고 엄숙한 사회적 의례라고도 할 수 있다.

⁹¹⁾ 코리더와 작은 수반, 침엽수 등을 이용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도록 한 정원이다. 철

한 추모의 의미를 담은 작품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 앞에서 신의 힘을 빌리려는 인간의 본성을 모티프로, 신에게 기도하 는 장소로서 정원의 주변부에 코리더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나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나 역시도 힘든일이 생길 때마다 신께 기도하며 매달린다.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이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용서하며, 과한 욕심은 내려놓고, 아픈 상처를 매만지고, 기도를 통해 다시 사랑하게 된다." 92)

떠난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최재혁, 백종현, 김대희 작가의 '혜원(溪園), 기다리는 마음⁹³⁾'도 들풀이 피는 언덕길을 걸어 떠난 이와 만날 수 있는 기억장소를 정원으로 형상화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작품이 조성되었지만, 특히 두 작품에 참여한 작가들은 유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아픔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해석하고 의미를 반영한 공간을 조성했다.

"분향소 안에는 아이들의 영정사진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곳을 지날 때는 늘 조심스러웠어요.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했고, 웃거나 떠들면 안 될 거 같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행사를 통해 곳곳에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희생자들이 꽃과식물이 되어서 우리 옆으로 온 거 같아요. 정원 작품에 담긴 소중한의미가 큰 울림을 주네요(안산시민 인터뷰)."

평석과 채도가 낮은 수목을 사용해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정원의 중앙은 썬큰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상징적 공간이 조성됐다. 유가족들의 눈물이 모이는 것을 형상화한 수반을 중앙에 도입하고 그 주변에는 초화류 식재와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나비를 도입해 상징성을 높였다(박광윤, 2017.10.2.).

⁹²⁾ 안산시. (2017).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가이드북. 안산시, p.9.

^{93) &}quot;떠난 이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정원이다. 입구에는 상처받은 마음, 오랜 시간을 상징하는 철담과 돌담이 서 있다. 사잇길로 정원에 들어서면, 떠난 사람과 머문 사람이 만나는 마당이 있다. 그 주변을 꽃과 풀과 나비가 아늑하게 감싸며 만남을 축복한다. 볕이 잘 드는 작은 마당에 10개의 의자가 놓여있다. 볕이 지고 어둠이 드리우면 별이 서서히 깃든다(작품설명서)."



그림 53. 합동분향소 옆 박람회 행사공간 그림 54. 박람회장(화랑유원지 및 고잔동)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가이드북



안산시청



그림 55. CORRIDOR for PRAY 환경과조경



그림 56. 혜원(溪園), 기다리는 마음 자연감각

추모는 떠난 사람을 그리고 생각하는 것⁹⁴⁾을 뜻하며, 고인에 대한 기억과 애도를 통해 남은 자들이 현재를 살아내고 미래의 삶을 영유 하는 동력이 된다. 하지만 추모는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 장기화될 경우에는 부정적 인식이 대두될 수 있다. 정 부합동분향소가 오랜 시간 화랑유원지에 놓여 있었기에 경건하고 엄 숙한 추모의 상징적 장소가 됐다. 정원박람회를 통해 만들어진 작가 들의 정원 작품은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시민들이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 그동안 영정사진 위에 국화꽃 한 송이를 얹어놓는 추모에 익숙해 있던 시민들에게 꽃과 식물을 활 용한 정원은 기억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또한 정원박람회장에 만들어진 정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다시금 기억을 떠올리 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⁹⁴⁾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6반 : 빛과 바람으로 오렴



2반 : 엄마, 아빠 가끔 하늘을 봐주세요



7반 : 꿈의 안뜰



3반 : 꿈꾸는 정원



8반 : 별이 노니는 그네



4반 : 별이 된 소년들의 꿈



9반 : 데이트(Date)



5반 : 별을 품은 꽃



10반 : 인향만리(인연의 소중함)

그림 57. 정원문화박람회 참여정원 기억 아이들의 정원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참여로 만든 기억장소 : 아이들의 정원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는 전문 작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원도만들어졌다. 유가족들이 정원 설계 및 시공 경험이 있는 청년, 대학생으로 구성된 가든볼룬티어⁹⁵⁾와 협력해서 아이들의 정원⁹⁶⁾을 조성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합동분향소 옆 잔디마당에 '기억 아이들의 정원' 10개소를 조성한 것이다. 정원 주제는 아이들의 꿈, 방, 그림, 좋아하는 꽃 등으로, 희생된 이들과 연관된 요소들을 활용해 떠난 이들을 기억할 수 있는 매개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형주(2017)는함께 정원을 만들었던 유가족들이 아이들을 위한 정원을 직접 만들었다는 것과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었던 데 고마움을 표했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아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정원 앞에서 신나는 표정으로해설을 하다가 눈물 흘리기를 반복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람회 기간 내내 많은 분이 방문해서 정원과 제작과정에 관심을 주었어요. 정원 요소 하나하나가 어머님 아버님들이 손수 고생해 만든 것들이고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김지호 학생인터뷰)."

10개의 반별 정원은 250명 아이들 모두를 기억하는 의미를 담아내고자 했다. 꽃과 식물을 매개로 재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안전사회 조성의 의미를 전달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의 정원이향후 조성될 4.16생명안전공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염원도 담겼다. 그간 합동분향소로 인해 화랑유원지를 방문하기 힘들었던 시민들이정원박람회를 통해 이곳을 찾기 시작했고, 활력을 가진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낯설고 불편하게 생각되던 죽음의 기억장소가 정원문화를 통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아이들의 정원은 작품의 훼

⁹⁵⁾ 가든볼룬티어는 김지학 배재대학교 원예조경학부, 아리아 컴퍼니, 톡톡문화포럼, 이규정 서울 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이상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김서린·박상아·유창 현·임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김지호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채새롬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임혁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백규리·박성준 동심원조경설계사사무소 등 10개 팀이 함께했다.

⁹⁶⁾ 안산환경재단 주관으로 개소당 70만원을 지원해 2m×2m 규모의 정원을 조성한 사업이다. 단원고 희생자들이 소속된 1반부터 10반까지를 상징하는 10개의 정원을 조성했다.

손 및 유지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원문화박람회 행사를 마치면서 철거 됐다. 어렵게 만들어진 기억공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 평가도 있었지만, 대중적 관심과 공감대 확산에 꽃과 식물이 있는 기억장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된 의미가 있었다.





그림 58. 유가족과 청년조경가 공동작업 그림 59. 영석어머니와 김지호 학생 환경과조경 제공

마을주민들이 만든 기억장소 : 학교가는길 아이들을 기억하는 정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연계된 세월호 기억문화 확산활동은 희생된 아이들의 고향 고잔동 마을에서도 진행되었다. 일촌가드너 마을정원사들은 단원고 학생들이 등하교하던 길 자투리 공간에 기억의 정원을만들었다. 마을주민 산책로 '소생길 정원97', 지역주민 휴게공간'소담정원', 연립주택 단지 화단을 활용한 '우리정원'등 30개의작은 기억장소들이 조성되었다. 정원을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지역사회 분위기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노란 리본, 세월호 선체 등 참사를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억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원을만들었다. 이웃에 살던 아이들을 떠나 보낸 것에 대한 아픔이 아직남아있어서 기억을 위한 공감와 애도는 필요하지만, 불편함을 야기하는 직접적 메시지 전달은 불편하도고 했다. 물론 당시 유가족들은 주민들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억장

⁹⁷⁾ 소생길 정원은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 전환을 위해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했다. 마을정원의 시작 입구정원(RED, 활기) ⇒ 쉼을 즐기는 기억의 정원 머무는 길(GREEN, 생기) ⇒ 산책길을 따라 걸어가는 기억의 정원 지나가는 길(BLUE, 신뢰) ⇒ 함께 하는 작은 모임공간 기억의 정원 함께하길(PINK, 활기). 이와 같이 연결된다.

소에는 상징물이 항상 있어야 했는데, 고잔동 마을 안에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속상해했다.

학교 가는 길 정원과 연계된 단원고 교정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증한 목련 묘목이 심겼다. 이 나무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는 부활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제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이 부인 레이첼 여사를 떠나보내고, 백악관 뜰에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⁹⁸⁾. 오바마 대통령은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희생된 아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마음을 담아목련을 선물했다. 의미 있는 나무 한 그루로 인해서 작은 정원이 하나 더 만들어졌고, 이는 또 다른 기억장소가 됐다.

"희생된 학생 대다수가 공부하던 단원고등학교에 백악관의 목련 묘목을 바칩니다. 이 목련 묘목으로 이번 비극으로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에게 미국이 느끼는 깊은 연민을 전달합니다(오바마 대통령 메시지)." ⁹⁹⁾

오바마 대통령이 기증한 목련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정원들은 현재까지 유지관리 및 운영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이미지를 전환하기 위한 주민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공동체 활동이다. 아이들의 행복한 기억이 서려 있는 마을에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기억장소들과 차이가 있다. 세월호 상징물들이 표현되지 않았다고 기억장소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주민들은 정원이라는 일상적 매개체를 활용하여 아이들을 기억하고 아픔에 공감하는 실천 활동을 했다. 기억의 사회적 공론화는 강요와 설득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생활 속에서 부담스럽거나 불편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달하고 확산하는 것이 존중되어야 한다.

^{98) 2014}년 4월 25일 전달한 목련으로, 잭슨 목련(Jackson Magnolia)이라 부른다. 200년 동안 백악 관 상징으로 20달러 지폐(1928~88)에 등장했다. 2014년 당시 50cm 정도였던 묘목은 현재 150cm까지 자랐고 6번의 꽃을 피웠다. 단원고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목련 개화시기는 3~4월이지만 잭슨 목련은 이보다 늦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꽃을 피운다."고 했다.

⁹⁹⁾ 권복기(2014) 오바마 대통령, 단원고에 목련 묘목 전달 일부 내용



그림 60. 고잔동 마을정원 안내지도



그림 61. 주민주도 마을정원 조성활동







그림 62. 고잔동 일촌가드너와 마을정원





그림 64. 백악관 목련, 20달러 지폐 뒷면 https://matthewbgilmore.wordpress.com/2017/12/29/w hite-house-jackson-magnolia-history-resources/





그림 63. 오바마 대통령 단원고 기증 주한 미국대사관 페이스북(2017.3.30)





그림 66.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포토존 푸르네 정원문화센터 제공



그림 65. 단원고 교정 잭슨 목련 개화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706090939001#c2b

제4장 망각과 외면으로 인한 장소 소멸

본 장에서는 장소의 생산과 상반된 개념인 장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망각과 외면을 통한 장소의 소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기억장소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이에 따른 공간적 특성과 사회적 함의를 파악하고자 했다.

망각과 외면이라는 정서는 세월호 참사 초기에 함께 슬퍼했던 이들이, 마음의 변화로 인해 일어난 것이다.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이라는 불편한 감정을 지우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바람에서 시작된다. '이제는 그만 잊자'며 망각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심영섭, 2018). 이들이호소하는 것은 일상생활 공간 가까이에 기억장소가 존치되거나 건립되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이다. 기억장소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애도를 위해 일시적으로 조성되어 운영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점유하면서 존재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다. 김현희·이인규(2011)는 죽음의 공간이 가까이 있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슬픈 기억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준다고 했다. 따라서 이로 인한 거부반응과 피해의식이 강하게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갈등 문제는 애도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기억공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등장한 이슈이다. 정치적 이념화에 따른 불편한 감정이 대두된 것이 망각과 외면을 유발했다고 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 및 시민사회의 투쟁과 저항의 이미지가 강하게 드리워졌다. 따라서 기억장소는 정치적 성향 차이,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이념논쟁 등 사회운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형성됐다(진예린, 2020). 이것이 기억장소의 지움과 소멸을 발생시킨 이유라고 할수 있다. 누군가의 의도적인 왜곡과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오해와불신의 감정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김서경(2015)에 따르면 참사 초기일부 언론에서는 유가족들이 보이는 행동이 감정적으로 과열되어 있

거나 도를 넘어선다는 비난, 과도한 욕심이 내재¹⁰⁰⁾되어 있다는 잘못 된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했다. 이렇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행위들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기억장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은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출발했다. 지금까지 재난을 겪은 피해당사자들은 국민적 공감과애도를 받으면 침묵해야만 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러지않았고 국가에 대한 역할, 기억과 약속을 위한 대중적 확산 등 활동을 주체적으로 전개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행위와 규범을 벗어나는 일탈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등 부정적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전국을 죽음의 도시로 만들려고 한다', '물질적 지원과 금전적 보상확보를 위한 거점공간이다'이라는 편향적인 견해가 양산되면서,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만드는 기억장소와그곳에서의 활동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김민환(2019)은 기억을 통해 특정 집단의 정체성 형성 및 존재를 유지하게 되는데,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기억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의 경합'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는 과거 발생했건 사건이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편하게 계승하고 지속할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이다. 기억과 망각의 경합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현장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며 지역사회 분위기, 개인과 집단이 가진이념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망각하고자 하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기억소멸'과 '장소지우기' 등의 현상들이 어떠한 목적과 이유로 발생했는지를 분석하고, 기억장소는 재난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김민환(2019)은 그간 우리 사회가 재난 이후 공간과 장소들을 '기억하기'보다 '망각하기'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면서 본래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한 낯선 곳에 존재하는 '예외적 시공간101)' 특성을 가진다고 했다. 이러한 한계와 어려움을 잘 인

¹⁰⁰⁾ 정규재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팽목항에서 절규하고 있는 유가족들에 대해서 분노 조절이 불가 능하거나 슬픔을 내면화하여 누그러뜨리지 못하는 감정 조절 장애라고 했다(정규재, 2014).

지할 필요가 있고,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의 양상들과 연계하여 재난 지역 물리적 공간 조성 방안과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참사초기 공감대 형성 ⇒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호소 사회적 추모애도 동의 ⇒ 일상공간의 기억장소 부담

죽음의 장소에 대한 거부반응

강요되는 슬픈 기억, 삶과 죽음 공존 두려움, 엄숙한 분위기 불편함, 경기침체 피해의식

정치적 이념실현 장소라는 부정적 인식

유가족 투쟁·저항 이미지, 사회운동의 거점 오해 언론을 통한 왜곡된 정보와 편향적 견해

장기적 공간점유 지역사회 갈등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

학부모 이해관계자 상호간 의견충돌

단원고 기억교실

진보와 보수라는 왜곡된 정보 생산

광화문 세월호 광장

세월호 이슈의 정치적 쟁점화 문제

250명 희생자 봉안시설

그림 67. '망각과 외면으로 인한 장소 소멸' 의미해석 과정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를 둘러싼 기억과 망각의 갈등 양상이 발생한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와 추모는 이해하지만, 본인의 일상적 공간 내에 존치하는 기억장소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의 미흡한 사고수습으로 인해 국가정책에 대항하는 정치 사회적 운동의 성격이 세월호 이슈에 드리워지면서 그 자체가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진예린, 2020). 이러한 양상이 기억장소 조성및 운영에 대한 부정적 집단기억을 형성하고, 주민들의 거부반응과 피해의식을 불러온 것이다(김현희·이인규, 2011). 본 장에서는 기억장소를 둘러싼 '망각을 통한 장소의 지움과 소멸'이라는 현상이 등장한 이유를 '죽음의 장소 존치에 대한 지역사회 거부반응'이라고보고,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를 사례로 장기적 공간점유에 따른지역사회 갈등 양상을 알아봤다. 그리고 '정치적 이념실현 장소라는

^{101) &}quot;일상적 공간과 격리되어 있고 시간적으로도 특정한 날짜에만 기능하게 설계되어 있다. 공 간적으로 기존의 사회적 참사 추모시설은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거나 아예 불가능한 곳 에 자리 잡고 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희생자 위렵탑은 도로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며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위령시설은 시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낮다(김민환, 2019)."

부정적 인식'과 관련해서는 진보·보수 진영 논리에 따라 왜곡된 정보들이 계속 만들어진 광화문 세월호 광장, 지방선거 당시 정치 쟁점화가 전개된 4.16생명안전공원 봉안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다.

제1절 죽음의 장소 존치에 대한 거부반응

1. 장기적 공간점유로 인한 주민 갈등 : 정부합동분향소

재난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보유한 능력으로 대처하기 힘들 만큼의물적, 인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손해를 유발하여 기능 및 역할을훼손한다(USISDR, 2015).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주민들은 절망, 슬픔, 상실감, 일상 붕괴 등으로 집단적 트라우마와공동체 차원의 피해를 받게 됐다. 아주대(2014)에서 수행한 지역사회사회심리 인식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가 안산 지역주민들의 우울, 불안 증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¹⁰²⁾. 가까이 사는 이웃이 큰 사고를 당했다는 충격이 크게 다가왔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한 도시에서 청소년 250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상황에 비통한 감정이 시민들에게 드리워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당시 충격은 직접 관련이 없는시민들에게까지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전국 모든 축제들이 취소됐다. 안산시도 10주년을 맞이하는 거리극 축제를 취소하고 사고 수습에 집중했다. 이러한 사회적 여파로 인해서 지역사회 내 노래방, 술집, 식당, 커피숍을 방문하는 시민들도 줄어들었다. 짧은 시일 내에 재난 상황

¹⁰²⁾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의뢰로 진행되었으며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안산, 경기남부, 경기 북부, 진도 등 6개 지역주민 7,169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안산 지역주민들의 우울 증상 비율은 11.8%로 진도 8.1%, 경기북부 8.1%, 경기남부 6.4%보다 높았다. 안산 지역주민의 '불안 증상' 비율도 23.9%로 경기북부 19.8%, 경기남부 17.4%, 진도 13.4%과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류수현, 2015).

이 정리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의 급작스러운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애도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 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원인이 세월호참사 때문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언론 보도와 시민사회의 활동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피해에는 무관심하다는 상대적 소외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 집중하는 정부와 안산시에 대한 불만이었다.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회복에 방해가 되는 세월호 참사 관련된 모든 것이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주민 상호 간의 유대감을 약화시켰다.

"당시에 세월호 관련 기관, 단체, 센터들이 무수하게 생겨났어요.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힘들어하니 그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데, 평범한 우리 시민들한테는 관심을 안 가졌던 거 같아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무시당한 거 같았어요. 저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생계를 위협받았는데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자는 고민은 아무도 안 했던 거 같아요(안산시민 인터뷰)."

정부합동분향소와 거리 현수막들 철거 등 장소 지우기가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정부합동분향소는 세월호 참사로 이후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기억장소다. 단원고 희생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추모와 애도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임시분향소를 안산 올림픽기념관¹⁰³⁾에 설치했다.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분향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이들이 방문했다. 환하게 웃는 고등학생들, 저들이 모두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참사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게된다. 거대한 제단 위 놓여 있는 영정들 앞에서 누구도 무너지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박래군, 2020)."

하지만 단원고 바로 옆에 임시분향소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우려

¹⁰³⁾ 임시분향소는 4월 23일 오전 9시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28일 24시까지 18만명의 조문객이 다녀갔다(안산시, 2016).

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상적 등하굣길에서 늘 보게 되는 분향소로 인해서 고통, 슬픔, 무서움의 정서가 노출되어 재학생들의 트라우마 및 우울증이 심해질 것이란 걱정이 많았다(최선욱, 2014). 당시 동네 아이들의 죽음에 주민 모두가 절망감에 빠져있었는데, 많은 기자들과 조문객이 마을에 머물면서 불법주차 및 쓰레기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 들과 갈등을 빚었다. 주민들은 평범한 일상의 평온함을 원했고, 임시 분향소 이전 및 철거에 대한 요구가 급증했다. 정부는 다수의 조문객 을 수용하도록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 부지에 정부합동분향소¹⁰⁴⁾를 다 시 조성했다.



그림 68. 임시분향소 조문행렬(고잔초) 안산시 제공



그림 69. 임시분향소(올림픽기념관) 안산시 제공



그림 70. 정부합동분향소 전경 안산시 제공



그림 71. 유모차 엄마들 조문 행렬 _{안산시 제공}

¹⁰⁴⁾ 정부 주관, 안산시 운영,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지원, 위치 : 초지동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 규모 : 2,520㎡, 운영시기 : 2014.4.29. 10시부터(24시간), 안치대상 : 세월호 참사 희생자 / 신속한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과 의전 및 제단 등 내부시설을 분리 시공하여, 2,400㎡(가로60㎝, 세로40㎜)의 대형 막구조 텐트 1개동을 지었다. 몽골텐트 66개동으로 유가족 대기실, 종교단체, 자원봉사, 운영시설도 설치했다.

정부합동분향소가 위치한 화랑유원지¹⁰⁵⁾는 본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안산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정부합 동분향소가 설치¹⁰⁶⁾되면서 주민들의 일상적 문화향유공간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죽음의 이미지가 공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1448일 동안 불편한 동거가 계속됐다. 그 과정에서 이견을 가진 시민들 간 의견충돌에 따른 사회적 갈등까지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합동분향소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스트레스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화랑유원지에서 카페를 운영한 유 씨는 화랑유원지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관광객 등의 발길이 끊기면서 식당, 매점의 매출이 폭락해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경기도와 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김민정, 2016)."

"안산시는 소상공인 업소 71곳의 매출 실태를 확인했는데요. 적게는 10%, 많게는 50% 이상의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민들의 위축된 소비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 수치로 드러난 것입니다(이석재, 2014)."

"세월호 노란 현수막이 큰 도로에서부터 골목까지 곳곳에 걸려있다. 추모 분위기 때문에 지역 상권이 다 죽는다고 난리다.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국가가 해준 게 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지역상인 인터뷰)."

세월호 참사 관련 이슈가 장기화되고 정치적으로 비화하면서 시민들은 불편함과 피로감을 호소했다. 이로 인해 정치사회적 입장 차이에 따라 기억하는 것과 망각하는 것의 충돌이 전개되어 사회적 갈등이 이어졌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두된 소중한 경험을 잊지 않

¹⁰⁵⁾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일대 한국전쟁 중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상이용사들을 위한 자활원(화 랑농장)에 있던 20명이 1956년에 초지동 인근으로 이주하면서 이곳을 '화랑농장', '화랑 저수지', '화랑낚시터'로 부르기 시작했다. 1980년 안산신도시 건설로 화랑농장의 30여 가구는 전국으로 흩어졌고, 1986년 안산시 승격 후 이곳이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결정되면서 '화랑유원지'로 불리게 됐다(이현우, 2018).

^{106) 2014}년 4월 29일부터 2018년 4월 16일까지 1448일 설치됐다.

고 기억하려는 사람들과 불편한 진실 혹은 우울한 분위기 등을 지워 버리려는 사람들 간 입장 조절 과정에서 나타난 양상이다. 참사 초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함께 나누는 기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적 상황과 시민들의 마음 변화가 있었고, 오해와 불신의 감정으로 전환되었다.

기억과 망각은 시간의 흐름, 시대적 변화, 지역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각자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했다. 망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 기억과 추모로 인해 안산이 유령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슬퍼하고 애도하는 데힘을 쏟지 말고, 다시 예전처럼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면서 지출과 소비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기억하기보다는 '망각하기'와 '기억장소 지우기'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고무수한 죽음에 대해 슬픔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서 발생하는 오해에서부터 시작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이영진, 2014). 물론 이러한 현상은 세월호 추모 분위기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발생한 소비위축과 경기침체가 원인일 수도 있다.

이는 재난 치유회복을 피해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바라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중소상인,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지역사회차원에서 고민하면서 다른 이들의 상처와 아픔을 함께 고려해야 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를 키운 원인으로보인다. 김왕배(2014)는 트라우마는 비극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겪는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이윤 창출을 방해받는 경제의 상처도 존재한다고 했다. 비탄의 분위기 전환을 위해 망각을 요구하는 이들의마음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 고민도 깊이 해야 할 것이다.

김교빈 외(2015)에 따르면 누군가는 기억을 통해서 치유되고 다른 누군가는 망각을 통해서만 치유된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

라서 기억되고 망각하는 논쟁의 결과에 따라 공간의 생성과 소멸이 나타난다. 어떤 결정도 정답은 될 수 없기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겪고, 결과에 적응하게 된 다. 이러한 양상은 재난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고, 이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학부모 이해관계자 의견충돌 : 단원고 기억교실

김수이(2004)는 살아가는 동안 기억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고, 기억이 소멸해야 망각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언제까지 기억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꼭 기억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서부터 시작 된다. 같은 사건 기억이라도 피해당사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불편한 기억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어떤 기억이 중요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남겨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발생하는 것이다.

기억과 망각의 출동은 단원고 기억 교실 존치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재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들의 권리 주장과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교실을 존치하자는 의견의 대립으로 등장한 현상이다.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10개 교실과 선생님이 머물던 교무실 1개를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해 놓은 공간을 존치된 기억 교실이라고 한다. 아이들을 끔찍한 모습으로 만났던 참사현장이 팽목항이라면, 이곳은 희생된 이들이 생전에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추억의장소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규모 참사 발생 이후 쟁점이 되는사건 전체를 중심으로 추모를 논했다. 기억 교실은 반별 공간을 중심으로 희생된 아이들 개인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장소 역할을 했다. 교실과 책상을 중심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학교생활 모습이그대로 남겨져 있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때를 떠올릴 수 있도록했다. 학생들이 사용하던 책상과 학용품, 벽에 붙여놓은 메모지, 쓰레

기통 안에 있는 구겨진 종이까지도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그날에 멈춰 있다. 가정통신문, 수행평가 일정, 입시 안내문, 멈춘 시계와 달력등 교실 벽면에 붙어있는 학사일정 자료들도 그대로 남아있다. 복도의 창문과 교실 문에는 글귀가 적힌 종이들이 붙어있다.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좋아했던 과자, CD, 책, 인형 등 물건들과 그리운 마음을 담은 추모글들이 포스트잇과 방명록에 쓰여 놓여 있다.

정원옥(2014)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는 다른 재난 참사와 다르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텔레비전 화면을 지켜보면서 국민 모두에게 충격적인 경험이 됐다. 각자는 자신이 경험한 충격과 고통이기 때문에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만 하는 절박함을 갖게 돼무엇이든 하려고 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당시 많은 이들이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했고, 단원고등학교 기억 교실에 들러 칠판에 흔적을 남기고 책상에 편지를 쓰며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당시에는 학교 측의 배려로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말 개방이 이뤄져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잊지 않고 기억해주려는 국민의 마음에 감사하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마음을 전하고자 희생자 가족들은 매일 청소를 하며 방문객을 맞이했다. 당시 1, 3학년 학생들도 선후배를 생각하며 교실을 청소했다. 이는 가까운 이를 떠나보낸 상실의 아픔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애도의 실천 활동이다. 교실에서 아이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떠오르는 것은 이곳이 가진 일상적 기억이 소환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이들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이가 직접 쓰던 물건, 내 아이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물건이 있는 곳이 기억 교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은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수업하며 꿈을 키워갔던 공간이면서, 친구들과 가장 즐겁게지내면서 마지막 웃음소리가 머물렀던 장소이기도 해요(이지성 소장인터뷰)."





그림 72. 학생들 교정 내 단체 사진 그림 73. 단원고 기억교실 존치 4.16기억저장소

단원고 기억 교실에는 떠난 이들을 그리는 전 국민의 마음을 담은 편지와 메모가 쌓였다. 원형 그대로 남은 장소를 기반으로 추모하고 기억하는 의미가 부여됐다. 유가족들에게는 아이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기억의 장소이며, 시민들에게는 애도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의미화된 장소이다. 기억교실은 단순한 추모공간으로 볼 수 없다. 그 속에는 아이들을 기억하고자 했던 부모들의 노력, 낡은 교육 현실을 개혁하고자 했던 국민들의 의지,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경각심이 서려 있는 장소이다(박진형, 2021).

기억공간이란 과거의 어떠한 사건의 상징적 의미를 재현한 장소를 말한다. 기억교실은 아이들의 오랜 머무름으로 추억이 쌓여 장소화된 공간이며, 그 누적된 가치와 의미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장소이다. 유가족들은 교실을 있는 그대로 존치하여 의미를 살리고, 역할을 지속화하여 기념비적 상징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미수습된학생들도 아직 있고, 진상규명이 밝혀지기 전까지 기억교실을 존치할것을 요청했다. 또한 재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며, 교실을 없애는 것이 아닌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 방안은 아이들의 교실을 그대로 둔 채 새로 교사를 중축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재학생 학부모들은 이 제안을 반대했다.107) 단원고 교실 존치를 둘러싼 재학생 학부모들은

¹⁰⁷⁾ 박기용 (2015.12.04.). 시간이 멈춘 교실은 어디로 가야 하나. 한겨레.

과의 사회적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2015년 신입생을 받았으나 3학년 이 된 아이들의 수가 적어 교실이 부족하진 않았다. 하지만 2016년 신입생을 받으면 새로 12개 반을 편성해야 했다. 재학생 학부모들은 신입생들로 인해 교실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억교실은 더 이상 단원고에 존치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기억교실은 죄책감, 불안, 우울감 등의 심리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공간이다. 방과 후 학습을 할 때 기억교실이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이 복도를 오가다 매일 보게 되고, 야간 자율학습은 하지 못하게 되어 단원고가 전국 최하위 등급의 학업 성취도가 나왔다(강희청, 2016)."

4.16가족협의회는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기억교실과 마주 치지 않는 동선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도움을 받았다.

"그때 승효상 건축가를 소개받았어요. 당시 중국에 계셨는데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재학생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달 라고 요청했어요. 이렇게 건축을 했을 때 예상금액은 얼마고, 기한은 얼마가 걸리는지 구체적 자료를 부탁했어요(찬호 아빠 인터뷰)." 108)

"대형참사를 겪은 단원고 교실을 없애버리는 건 안 된다 했어요. 우리가 방안을 제시할 테니 같이 고민해보려고 했어요. 건축가와 현 장도 보며 도면까지 그려서 제안했어요(예은 아빠 인터뷰)." 109)

그렇게 추모공간과 교육공간을 최대한 분리하는 공간계획을 통해 재학생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벽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과 차단하고, 외부에서만 교실을 볼 수 있도록 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가족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2015년 9월 단원고와 경기도교육청에 단원고 교사 증축과 4.16기념관 건립을 제안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0480.html (검색일자 : 2021.05.30.)

^{108) 4.16}기억저장소 (2020). 그날을 말하다 : 찬호 아빠 전명선. 한울엠플러스. 4.16구술증언록 단원고 2학년 7반 제7권, p.505.

^{109) 4.16}기억저장소 (2020). 그날을 말하다 : 예은 아빠 유경근. 한울엠플러스. 4.16구술증언록 단 원고 2학년 3반 제12권, p.230.

단원고를 리모델링하여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혁신공간, 아이들이 친구를 만나는 기억공간, 그리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희 망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본 제안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 고 갈등은 더욱 증폭됐다.





그림 74. 교사증축(12개 교실 확보) 그림 75. 4.16기념관 조성(출입구 분리) 4.16기억저장소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한국 사회의 기억에 대한 태도가 선진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를 돌아보는 사회적 거울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1100 장소는 사라져 버리는 기억을 물질로 받쳐 주는 불변의 버팀목이 될 수도 있고, 기억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때에 따라서는 인간의 기억을 초월하는 기억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아스만, 1999). 유가족들에게 단원고 기억교실은 세월호 참사와 희생된 아이들을 기억하도록 하는 물리적 매체가 되는 기념공간이기 때문에, 보존을 통해 기억공간 조성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2015년 10월 26일부터 2016년 4월 8일까지 6개월 동안 교실 존치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했다. "흔적이 사라지면 기억에서 멀어집니다. 잊히는 순간 참사는 반복됩니다.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교실을 보존해야 합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희생된 아이들의 흔적이서려 있던 장소를 떠나야 했고, 인위적으로 다른 장소로 옮겨 가게

^{110)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당시 수십 명의 희생자를 낸 일본의 한 초등학교 건물이 현장에 보존된다. 일본판 기억교실이 된 이 학교 건물은 대지진 당시 얻은 교훈을 살려 나가자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존치의 길을 걷게 됐다(윤희일, 2016.3.27.).

됐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중재에 나서면서 상호대화의 자리가 마련됐지만, 그럼에도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며 존치 교실을 단원고에서 이전하는 것이 결정됐다. 이후 2016년 5월 9일 정부합동분향소에서 7개 기관¹¹¹⁾이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했고 4·16 안전교육시설의 건립 및 운영 등 협약 내용¹¹²⁾을 통해사회적 합의가 체결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20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임시이전하게 되면서 단원고 기억교실이 가진 장소성은 결국 사라지게 됐다.

지금은 사라진 단원고 기억교실과 새롭게 재현된 4.16기억교실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다뤘던 추모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킨 장소이다 (신혜란, 2016). 일반적으로 큰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추모행위 는 발생한 이슈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기억교실은 아이 들 각자의 흔적이 남은 책상과 의자를 중심으로 1반부터 10반까지 희 생자 250명의 숨결을 느끼면서 개인의 인격을 추모하게 된 사례이다. 아이들 개인이 쓰던 물품을 통해서 떠난 이들의 일상에 공감하며 마 음이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것이다. 박진형(2021)은 이를 방문자와 희 생자 간의 '관계생성적 애도' 형성이라고 했다. 아이들이 생전에 쓰던 물품, 개인을 기억하며 쓴 지인의 편지, 아이들 한명 한명이 품 은 미래에 대한 꿈은 세월호 참사라는 전체 사건을 넘어 250번의 특 별한 생각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생성적 애도 를 유발하는 공간이 단원고 기억교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억교실이 사라지게 됐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문제 로 인한 논란이 있었고, 결국 교실을 보존하지 못하고 과거의 흔적이 지워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¹¹¹⁾ 단원고, (사)4.16가족협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안산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¹¹²⁾ 협약내용은 $4 \cdot 16$ 안전교육시설의 건립 및 운영, $4 \cdot 16$ 추모행사 개최 및 지원, 단원고 교육 정상화 및 안산교육 발전, 단원고 내 기억공간 조성, 단원고 학교운영 참여협의체 구성, 기억교실의 한시적 이전 등이다. 그 이후 협약에 따라 $4 \cdot 16$ 안전교육시설(4.16민주시민교육원)은 옛 안산교육지원청 부지 4,840㎡, 지하 1층~지상4층 규모로 조성되어 추모공간 복원(기억교실 10개과 교무실 1개), 교육실 7개(영상실, 기록실 등) 조성됐다.

기억은 공간에 구현되면서 특별한 의미로 쓰이게 되고 시민들과 공유된다. 이러한 곳에 방문을 권유하면서 그곳에 담겨 있는 기억을 각인시키게 된다(육영수, 2016). 추모비,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 추모탑등 다양한 기억공간들에서 역사적·문화적으로 대두된 의미가 계승되거나 전수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단원고 기억교실이 존치됐다면, 인위적으로 조성된 전시관이나 박물관과 비교할 수 없는 상징성과 진정성을 가지는 기억장소가 되었을 것이다.

단원고 기억교실의 이전과 현장기억의 망각은 재학생들의 학습권 존중이라는 가치를 우선함에 따라서 불편한 양보와 불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 김교빈 외(2015)는 진정한 애도와 치유의 과정은 끊임없이 기억하는 과정이자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활동을 통해 고통의 기억을 적극적으로 망각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기억하는 행위를 통해서 망각을 이해하게 되고, 망각하면서 또 다른 기억을 확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던 기억교실이 사라진 것은 역사적, 상징적 보존 및 장소기억의 관점에서는 너무 아쉬운 일이다. 이후 소멸된 단원고 기억교실은 새로운 곳으로 이전·재현되었고, 4.16민주시민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단원고를 떠나면서 미완의 기억의 장소가 되었지만, 당시 교실 모습 그대로 복원되어 의미를 전달하는 데 크게 기억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정치적 이념 차이에 따른 가치대립

1. 왜곡된 정보 생산 및 배포 : 광화문 세월호 광장

김수이(2004)는 기억과 망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시간'과 '상처'라고 했다. 먼저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세월이 지나면 무의 식적으로 흐려지면서 기억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망각된다. 하지만

깊은 상처가 남아있는 과거의 경우는 아무리 기억을 지우고 싶어도계속 되살아난다. 지속하고 싶은 기억과 지우고 싶은 망각의 경계는 너무 복잡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맡겨 자연스러운 변화에 따른다. 하지만 육영수(2016)는 과거에 발생한 역사 및 사건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새로 만들어지는 기억과 강요되는 망각 사이의 투쟁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 이념이나 불편한 진실 등을 이유로 정보를 왜곡하거나 망각을 강요하는 경우들도 있고,이를 저항하며 기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상황도 가끔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세월호 가족의 사회참여 활동을 헐뜯고 왜곡된 정보를 양산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유가족들이 보이는 행동이 감정적으로 과열되어 있다거나 도를 넘어선다는 비난과 함께 과도한 욕심이 내재하여 있다는 잘못된 여론이 형성됐다. 이영진(2014)은 "왜 우리 사회는 아직상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유가족들을 거리로 내몰고 외로운 싸움을하게 하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유가족들이 실제로 바라는 사회적 지지는 정작 물질적 지지나 금전적 보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이상한 루머¹¹³⁾들이 생산되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영향으로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돼 사회적 지지와 도움의 손길을 건네기 어려운 상황이 돼다. 그럼에도 유가족들은 아이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바람으로 추모와 애도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고, 생명안전사회에 대한 가치와 의미 공유, 진실의 왜곡 방지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했다.

그렇다면 왜 고통의 기억을 지우거나 불편한 진실을 왜곡하려는 노력이 집요하게 발생하였을까? 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기억과 망각의 치열한 싸움터가 되는 것일까? 이는 사회적 공감과 애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성향 및 이념논쟁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이

^{113) &#}x27;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고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보상금을 타내려는 의도 가 있는 것이다', '돈을 얼마나 더 받아내려고 하느냐?', '전국을 죽음의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졌다.

해관계를 가진 집단 간의 대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단순 일상적이해관계를 넘어서 정치적 신념문제로 비화해 갈등 양상이 심화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개혁가, 정치가, 망명가가 아니라 재난을 겪은 피해당사자이다. 상처와 아픔을 삭이고 있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애도하기보다는 가슴에 비수를 꽂는 잔인한 발언으로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행동과 목소리에 불편해하는 이들이 정치적 성향차이에 따른 이분법적 관계를 형성하여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지속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기억과 추모를 위해 만든 기억장소에 대해서도 집회, 시위 등 정치 선동 공간으로 인지하여 '망각을 통한 장소 지우기'이슈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시작된 곳은 광화문광장이었다. 2014년 당시 이곳은 분노가 들끓는 저항의 공간이었다.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유가족들이 대항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천막을 치고 '세월호참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했다114. 정치인, 시민단체, 노동계 및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했고, 2014년 8월 14일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 교수가 유민 아빠에게 "당신의 고귀한 행동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굳은 희망을 전하다."라는 서신을 보냈다¹¹⁵⁾. 8월 16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직접 만났고,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위로한다는 마음을 전했다(유상우, 2014). 이후 광화문에서 세월호 가족이주목받는 것을 불편해하는 이들이 '이제 그만 잊자'는 분위기 형성과 함께 혐오 정서를 퍼트리기 시작했다. 장기간의 공간점유를 끝내고 그만 잊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강요했다. 급기야 '일간베스트

¹¹⁴⁾ 조형국. (2014.7.14.). 세월호 특별법, 유족아닌 국민을 위한 것, 가족대책위 단식 돌입. 경향신 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142151595&code=910402 (검색일자 : 2021.6.20.)

Dear Mr. Kim Young Oh,I learned with deep distress that your daughter was a victim of the tragic ferry accident. And I was also informed of your hunger strike in an effort to induce the government to discover and reveal the truth about this shocking catastrophe, the least it can do, at the very least to help ensure that nothing like it will occur again. I would like to offer my firmest hopes that your honorable actions will have the impact they should(서보 미, 2014.8.14.).

회원'들과 '자유청년엽합' 회원 100명은 유가족의 단식농성을 조 롱하고자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는 퍼포먼스로 치킨 과 피자 등을 먹는 폭식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116). 상처받은 이들을 두고 특정계층에 의한 진보·보수의 정치 갈등을 전개한 것이다.

"광화문광장에 있는 동안 일베, 서북청년단, 엄마부대 등 얼마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일베 젊은이들의 폭식투쟁은 정 말 놀랐어요. 아무리 정치 성향이 달라도 아픈 사람들이 단식하고 있 는데 거기서 폭식 투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영석 아빠 인터뷰).117)"





https://news.joins.com/article/16678538

그림 76. 세월호 유가족 규탄 집회(엄마부대) 그림 77. 일베 폭식투쟁 현장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41611550894642

그 이후에도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지속되었지만, 유가족들은 흔들 림 없이 광화문 기억장소를 유지했다. 죽음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참 혹함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남기는 사회 참여 활동을 이어갔다. 그런데 2021년 7월 5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118)을 이유로 기억공간 철거를 통보했고, 기록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를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공사에 따른 이동에 협조하 겠지만, 공사 이후 생명안전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담은 공간을 재조 성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문

¹¹⁶⁾ 이상열 (2014.9.7.). 광화문 일베 먹거리 집회, 세월호 농성 이제 끝낼 때 강조.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news/view/46578 (검색일자 : 2021.11.12.)

^{117)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2019, p127) 영석아빠 인터뷰

¹¹⁸⁾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 면적을 1만 8840㎡에서 6만 9300㎡로 3.7배 확장하는 사업

제의 발단도 결국 서울시장 교체에 따른 정치적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서울시 입장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유가족·시민사회 간 입장 차이로 극한 대립이 벌어졌다. 기억장소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유가족들은 시위와 함께 노숙농성을 시작했다(박상연외, 2021). 다행히 강제철거로 인한 몸싸움은 발생하지 않고 서울시의회 중재로 의회 본관으로 임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함께했던 기억관은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공간을 함께 만들고 지켜온 시민들의 헌신을 통한 역사적사실과 감동이 배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무자비한 철거가 아니라정성껏 해체하기로 했다¹¹⁹. 설계를 맡았던 건축가와 시공에 참여한목수 등 기억공간 조성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유가족들의 헌신적 노력을 알기에 직접 해체 작업을 진행했다. 기억공간 조성을 염원하고 2년 동안 유가족 곁을 지킨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린 행동이다.

"광화문 세월호 기억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추모와 기억,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을 하는 열린 소통의 공간입니다. 광화문 조성공사가 끝나고 난 뒤 어떻게 다시 민주주의의 역사를, 촛불의 역사를 광장에 담을지에 대해 여러분모두는 꼭 고민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수진아빠 김종기 운영위원장 발언문)."

"기억장소 자진 해체를 통해서 광화문이라는 상징적 장소에서 사라지게 되었지만,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여 더 나은 장소에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호소문이다. 광화문에 있던 기억장소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럼에도 유가족들은 정치적 이슈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한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광화문에서 그간 쌓은 장소성이 다른 의미를 구현될 수 있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예은 아빠 인터뷰)." 120)

^{119) &}quot;기억공간을 해체하고 나무골조를 가족협의회 안산 사무실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가져가면 어떻게 활용할지 그걸 또 논의해야 돼요. 이것을 보관하는 이유는 여기에 수많은 시민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막 부셔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마음 아프고 맞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광화문 기억공간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도 있고요(최용락, 2021)."



그림 78. 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광장행동 프레시안 최형락(2021.7.31.)



그림 79.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이슈 경기신문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2021.7.25.)



오마이뉴스(2021.7.27.)



그림 80. 희생자 사진 이운을 위한 묵념 그림 81. 설계자 및 시공사 참여 자진 해체 직접촬영

방희조(2017)는 광화문광장에서 치유의 힘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곳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을 유 가족들만의 문제로 두지 않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더 나은 사회를 만 들기 위해 움직였다. 이곳은 유가족들에게도 마음껏 자신의 슬픔을 토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이었다. 아무리 얘기해도 풀리지 않는 분노와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들이 있고, 울어도 마르지 않는 눈물을 닦아줄 사람들이 있었다. 안정희(2021)에 따르면 충분히 슬퍼할 수 있 을 때 잊을 수 있고 죽은 이들과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녀는 우 리 사회가 애도와 슬픔의 시간을 주지 않고 기억 속에서 지우려 하 고, 슬퍼하고 싶어도 그만하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문제라고

^{120) &}quot;제일 중요한 건 공사 이후에 광화문광장이 시민광장, 민주주의 광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느 냐예요. 꼭 세월호만의 광장이 아니어도 돼요. 광장 민주주의 역사에서 세월호가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광화문광장이 세월호만의 광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광장으로서의 의미가 충분히 담겨서 시민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를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어요(상게서)."

지적했다. 광화문광장은 유가족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하는 장소로서 역할을 했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어 나름의 설득과 불가피한 타협 등의 과정을 경험했지만,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상징적역할을 한 기억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을 통해 아픔의 기억을 함께 나누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강한 결속력을 만들어 낸 것이다. 비록 이념논쟁에 따른 오해와 불신의 감정으로 광화문광장에 있던 장소는 소멸하였지만, 그곳에서 발현되었던 에너지를 모든 이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에 왜곡된 정보로 인한 이념논쟁을 극복한 이후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이슈의 정치적 쟁점화 시도 : 250명 희생자 봉안시설

정치적 쟁점화와 이념논쟁은 2018년 지방선거 때 화랑유원지 내 4.16생명안전공원 조성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안산은 가까이 살던 이웃에 대한 죽음 이슈가 오랜 기간 진행되면서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시민 모두가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도시이다. 세월호 참사의 문제를일상에서 접하는 것을 불편해하며 이로 인한 정서적 우울감 비중이높았다. 이에 따라 혐오시설로 인지할 수 있는 기억장소 조성에 부정적인 의견들이 등장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기억장소 형성과정에서 공감대와 연대의 의지가 강하게 비친 것에 반해, 안산은 추모공원 건립에 적대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지역사회 분위기로 인해 안산시장 정책 공약에서 추모공원 조성 찬성과 반대에 대한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다. 당시 야권 출마자들은 '화랑유원지 납골당 결사반대'구호와 노골적인 반대 문구121)를 내걸고 세월호 이슈를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했다. 이에 따라 선거집회에서는 추모공원이 주요 화두가 되었고, 세월호 때문에 소비심리가

¹²¹⁾ 지역시의원 선거공보물에 "집안의 강아지가 죽어도 마당에 묻지 않잖아요? 하물며 도시 한 복판에 이것은 아니지요?" 이와 같은 문구가 적혀있었다. 세월호 희생자의 죽음을 강아지에 빗대 표현한 것이 크게 논란이 되었고, 유가족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줬다.

위축되어 지역경제가 침체했다는 자영업자들이 추모공원 조성 반대 측 입장에 동의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선거는 끝났지만 세월호 참사 망각을 주장하며 기억장소 지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봉안시설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고민과 노력이필요했다. 비난만을 하는 것은 공동체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근본적 원인을 찾고, 그로 인해 발생한문제를 완화할 방법을 탐구해야 한다(김서경, 2015).



그림 82. 지방선거 추모공원 반대 공보물 4.16가족혐의회



그림 83. 정치적 악용반대 유가족 호소 4.16가족협의회

기억공간은 갈등이 걸림돌이 아니라 추진력이 될 수 있다(신혜란, 2016; 진예린, 2020). 기억공간에 대한 견해 차이는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타협을 이뤄 갈 수도 있다. 사회적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두를 위한 기억장소가 될 수 있다면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는 높아지는 것이다. 김명희(2019a)는 재난 상황의 치유는 개인적이고 의학적 차원으로의 문제해결보다는 사회적이고 관계적 차원의 통합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했다.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들은 복잡한 과정에서도 보존하고 쟁취해야 할 것들을 지켜냈고, 합의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은 자진 해체 혹은 이전을 결정했다. 지난 과정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어 갈등을 해소하게 됐다. 4.16생명안전공원도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갈등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지

금은 이해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의미를 정착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의미가 '제5장 대안적 장소형성'의 성과로 제시되었고, 이것은 재난 극복 치유회복을 위한 특별한 방안이 됐다.

기억과 망각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 및 상호 필요에 의해서 보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기억장소로 인해서 발생한 어려운 상황들을 기억장소를 통해서 현명하게 해결하고자 했고, 이러한 문제해결 현상 및 과정을 '기억과 망각의 사회적 합의'라고 할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4.16생명안전공원의 봉안시설을 둘러싼 기억과 망각의 상황을 살펴보았고, 이로 인해 대두된 사회적 의미를 알아보았다. 특수한 목적을 가진 이들로 인해 오해와 불신을 유발하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었고, 이로 인해 정서적 편향 및 인지적 오류가발생하게 됐다(김서경, 2015)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장소들과는 다르게 소멸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왔고, 다른 차원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4.16생명안전공원은 왜곡된 해석을 바로잡고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제5장 대안적 기억 활동에 따른 장소 변용

본 장은 기억장소의 생성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차원의 대안적 기억방식을 구현한 '장소의 변용'과 연계되어 있다. 기억과 추모는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시키거나 형식적으로 동원되는 방식이 아니라¹²²⁾, 피해자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통한 사회적 공감으로 숭고한행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 주도의 기억은 특별한 사건·인물을 위하거나 불편한 진실은 감추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히려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됐다. 이에 대한 반감으로 등장한 것이 상향식 기억활동이며, 이는 시대적 현상을 반영한 결과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 성수대교 붕괴 사건, 씨랜드 참사 등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에 대한 기억과 추모 과정을보면 아쉬움이 크다. 당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고 피해당사자를 배려하는 추모와 애도를 하지 못했다. 그 사건을기억하는 장소들도 시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곳에 만들어졌다. 이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아픔에 대한사회적 공감과 대중적 애도를 위한 기억활동을 세월호 참사에서 정립했다(유해정, 2018). 김명희(2019a)는 기억과 추모 활동은 슬픔과 비애, 존중과 그리움, 미안함과 후회, 속죄 등의 감정이 나타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시민들은 아이들의 희생 책임이 본인과 사회에있고 그들의 못다한 삶이 기억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정서적, 도덕적 요인에 따른 집단적 감정을 형성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방식과다른 '상향식 기억활동123)'이 대두됐다. 본 장에서는 '상향식 기억

^{122) &}quot;과거 정부는 재난 상황에서 시민을 위문단 형식으로 동원했다. 재난수습을 선전하고, 이의 수용을 설득·계도하는 것의 시민의 책무였다(유해정, 2017)."

¹²³⁾ 한국사회는 정치·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기념비적 기억 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지금까지는 기념식, 의례 등 국가 주도의 '하향식 기억활동'이 주를 이루었다면, 새롭게 등장한 자기성찰적 주민주도형 '상향식 기억활동'의 중요성이 등장했다(김명희, 2019a).

활동'을 통해서 형성된 '대안적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가족들의 상황 변화 측면에서 대두된 '사적기억에서 공적기억으로 의미 확장'이다. 아이들의 유품이나 개인의 추억 등에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 특성이 잘 반영된 기억장소는 희생된 이들이 머물던 '아이들의 방'이다. 다음으로 나타난 특성은 희생자 죽음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전승하기 위한 유가족들의 사회적 실천과 역할변화이다. 이는 기억장소 전반에서 이해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이뤄진 활동이다. 이에 대한 과정과 의미는 다음 단계에서 상세하게다루었다.

사적기억에서 공적기억으로 확장은 개인적 차원의 기억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하면서 공공적 사고를 키우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의 미한다. 유가족,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개인적 감정 차원에서 다루 어졌던 사건과 장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도 상향식 기억활동을 통한 자발적 기억생성 활동으로 등장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흔히 우리 가 알고 있는 재난 참사를 경험한 피해자들이 가져야 하는 피해자다 움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역할 변 화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아이들을 떠나 보낸 엄마ㆍ아빠들은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행동가, 활동가 역할을 했 다. 그동안은 피해당사자들의 고통은 의료학적 치료에 집중했고, 사회 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기회는 마련되지 않았다(김왕배, 2019). 정작 중요하게 파악해야 하는 집단적 책임이나 원인 규명 등에는 소극적이 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최우선 가치 로 내세우면서 사회적 공감과 인식전환을 만들어가며, 광범위한 형태 의 추모문화를 확산시켜갔다. 광화문, 팽목항, 안산 그리고 전국을 다 니면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감정을 표출하는 추모활동이 전개됐다. 피해당사자가 선행하는 활동은 정책적 · 사회적 인식변화를 끌어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유가족 주체들의 개인적

상처와 아픔으로 남을 수 있는 것들이 기억장소를 매개로 사회적 기억으로 확산되고, 대중적 인식을 전환하게 된 사항을 다음 단계에서 분석하고 그 의미를 도출해 보고자 했다.

다음으로 대두된 특성은 '일상적 기억문화의 공존과 본질적 가치의 존중'이다. 재난 참사 이후 대두된 정체성과 장소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대안적 공간으로 형성된 기억장소들이 이러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이들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는 '일상적 기억'을 담아내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다. 그간의 기억장소들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불편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일상적기억장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개된 대안적 장소라고 할수 있다. 상호 간의 합의, 대중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른 가치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고, 이를 통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자 했다. 죽음의 공간으로 인지되는 기억장소의 이미지를 전환시킨새로운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일상적 기억'은 경건하고 엄숙한분위기를 형성하는 기억이 아니라 평범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상반된 가치가 공존하는 것이며, 대중들이 공감하도록 하고 관심을지속하게 되는 특성이 있다.

본질적 가치의 존중은 많은 사람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상적기억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사실에서 벗어나거나 과도한 자기해석이 들어가는 것을 유념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기억은 전해지는 과정에서 현재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되거나 다른 차원의 모습이 형성될 수 있기(전진성·이재원, 2009) 때문에 '대중화'와 '상품화124)'를 하는 과정에서 본질적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 본연구에서 다루는 기억장소는 상향식 기억활동으로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시도 속에서도 세월호 참사라는 근원적 가치를 유지하는 노력을

¹²⁴⁾ 테사 모리스 스즈키(2006)는 현대사회 기억행위는 다양한 매체로 인해 점점 상품화되고 있다고 했다. 기억문화의 저변확대를 통해 대중화 및 상품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이것은 과거의 상처를 미적으로 재현하는 것인 정당하며, 이를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 예술적 가치, 사업적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전진성·이재원, 2009).

전개했다. 이를 통해 또 다른 차원의 대안적 기억장소로 탄생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상세하게 알아보고 이에 대한 의미를 파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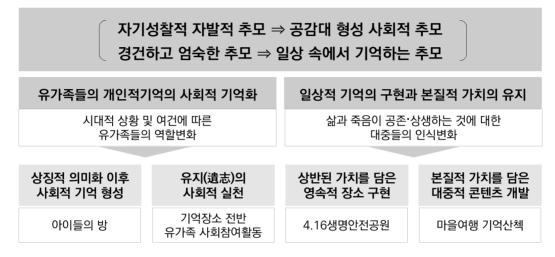


그림 84. '대안적 기억활동에 따른 장소 변용' 의미해석 과정

제1절 사적기억에서 공적기억으로 의미 확장

1. 상징적 의미화를 통한 사회적 기억 형성 : 아이들의 방

기억은 개인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일 수도 있다(전종한, 2009). 이는 기억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 사회적특성이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억이란 같은 시기, 같은 공간에서 발생한 과거 사건을 현재의 관점에서 사회구성원과 소통하고 반응하면서 남긴 흔적이다.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정보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계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된 인식이기도 하다(김영범, 1999; 심영섭, 2018).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만드는 기억도 존재하지만, 많은 양의 정보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혹은 타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이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억의 주체가 개인일 때는 '사적기억'이지만, 사회구성원이 함께 경험했던 공통의 내용일 경우는 '집합기억', '집단기억', '사회적 기억'이라고 한다.

본 장에서는 희생된 아이들, 유가족, 지역주민들의 장소기억이 담겨 있는 기억장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각각의 주체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소기억의 개인적 경험에 따른 사적기억이다. 하지만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국민들이 실시 간으로 지켜보면서 개인의 아픔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고통의 집단기억'이 됐다. 희생된 개인 살아생전의 일상을 알게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회적 애도의 집단기억'이 만들어졌다. 또한 진상규명과 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유가족개인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함께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의 집단기억'도 형성됐다. 남겨진 고통, 죽음에 대한 애도, 공감의가치가 공유되면서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았고,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모두를 위한 사건이 됐다. 이렇게 사적기억이 집단기억으로 확장되면서 '개인적 기억'으로 남았을 이슈들이 '사회적 기억'으로 전환됐다.

본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화를 통한 사회적 기억의 형성'이다. 개인의 일상적 행동이 축적된 공간에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어 새로운 유형의 대안적 기억장소로 변용된 상황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는 '사적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사소한 행동과물건들에 특별한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대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적기억'이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사적기억의 공적기억화'라고 한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닐지몰라도 의미부여를 통해 가슴 깊게 남겨져 사회적 기억으로 각인되는현상이다. 개인적으로 참여했던 활동과 소박한 일상이 사회적 공감을얻으면 특별한 기억장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억장소는 '과거의기억'과 '현재의 기억'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며, 과거와 현

¹²⁵⁾ 세월호 참사의 사회적 충격이 큰 이유는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물속에 가라앉는 과정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생중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켜보기만 한 데서 나타난 무력감 때 문이다. 국민들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언론의 왜곡된 보도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다.

재를 이어주는 연결 매체 역할도 했다. 이로 인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개인의 죽음'이 '공감하는 죽음'이 되고, 고귀한 희생에 대한 강한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그간 우리가 인지하는 기억장소는 영구적 시설물이 설치된 물리적 공간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희생된 이들을 애도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일시적 장소와 아이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개인의 방'을 기억장소라고 규정하고 이를 살펴보았다. 희생된 아이들의 유품은 모르는 이들에게는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매개물이 된다. 2015년 4.16기억전시관에서 기억프로젝트 1.0 '아이들의 방' 126) 전시를 했다. 단원고 희생 학생의 방 사진을 통해 잃어버린 아이들의 꿈, 미래 등을 시각화하여 시민들에게 작품으로 보여주는 전시이다. 각자의 방, 유품들, 사진과 일기, 시민들이 남긴 선물등 일상적 물건들을 전시했다. 이현정(2019)은 모두가 '학생'이라는 동일 조건 속에서도 서로 다른 고유한 생활과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참사로 인해 그들의 소중한 삶이 사라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전시라고 했다.

"주인 잃은 아이들의 빈방은 우리에게 아이들의 부재(不在)만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 빈방 안에 고스란히 남은 흔적을 통해 희생 학생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비극적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유일한실재(實在)라고 볼 수 있다(유성애, 2015)."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소소하고 평범한 것들을 잃게 될 때가장 고통스럽다고 한다. 가장 익숙하고 일상적인 것들은 삶 속에 이미 너무 깊이 새겨져 있어 그것을 지우는 것은 매우 힘들다(제임스설터·케이 설터, 2010). 대부분 유가족은 지금도 아이들의 방을 그대

¹²⁶⁾ 전시일(2015년 4월 2일 ~ 2015년 5월 31일), 주관(4.16기억저장소, 기억공간re:born, 류가헌, 세월호를생각하는사진가들, 오마이뉴스), 후원(경기도, 경기도문화재단, 아름다운재단, 안산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참여작가(김민호, 김신, 김흥구, 노순택, 박김형준, 박승화, 성동훈, 이우기, 이재각, 임태훈, 점좀빼, 정영구, 조우혜, 조진섭, 최형락, 허란)

로 보존하고 있다. 그 사소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하는 것은 너무 참기 힘든 고통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지 바로 생활할 수 있게 과거 모습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

"아들이 내일이라도 다시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올 것 같아 아직도 매일 아이의 방을 청소하고 있어요. 수학여행 떠나기 전에 사용하던 물건들도 아직 그대로 있어요. 아직까지 아이의 죽음을 인정할 수없어서 눈물을 제대로 흘릴 수도 없어 이 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유가족 인터뷰)."

론 마라스코・브라이언 셔프(2012)는 죽음은 사소한 것들이 있던 공 간을 지우고, 그 자리에 고통이라는 짐을 채운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아이들이 떠난 빈자리에 또 다른 고통을 채우기가 힘들어 아직도 그 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사소한 것을 많이 알고 있는 사 이가 되면 진심으로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따라서 아 이들의 방은 유가족들을 위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놓여 있는 소 소한 물건을 통해 일반 시민들과 관계를 생성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사적기억'이 '공적기억'으로 전환되어 특별 한 의미를 가지는 기억장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추후 건립 될 4.16생명안전공원에는 아이들의 유품을 중심으로 상실전시장이 조 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50명 유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방 기억장소를 조사127)하고 있다. 아이들의 방과 기억물품을 기록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징적 의미화 작업이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상적 물건이지만 엄마, 아빠와 함께했던 추억이 부여되면서 특별한 재현물 혹은 기억장소가 되는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에서 묘 사된 글이 있는데, 유가족들이 말하고 싶은 아이들의 방이 존재하는 이유와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슬픔은 떠나간 아이의 빈방을 채우고 아이의 침대에 눕고, 나와

^{127) 2021}년 6월부터 유가족들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들의 물품을 조사하고 있다. 연구자는 2021년 8월15일 2학년 7반 오영석 군의 방과 그곳에 있는 유품을 대상으로 상징적 의미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함께 서성거리고, 아이의 귀여운 표정을 짓고, 아이가 하던 말을 흉내 내어 말하고, 아이의 사랑스럽던 몸 구석구석을 떠올리고, 아이의 형 상이 되어 주인 잃은 아이의 옷을 걸치네1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9941

그림 85. 기억프로젝트 1.0 전시 포스터 그림 86. 아이들의 방(2학년7반 오영석) 직접촬영

2. 유지(遺志)의 사회적 실천 : 기억장소 전반 유가족 참여 활동

세월호 참사는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던 가슴 아픈 사건이었고, 희 생된 이들의 가족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사고 수습 장기화, 세월호 정치화, 언론의 악의적 보도 등으로 인해 유가족 들은 심각한 외상을 경험했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29]. 특히 자식을 잃은 것은 미래가 상실된 것이고, 살아야 할 이유를 상 실하는 것이라고 했다¹³⁰⁾. 그럼에도 살아가는 이유를 찾기 위해 희생 된 아이들을 기억하고 세월호 참사의 가치를 알리는 기억문화 확산

¹²⁸⁾ 셰익스피어 희곡 「존왕」은 1596년 자신의 어린 외아들 햄릿을 잃은 직후에 쓴 것이다. 이 부분은 콘스탄스라는 여인이 어린 아들을 잃은 뒤 그 지극한 슬픔을 표현한 구절이다. 이는 부재라는 무거운 실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129) &}quot;세월호 참사 유가족 1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5.3%가 '죽고 싶은 생각'을 갖 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1.2%가 40대였는데, 우리나라 40대 일반인의 자살 충동률 6.1%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자살 충동 외에 세월호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갖는 심리상태 는 분노 88.2%, 죄책감 76.3%, 우울 75%, 무기력 71.1%, 절망 69.1% 짜증 69.1% 불안 59.2% 순 서로 나타났다(권민철, 2015)."

¹³⁰⁾ 안 안설렝 슈창베르제 · 죄프루아 에블린 비손(2014)

활동을 했다. 유가족들은 피해당사자가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되어 사회운동 차원의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애도하는 마음을 견인했다. 유해정(2018)은 유가족들의 투쟁과 시민들의 직접행동은 우리 재난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라고 했다. 이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피해자다움'의 특성과 다르게 유가족 스스로 사람들을 만나는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 재난 상황에서의 피해자는 국가 및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혜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 없이 의학적 치료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여자'가 되고자 했다. 이는 죽음 못지않은 고통으로 생긴 상처를 보듬고 아물게하는 처방이다(전진성·이재원, 2009). 이제는 더 이상 떠난 이를 그리워하며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을 인정하고 다양한 재현 활동을 전개하며, 그들을 기억하고 우리 사회의 변화된 태도를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점차 개인적 고통을 벗어나고자 했고, 희생이 교훈이 되는 사회적 기억을 확산하고자 한 것이다.

이경진(2014)은 유가족들의 이러한 활동을 산자로서의 책임이라고했다. 떠난 이들을 애도하며 왜 그런 죽임을 당했는지 납득할 수 있게 해야 그들을 편안히 보내줄 수 있다고도 했다. 따라서 유가족들은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단순하게 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지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현재를 만들어갔다. 이는 유가족 본인의 고통을 승화하고, 자기 효능감을 증진하려는 노력의 과정이라고 본 것이다. 김민정(2018)에 따르면 유가족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과정은 끔찍한 사고를 잊어서가 아니라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 자체에서 시작된다.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도 의료나 금전 보상이 아니라 거짓 없는 진실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권에 입각한 관계 치유가 필요한 것이다(김왕배, 2014).

이렇게 세월호 참사의 가치 확산과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환점 마련을 위한 노력은 기억장소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이 공간을 통해 투쟁과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실천 활동도 했다. 이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상처 극복을 넘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실천적 참여 활동이다. 노다 마사아키(2015)는 이와 같은 변화를 죽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동안 고인에게 향했던 마음을 사회로 돌리는 '유지(遺志)를 실현하는 사회화 과정'이라고 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참사의 비극성을 더 많이 알리는 사회적 공론화 역할을 하고, 왜곡되지 않은 집단기억을 생성하고자 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다시는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형성을 위한 활동이 지속될 수 있게 기억장소를 조성한 것이다. 이곳은 시민들과 유가족이 함께하는 일상적 공간이며, 때로는 혁신적 변화를 만드는 거점 역할을 한다. 유가족들이 주체가 되어 공간을 조성하거나 운영했고, 이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유가족들의 이러한 사회참여는 희생자들을 잊지 않는 사회적 애도를 확산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가까이에서 늘 힘이 되어준 이들에게도 지속적인 연대의 마음을 바라는 것이다(진예린, 2020).

세월호 참사 이후 만들어진 다양한 기억장소에서 유가족들의 사회 참여 활동이 전개됐다. 특히 문화예술을 매개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활동을 주로 했다.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시작 했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이제는 기억장소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나 눔을 실천하는 문화활동으로 자리를 잡았다. 엄마들이 중심이 되는 4.16공방¹³¹⁾, 아빠들이 중심되는 4.16희망목공방¹³²⁾, 4.16극단¹³³⁾, 4.16

^{131) 4.16}공방은 유가족 엄마들이 바느질을 매개로 서로 아픔을 나누던 공간에서 출발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세월호 가족과 함께 손으로 만들고 이야기를 나눕니다.'라는 비전을 토대로 공예를 통해 치유의 장을 만들고, 세월호 참사 의미가 확산하도록 지역사회와 더 깊고 넓게 만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엄마랑함께하장, 화랑피크닉 등의 축제를 직접기획·운영하며 문화를 매개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교류소통의 장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

^{132) 4.16}희망목공방은 2015년 4월 안산 화정교회 박인환 목사와 용인 고기교회 안홍택 목사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다. 세월호 아빠들이 목공작업을 통해 아픔을 달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공간이다. 2019년 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아빠 4명과 엄마 3명의 구성원이 꾸려가고 있다. 도마나 우드펜, 칼림바와 같은 악기, 스피커 등의 목공예품을 만들어 직접 판매하며 현재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로 선정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133) 4.16}가족극단 노란 리본은 2015년 10월 참사로 상처와 아픔을 가진 유가족들을 위한 연극 치

합창단¹³⁴⁾, 4.16봉사단¹³⁵⁾은 가족들의 공간을 거점으로 공예, 연극, 음악 등 문화예술을 매개로 세월호 참사 의미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엄마랑 함께하장', '화랑피크닉'등 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수익금으로 사회적약자를 지원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안산의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여 4.16늘풂학교¹³⁶⁾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엄마·아빠들이 선생님이 되어 희생된 아이들 또래의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학교, 대안공간 등 특별한 기억장소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떠난 이들의 주변에 고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승화시켜 낯선 사람들과 관계하고 자신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기위한 능동적 활동을 했다. 이것은 아픈 기억을 지우는 망각을 통한치유 과정이 아닌 과거를 새롭게 기억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행동이다(김교빈 외, 2015). 이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가지는 개인적 고통이 승화되어 타인에 대한 헌신으로 바뀌게 된 특별한경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유목적으로 처음 창단됐다. 하지만 그 이후 세월호 참사 의미를 연극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리고 확산시키고자 직접 작품을 연출하여 전국 순회공연을 하고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장기자랑〉, 〈그와 그녀의 옷장〉 등이 있다.

^{134) 4.16}합창단은 세월호참사 견디지 못할 슬픔을 음악으로 이겨보고자 2014년 만들었다. 유가족 과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일반 시민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알리고 함께 해준 것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공연을 하고 있다. '2019 인권의 날 기념식', '이한빛PD 추모제'등 아픔을 나누는 많은 행사에서 위로의 노래를 전한다.

^{135) 4.16}가족나눔봉사단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사 이후 오랜 시간 슬픔에 함께 공감하고 힘이 되어준 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자 만든 조직이다. '우리는 희망을 퍼뜨립니다.'라는 슬로전으로 마을을 가꾸는 일, 씨앗을 심는 일, 아픔에 공감하는 일, 온기를 나누는 일 등 내일의 희망이 필요한 곳에서 늘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

^{136) 4.16}늘풂학교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통해 '생명존중'과 '안전사회'라는 가치를 배우는 학교다. 별이 된 아이들의 존재를 마음속에 품고, 청소년들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풀어가는 방식을 배운다. 이곳의 선생님들은 세월호 참사로 꿈 많은 18살 아이들을 잃은 엄마, 아빠들이다. 4.16공방, 4.16가족나눔봉사단, 4.16목공소, 4.16가족극단 노란 리본, 4.16합창단이 중심이 되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림 87. 4.16공방 화랑피크닉 축제 안산시 제공



그림 88 4.16희망목공소 시민교육활동 https://www.nocutnews.co.kr/news/4735273



그림 89 4.16늘풂학교 선생님 _{안산시 제공}



그림 90 4.16늘풂학교 홍보포스터 안산시 제공



그림 91 세월호 참사 유가족 주체적 활동조직 4.16가족협의회 제공

다양한 기억장소 가운데 광화문광장은 유가족들의 사회적 활동을 전개했던 특별하고 의미 있는 곳이다. 2014년 당시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을 시작으로 시대적 전환점인 촛불혁명을 함께 했던 기억장소이다. 박래군(2020)은 2016년 광화문광장 촛불 시민혁명은 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이었고,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곳을 통한 유가족들의 주도적 활동은 시민들을 모이게 했고, 국민들에게 공감의 메시지를 전하며 역사의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이곳은 엄숙한 추모를 강요하지않는 열린 공간으로 유가족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시민들을 환대하는 기능을 했다. 처음에는 천막 및 텐트 등 농성장 공간점유에서 시작되었고,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등으로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게 됐다¹³⁷⁾. 이후 서울시와 유가족들의 협의를 통해 '기억과 빛' ¹³⁸⁾이라는 세월호 참사를 포함한 재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안전전시공간을 조성했다.¹³⁹⁾

광화문광장에서 특정 공간이 이렇게 오랜 시간 유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한민국의 중심 도심 한복판에 들어선 이 공간이 자연 스러운 풍경이 되기까지는 많이 이들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다. 국민 들이 유가족들의 깊은 슬픔과 아픔에 공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방

^{137) 2015}년 7월 14일 지저분한 천막과 접근하기 힘든 분위기로 인해 시민들과 관광객의 불편 민원이 제기되었고, 1차 공간개선 작업이 진행됐다. 이때는 주대관 건축가의 협력으로 그동안 농성으로 인해 점유하고 있는 분수공간을 다시 열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공간을 다시 조성하고, 안전에 취약한 텐트를 합판과 나무골조를 넣고 가림막 천막을 조성했다.

¹³⁸⁾ 기억과 빛은 천막의 절반 규모로 축소됐지만, 시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공간 조성 목표에 맞았고 유가족이 동의했다. 이는 2019년 3월 6일 서울시 열린광장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승인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거쳐 3월 19일 착공, 4월 12일 개관했다(이민아, 2021).

¹³⁹⁾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은 79㎡(약24평) 규모의 목조 건물이다. 2개의 전시실과 안전교육 시민 참여 공간, 진실마중대 안내공간으로 구성됐다. 또한 세월호 참사 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사진들이 진열된 공간도 마련됐다. 전시실1에는 박철우 작가가 희생자와 남겨진 자 모두가 안식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빛의 공간 'In Memory of Our April'이 전시됐다. '기억을 담은 오늘'을 주제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만진다'는 촉각적 교감을 원한다는 데 착안한 인터랙티브 조명 작품이다. 전시실2에서는 세월호 전시공간과 함께 영상을 관람할수 있다. 영상은 '그날의 기억', '기억을 담은 오늘', '내일의 약속' 세 주제에 따라세월호 천막에서 전시공간으로까지의 변화된 모습들을 담았다(김진흥, "광화문광장 기억과 빛 공간을 가다", 내손안의 서울, 2019.04.17.,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24191).

희조, 2017). 이 공간을 통해 또 다른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안전사회 염원이 대중들에게 인지됐다. 유가족들은 혼자 아픔을 삭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곁에서 함께하는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선미 외(2019)는 광화문광장을 고통받는 유가족들에게 공감과 위로와 힘을 더하는 문화, 함께 자유롭게 애도하는 문화, 사회적 변화를 외치는 문화, 다양한 구성원들과 더불어 사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충격에 빠진 모든 이들을 위한사회적 치유공간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이행했다. 그곳에서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어떤 위로가 힘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며 함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슬픔과 분노로가득 찬 유가족들은 자유롭게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 이 광장에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눔으로써 위로받았다.

"아이가 없는 세상에서 제가 무슨 의미로 살아가겠어요? 제가 나와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저는 여기 나와서 사람들 만나면서 이야기도 나누는 동안 나름대로 아픔을 많이 극복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웃을 수도 있네요(유가족 인터뷰)."

지금까지 유가족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적극적 사회참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합동분향소, 광화문광장, 아이들의 정원 등 기억장소와 연계하여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기도 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그들은 참고 슬픔을 잊어야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다움'이란 단어에 가둬두었다. 본 연구를 통해 상실의 아픔을 봉합하고 이를 승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를 치유하는 것이란 걸 알게 됐다. 재난 극복을 위해 피해자의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했다.



그림 92. 기억과 빛 내부 전시공간 내손안에 서울 제공



그림 93. 세월호 기억전시공간 '기억과 빛' https://dailian.co.kr/news/view/787360

제2절 일상적 기억의 구현과 본질적 가치의 유지

1. 상반된 가치를 닦은 영속(永續)적 장소 구현 : 4.16생명안전공원

심영섭(2018)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 발생한 대다수 사회적 참사는 공간과의 관계성을 가지면서 아픔의 기억을 담아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참사 당시의 흔적이 사라진 종결된 기록만 있을 뿐이지, 공간으로 현재화되거나 재현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김민환(2019)도 사회적 아픔을 겪은 이후 집합적 슬픔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 대부분이 '예외적 시공간140', 맥락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기억하는 것보다 망각이 강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아픔을 교훈으로 삼아 반성하기보다는, 불편한 진실을 감추려는 행동으로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가슴 아픈 참사의 경험을 공감하는 것보다는, 일상의 평범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드러나는 감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억과 망각', '정치적 이념갈등', '장기적 공간점유 한계' 때문에 기억장소를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¹⁴⁰⁾ 김민환(2019)은 성수대교 붕괴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대구지하철 참사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이들 공간 모두가 일상공간과 격리되어 있고 시간적으로도 특정한 날짜에만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했다. 시공간적으로 동일한 문제점이 있는 이러한 것을 예외적 시공간이라고 했다.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죽음의 장소는 경건하고 엄숙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그러한 장소가 주민들의 삶의 영역에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워했다. 세월호 참사 이슈에 대한 불편함과 피로감이 크고, 주민들의 일상적 공간 근처에서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추모를 위한 기억장소 조성 문제는 인식의 전환을 통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의 추모행위와 기억장소 조성은 행정주도 혹은 특정 기관 및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사회적 인식개선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지 않으면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이에 유가족들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추모와 애도 공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정하고자 했고, 오랜 시간 동안 험난한 과정을 이겨내 왔다. 백선경(2020)은 아래로부터의 참여로 이뤄지는 활동은 공간을 조성한 이후에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며, 다수의만족을 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적 지지와 대중적 공감을 끌어내어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억장소는 이렇게 그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대안적 역할을 위해 생성된 공간이다.

대안적 기억장소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는 '일상에서의 기억하기'이다. 기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아직 단 한 번도 구현되지 못한 불확실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먼저 설정했다. 살아남은 이들의 일상을 존중하면서, 떠난 이들의 가치와 의미를 이어갈 수 있는 삶과 죽음의 공존 이슈를 푸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었다. 그간의 추모공간을 살펴볼 때 상호 간의 다름이 공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필요했다.

김명희(2019b.)는 생활 속 추모공간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피해자들의 자연스러운 추모 활동을 통해 사회로의 복귀와 일상치유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피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하는 공통의 기억을 생성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전진성・이재원(2009)은 다

수가 공감하는 충실한 공공성, 삶의 안정성 도모, 일방적 행복을 강요하는 이상적 공간이 아닌 이질적인 가치들이 공존하는 곳이 진정한의미의 기억장소라고 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이 공간은 죽음의 공간이 일상에 존재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이들을 위해 문화적콘텐츠를 강화하여 대화와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연결의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계를 통해 독점하는 것이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삶과 죽음'뿐만 아니라 '거짓과 진실', '긍정과 부정' 등 상반된 의미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과거·현재·미래'를 오가며 시공간을 넘어서는 일상적 추모공간 역할을 했다.

이러한 기억장소 특성을 '영속(永續)의 기억공간'이라고 한다. 과거의 기억을 의미 있게 유지하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하며, 미래지향적 변화를 만들어가면서 영원히 계속되는 공간을 뜻한다. 김분선(2017)은 푸코의 헤테로피아141)의 상징적 의미를 제안하면서 하나의 공간 안에 영속의 시간을 담아낸다고 했다. 특히 중요하게생각했던 점은 그 공간에서 시간을 점유했던 주체들과 흔적 공유이다. 이는 현재와 다른 과거에 있는 제약된 주체들과 영속적 시간의개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속적 기억공간'은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 삶과 죽음의 시간 경계를 넘어 공간에 함께머물면서 특별한 의미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속적 기억공간의미는 세월호 참사 이후 만들어진 모든 공간에서 담아내고자 노력했고, 좀 더 대중적이고 시민들과 함께 지속 공유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4.16생명안전공원142이다.

¹⁴¹⁾ 김분선(2017)은 푸코가 1984년 출판한 "다른 공간들(Des Espace Autres; other spaces)" 에서 다룬 헤테로토피아(hétérotopie; heterotopia)는 배려주체공간이라고 재해석하며 몇 가지 특징을 설명했다. 유토피아가 제시하는 이상적 관념을 실존하는 공간에 투여한 공간, 공간의 질서를 해체하는 초시간적 공간, 자기와 타자가 공존하는 공간, 인간의 일탈적 쾌락과 판타지를 실제 삶에서 재현하는 공간 등의 특징을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특징 가운데 공간에서 구현하는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시간성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¹⁴²⁾ 대상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남측 23,000㎡(연면적 9,962㎡) 규모이다. 예정된 공사비는 49,500백만원이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94. 화랑유원지 내 4.16생명안전공원 대상지 (국제공모전 지침서 인용)

4.16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을 기억하는 추모공원이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담고자 하는 바람으로 명명된 가칭이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제36조143)에 따른 국가지원 사업으로, 현재 8곳144)에 흩어져 있는 250명의 유해145)를 한곳에 모아 세월호 참사의 가치와 의미를 확산하는 목적으로 구현된다. 2019년 9월 국무조정실 심의의결을 통해 추모시설 495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146). 세월호 참사는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했고, 모두의 마음에도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다. 이러한 큰 아픔과 슬픔에 대한 애도와 희생으로 인한 염원, 그리고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공간 조성을 목표로

^{143)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에 따라 국가 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공간은 특별법에 따라 4·16 재단에서 전문가 지원을 통해 직접 운영하게 되어 있다.

^{144) 2018}년 1월 1일 기준 단원고 학생 및 선생님 안치현황 : 안산 하늘공원 100명, 화성 효원가족 공원 59명, 평택 서호추모공원 85명, 기타지역 19명(안산시청 홈페이지 세월호참사현황 안내)

¹⁴⁵⁾ 인천광역시 부평구 추모관에 안치된 일반인 희생자와 현충원에 안치된 선생님들을 제외하고 안산시 단원고 학생 250명을 기억하기 위해 조성되는 공간이다.

¹⁴⁶⁾ 추모시설은 문화·편의시설 등이 복합된 새로운 개념의 문화공원으로 조성되며, 희생자 봉안 시설은 일반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예술적 요소를 가미한 지하화 등 비노출 형태로 건립될 계획이다(2019년 9월 국무조정실 지원추모위원회 제7차 심의 의결 사항).

하고 있다(4.16안산시민연대, 2019). 한국도시설계학회(2017)에서 진행한 추모공원 부지 선정 연구결과에 따르면 화랑유원지는 단원고 가까이 있다는 상징성, 외부에서 방문하기 좋은 접근성, 이용과 설치의 용이성 등이 높게 평가됐다. 화랑유원지는 단원고 희생자들이 친구들과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내며 즐거운 기억을 갖고 있는 곳이면서 전 국민이 추모와 함께 안전사회 의미를 재인식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최종 입지 선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림 95. 유가족 참여 반별 공론장 직접촬영



그림 96. 디자인 워크숍 결과발표 직접촬영

4.16생명안전공원 기억장소의 경우는 오랜 시간 다양한 사회적 함의 및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희생자, 유가족, 지역주민, 국민 등 모두를 위한 공원의 역할을 하도록 필요시설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는 시민지침서 준비 워크숍¹⁴⁷⁾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국제설계공모에 참가자는 디자이너들에게 지역사회 구성원과유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계획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유가족(12회, 177명)과 시민·청소년(10회, 153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담론¹⁴⁸⁾을 형성했다. 담론은 정책의 질적

¹⁴⁷⁾ 시민지치첨서 워크숍은 2019년 3월에서 7월까지 총 22회 논의 과정을 통해 진행됐다. 주관사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안산시민연대이고, 예산은 4·16재단에서 지원했다.. 본 연구자는 전문가 자문위원 역할을 하며, 참여디자인 워크숍을 함께 기획하고 진행했다.

¹⁴⁸⁾ 이 자리에서 도출된 내용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되새기는 공간, 참사와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 누구나 편히 즐겨 찾는 문화공간, 거부감 없는 시민 친화공간, 안전 과 생명존중을 배우는 공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 치유와 화합의 공간, 가족 과 다양한 사람들의 휴식 공간, 인지도와 명성 있는 랜드마크, 자연친화적이고 개방적인 공간, 희망과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다(4·16안산시민연대, 2019).

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분위기 전환에도 기여한다(박재창, 2009). 참여형 워크숍을 통한 담론형성 과정은 개인적인 생각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공감을 얻고, 지역주민들이 사회이슈에 직접참여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이용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 과정은 다른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수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시각적 이해력을 증대시켰다.

봉안, 추모, 기억, 전시 **기억과 약속 공간**

250명 안식처 봉안 공간(1,000㎡) 상징적인 의미전달 사회적 기억공간(1,000㎡) 세월호 참사 의미공유 기억전시공간(1,464㎡)

유품보관 확장가능성 고려 **수장고**(861㎡)

진상규명자료 열람 및 연구 라이브러리(165㎡)

> 세월호 참사 의미전달 **영상실**(165㎡)

생명안전가치확산 교육 활동공간

최상의 음향시설 **공연장**(200㎡)

다양한문화행사기변적활용 다목적홀(600㎡)

세미나, 워크숍, 스터디 **강연전용 교육실**(100㎡)

핸드메이드 만들기 체험지원 교육실(100㎡)

마루바닥(벽식거울) **신체활동 교육실**(100㎡)

지역사회와함께하는 조경 및 외부공간

별이된 아이들 집합적 기억 **야외 추모전시관**

꽃과식물을 통한 상호소통 메모리얼 가든

안산시민과 청소년 활동 광장형 외부공간

지역주민 피크닉 장소 **녹지형 외부공간**

대규모 야외공연 **공연형 외부공간**

세계적명소만들기 운영지원 공간

유가족 전용 소통공간 활동지원공간(200m²)

상품판매 및 전시체험 **기억상점**(100㎡)

다과 및 음료 판매 **카페테리아**(100㎡)

회의실, 주방, 휴게실 **사무공간**(520㎡)

장애인, 유아동반객 **전용 주차공간** (일반주차 최소화)

그림 97. 4.16생명안전공원 주요 기능 및 시설(안) 사회적 담론 형성과정을 통해 제출된 내용 연구자 재작성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환영받는 영속한 기억장소를 조성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공간이 안산시민 휴양시설인 화랑유원지에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일부 주민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 이는 추모공원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되었는데, 문제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것이 중요했다. 국내에 만들어진 추모공간 대부분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김민환(2019)에 따르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추모공원은 기억하고 반성하며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지 못하고 혐오시설로 인식된다. 이로인해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거나, 접근 불가능한 곳에 위치하여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149)이며, 이러한 공간들은 시민들로부터 물리적 거리가 멀어집에 따라서 점점 잊히는 현실이라

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김소라(2019)에 따르면 거대한 광장이나 공원, 높은 조각과 탑으로 대체된 기념비적 공간은 방문자에게 일시적 놀라움을 주지만 그 경이로움은 금세 휘발되는 일회성 공간이다. 일반적인 추모공원들의 현황이다. 이에 세월호 추모공원은 기존 공간들과 다르게, 시민 모두를 위한 일상적 공간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유가족들은 화랑유원지에 조성되는 세월호 추모공원이 다른 곳들처럼 특정한 날에만 방문하거나, 슬픔의 공간이 되어 보통 사람들이 꺼리는 공간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찾아와서함께 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선물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김민환, 2019). 경건하고 엄숙한 묘역의 형태가 아니라, 꿈과 희망을 이야기할수 있는 시민 모두를 위한 문화공간[50]이 되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유가족, 시민사회, 행정기관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 만들기 인식전환을 위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를통해 새로운 접근 방식과 차별화된 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끌어낼 수 있었다[51].

추모공간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미래 세대에게 역사적 가치와 교훈을 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Wasserman, 1998). 연구자가 사전에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세월호 추모공원은 희생된 아이들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 시민을 위한 휴식, 문화, 여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가치 창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¹⁴⁹⁾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등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고 성찰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들은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위압적인 추모, 위령탑 형태로 조성됐다.

^{150) &}quot;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끌벅적하면서, 희생된 아이들이 외롭지 않은 안식처가 되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방문하도록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가 생산하는 곳이 되도록 할 거예요. 잘 가꾸어진 정원과 울창한 숲을 볼 수 있는 휴양시설이 있고, 아이들 그림 대회와 청소년들 댄스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4·16가족협의회 추모부서 인터뷰)."

¹⁵¹⁾ 추모공원 관련하여 진행했던 사회적 담론 형성과정은 주민 및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추모공원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유가족 및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추모공원 모습을 알게 되었고, 혐오시설로 인지하며 반대하는 주민들의 생각도 이해했다. 도입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 이용자 맞춤형 공간구상 및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도 파악할 수 있었다(김도훈, 2020).

결과가 도출됐다(김도훈, 2020). 이러한 추모공원의 방향성을 근거로 2021년 2월 9일 4.16생명안전공원국제설계공모전¹⁵²⁾이 개최됐다. 국내·외 75개 팀이 작품을 제출¹⁵³⁾하여 1단계 심사에서 5개 작품을 선정했고, 그 가운데 이손건축 컨소시엄¹⁵⁴⁾의 안이 당선됐다. 당선작은 '추모에서 시작하여 가치창조와 향유의 장으로 진화한다¹⁵⁵⁾'는 것을 목표로 2024년 준공될 예정이다.

한국 사회는 삶과 죽음, 일상과 추모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을 의례화하고 추모의 공간을 일상과 격리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김성호, 2021). 따라서 추모의 공간이 삶의 영역과가까운 곳에서 위치하여 일상의 삶과 어울리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유가족의 염원을 받아들여 화랑유원지에 조성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제는 도심의 일상 시설이 되어 주민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을통해 가치를 확산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은 이를 위한 체계적인준비가 필요하다. 일상성은 단지 가까이 있어 접근성만이 좋은 것을의미하는 게 아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희생된 이들이 외롭지 않은문화적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원의 방문객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일상적 기억장소 역할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일상과참사, 삶과 죽음에 대한 상반된 가치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영속(永續)적 장소로서의 4.16생명안전공원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152) 4.16}세월호 추모공원 국제설계공모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 하는 봉안 시설과 전시교육시설 등이 복합된 문화공원의 계획안을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이 공모전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묻고 또 대답하는 기회로 삼고자했다. 4월 12일 1단계 결과를 발표하고, 6월 30일 최종 당선작 및 입상작을 발표했다. 전체사업비는 365억 원, 공모 대상 공사비 310억 원이며 당선자에게는 설계비 16억8190만원이 주어진다. 본 공모전을 위한 공모지침서 및 제공자료 작업에 연구자가 직접 참여했다.

¹⁵³⁾ 참가등록 231개 가운데 18개국 75개팀(국내35, 국외40) 접수

¹⁵⁴⁾ 디자인 총괄 : ㈜이손건축 건축사사무소 손진, 건축 : ㈜기오헌 건축사사무소 김남형, 조경 ㈜ 안팎 정주영, 전시 : 임여진, Mark Wasiuta

¹⁵⁵⁾ 모든 공간을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할 수 있는 빛의 광장을 중심으로, 일상적 문화의 생산과 소비할 수 있는 가치제작소 건물과 세월호 기념물과 기념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억과 생산물 저장고 건물이 구분되어 조성된다. 250명 아이들의 안식처 봉안시설은 하늘로 열려있는 원형평면의 이형 돔 공간이다. 외부공간에는 들꽃언덕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쉼터및 피크닉 장소를 제공하고자 했다(당선작 설계설명서 일부인용).



a : 두 개의 건물과 빛의 광장 조감도



b : 주변 시설과 연계한 계획안



C : 메모리얼 가든 : 들꽃언덕



가든 : 들꽃언덕 d :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전시관 그림 98. 국제설계공모전 이손건축 컨소시엄 당선작품

http://416memorial.kr/

2. 사회적 관계로 형성된 대안적 치유장소 : 마을 내 거점공간

로버트 D. 퍼트넘(2009)은 시민단체, 이익단체, 취미단체, 정치단체, 자선단체 등 협력 가능한 네트워크가 다양하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전국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단체가 조직되었고, 상호 간의연대와 네트워크 활동으로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노력이 전개됐다. 이들은 기억장소를 조성하거나 기존 기억장소를 운영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기억을 확산하는 활동을 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라는 특별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축된 연대체계 및 일시적 활동을 수행한 '연계형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김교빈외(2015)는 이러한 개인들과 조직들의 연대체계는 거대한 벽을 넘을수도 있고, 지역사회와 국가를 민주적으로 발전하도록 한다고 했다.

표 9. 대안적 치유공간 특성 및 운영 프로그램

구분	기억장소 특성	주요대상	운영프로그램
고잔복지센터 쉼과힘 (전 힐링센터0416)	단원고 옆 엘림하우스 누구나 방문하는 사랑방 안부를 묻는 나눔공간	지역주민 치유회복 목적 최근 지역 어르신 대상확대	어르신 놀이방 및 여가공간 마을역사 발굴단 구술기록 만개의 이웃창작 공방
A-Teen 생존자 문화공간 쉼표	단원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방문을 위해 학교 옆 연립주택 상가 위치	단원고 재학생들 세월호 생존학생	생존학생들의 자발적 프로그램(쿠킹클래스, 우드버닝, 마을카페 등)
치유공간 이웃	일상적 치유회복 위하여 마루공간 활용 소소한 활동 진행	세월호 유가족 희생자 친구들 세월호 활동가	치유밥상, 뜨개수업, 생일모임 속 마음 산책 및 토크 치유활동가 아카데미
와리마루	와동체육공원 내 위치한 작은 도서관 역할 물놀이장 문화공간	와동 지역주민	이웃대화모임 주민아카데미 와리마루 함께 신나는 토요일 4.16기억하는 주민한마당
복지관 네트워크 우리함께	부담 없는 방문을 위해 마을 내 일상 생활공간 연립주택 1층 거점활용	희생자 형제자매 가족지원	사회복지재난지원서비스 운영 학습멘토링 및 교류활동 지원 아이들의 편안한 휴식처
소금버스	대학생 5인운영 협동조합 건강증진 소금방 운영 연립주택 상기 2층	지역 청소년 세월호 생존학생	생존학생 일상회복 쉼터운영 자원봉사 학습 멘토링 작업장 학교(자수, 음악 등)



그림 99. 대안적 치유공간 현황

이들은 세월호 참사로 대두된 재난 극복 목표실현을 위해서 유가 족, 행정기관, 주변 단체들과 연계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했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확산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공간과 장소를 거점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박수경(2017)은 이러한

기억장소를 지역사회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대안적 치유장소라고 했다. 이들은 침몰하던 배에서 살아 돌아온 단원고 생존자들과 아이를 잃은 슬픔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엄마, 아빠, 형제자매들이 잠시 머물면서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 심리적 안정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 피해당사자인 이들이 결국 돌아갈 곳은 마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회적 관계 회복 활동도 지원하는 것이다.

민간후원 및 자체부담을 통해 조성된 대안적 치유장소들은 지방정부 혹은 국가가 재난현장에서 수행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파악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도 했다. 함께하는 조직들 상호 간의 연계형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자발적 시민참여를 활성화했고,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의제를 공론화하는 역할도 했다. 또한 다양한 이슈들을 의제화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난 극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이용숙, 2018).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지원하며,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데 이바지했다.

"안산 NGO들의 역할은 피해자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의제화시키는 한편, 재난 극복 및 지역사회 갈등 해결 등에 필요한 인적, 물적, 관계적 자원을 확보해 적재적소에 체계적으로 전달 및 활동을 했다(이용숙, 2018 : p.241)."

이러한 과정은 물리적 공간과 피해당사자, 지역사회 주체들과의 돈독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억장소에서는 밥 먹기, 뜨개질, 학습활동 등과 같은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일상활동에서부터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는 사회적 차원의 가치확산 활동을 했다. 이들 장소는 현재는 아쉽게도 대부분 사라졌지만, 연구자가 당시 참여 관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와동의치유공간 이웃, 고잔동 연립주택 내 위치했던 우리함께, 고잔동 상가건물에 있던 소금버스・쉼표, 단원고 옆 엘림하우스 힐링센터 쉼과힘. 와동체육공원에 있는 와리마루 여섯 개 공간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연계형 네트워크 단체들은 공동으로 기억장소를 만들었다. 이 는 '일상에서의 기억을 위한 공간 : 고잔동 소중한 생명길'이다. 지 역사회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민간주체와 행정주체가 협력하여 공간을 조성해 그곳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이다. 2015년 10월 16일 세월호 참사 1년 6개월이 되는 날 4.16세월호참사가족혐의 회, 고잔동 주민, 시민사회 단체는 단원고등학교가 내려다보이는 원고 잔공원에서 생명과 안전의 성지 고잔동 선포식156)을 가졌다. 본 행사 는 이웃들과 함께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하게 인지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며, 정부합동분향소에서부터 단원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길을 '소중한 생명길, 단원소생길¹⁵⁷⁾'이라고 명명하여 희생된 학생들을 기억하는 의미를 부여했다. 김홍선(2018)은 이 공간을 참사 이후 희생 자와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위해 현재를 바라보고 과거 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다리는 힐링을 위한 둘레길이라고 하며, 이 길 을 걷는 사람이 많을수록 마음의 벽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했다. 봄이 면 벚꽃이, 가을에는 단풍이 흐드러지며 고잔동의 사계절을 모두 담 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가장 사랑받는 공간이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고, 살았던, 등하굣길이 있는 동네입니다. 이 길에서 이웃들을 다시 만나 인사를 나누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의 추억이 깃든 이 공간에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자 합니다. 아이를 읽은 이유도 몰라 아픔도 분노도 많지만, 주민들에게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길이 소중한 생명길 단원소생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호성엄마 소생길 선언문 일부)."

^{156) &}quot;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성찰할 수 있는 성지, 모두가 자신의 희망을 키워가는 안전의 성지가 이곳 고잔동에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고잔동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성지가 되고자 합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을 그 가치에 어울리게 담아내고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는 성지가 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걷는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도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밝게 인사할 수 있는 온정이 넘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과 뜻이 담긴 성명안전의 성지 고잔동에서 성찰과 돌봄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함께 선언하고자 합니다(생명과 안전의 성지 고잔동 선언문 일부)."

¹⁵⁷⁾ 소중한 생명길은 '정부합동분향소 ⇒ 경기도미술관 ⇒ 화랑저수지 ⇒ 화정천 ⇒ 고잔동주민 센터 ⇒ 단원중학교 ⇒ 원고잔공원 ⇒ 단원고등학교'로 이어지는 1.5km의 탐방로를 말한다.

소중한 생명길은 고잔동 행정복지센터, 고잔동 주민자치위원회, 세월호 가족협의회, 명성교회, 힐링센터0416쉼과힘, 복지관네트워크 우리함께, 안산시 희망마을사업추진단¹⁵⁸⁾ 등 지역 NGO를 중심으로 행정기관단체들이 협력하여 장소기억이 남아있는 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당시 참여했던 조직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연대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희망적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재난피해지역은 지역사회 차원의 경제적·사회적·심리적·정치적 자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효율적 자원 운용에서 NGO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하다. 세월호 집중피해지역 고잔동을 중심으로 소생길 사업과 같이 개별 NGO들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를 돌보고 갈등을 봉합하는 움직임을 전개했다(이용숙, 2018). 이들은 대안적 치유장소를 중심으로 공동체 회복,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영하며, 다른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여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성호, 2021).

소중한 생명길 선포식 행사를 주도했던 기관은 힐링센터 0416 쉼과 힘¹⁵⁹⁾이다. 쉼과힘은 단원고 정문 바로 옆 건물에서 세월호 가족과 고 잔동 주민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함께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을 했다.

"자식을 잃은 엄마는 팽목항으로,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뛰어다닌다고 이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안산으로 돌아왔을 때 시민들의 굳어 버린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시민들을 만나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 힐링센터 0416 쉼과 힘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호성엄마 인터뷰)."

¹⁵⁸⁾ CCTV뉴스팀. (2015.10.22.).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이웃들, 소생길을 걷다, CCTV 뉴스레터, 2021.6.19. 인용: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98

^{159) 2014}년 9월 15일 재난의 슬픔은 서로 돌봄으로 '쉼'을 얻고, 치유된 슬픔은 생명과 안전을 위한 새로운 '힘'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안산명성교회는 선부종합사회복지관 (황인득 관장)과 연세대학교상담코칭지원센터(권수영 교수)와 함께 공간·재원·인력을 합하여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힐링센터 0416 쉼과힘 공간을 마련했다(김홍선, 2018).

특히 쉼과힘에서는 소생길 안내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고잔동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일 잘 해설하는 사람들' 마을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했다. 이는 마을여행 코스를 기반으로 최근 세월 호 가족과 고잔동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기억산책 프로그램으로 확장 되었고. 추후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기업 여행사 구성을 목표로 하 고 있다. 2015년 1월에는 단원고 옆 엘림하우스 4층 공간을 명성교회 와 단원고 2학년 양온유 학생 부모님 후원으로 '힐링테라스 온유의 뜰'을 함께 만들었고, 이후 김홍선 목사의 제안으로 꽃과 나무를 더 풍성하게 해서 '아름다운 정원, 소생의 정원'을 만들었다. 단원고를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소생의 정원은 매일 오후 4시 16분이 되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연주를 들을 수 있다.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 협업을 통해 쉼과힘에서 진행한 활동은 재난 피해자들이나 지역사회 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용숙. 2018). 안산시 복지관 네트워크 우리함께¹⁶⁰⁾는 당시 함께 했던 주민들 과 함께 과거에 대한 기억, 새로운 희망을 함께 담는 '학교 가는 길 : 단원고등학교 벽화'를 조성했다. 고잔동 학교 가는 길에는 단원중 학교와 단원고등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의 이야기가 쌓여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 길 곳곳에 함께 남기고자 한 것이다(우리함께, 2016).

"누군가는 슬픔으로 기억하는 길, 누군가는 입학과 함께 친구들과의 추억을 회상하거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며 등교하는 길, 누군가에게는 오래도록 살고 싶은 동네로 기억하는 방안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 4계절 풍경¹⁶¹⁾을 담은 우드벽화를 만들었다(박성현 인터뷰)."

¹⁶⁰⁾ 안산시 상록구와 단원구의 10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결성된 네트워크조직으로 고잔동 빌라 공간을 마련하여 희생 학생들의 형제자매 치유공간을 운영했다(박수경, 2017).

¹⁶¹⁾ 봄, 여름, 가을, 겨울 학생들의 다양한 고민과 우정을 주제로 담았다. 봄에는 '벚꽃이 피던 어느날 네가 그립다', 여름에는 사춘기 아이들의 진로 고민을 담아 '너의 일상과 고민이 궁금하다', 가을에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추억을 남기다', 겨울에는 졸업식의 이미지와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다' 등 다양한 그림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

벽화 안내판에 따르면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봄날 벚꽃 아래의 설레임, 여름 하늘의 태양만큼 뜨거운 청소년들의 고민, 가을 단풍 아래 산책하는 추억, 졸업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소소한 일상 등이 그려진 그림이다."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로 채워진 소생 길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나누고자 세계에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과 아픔을 넘어 희망을 만드는 장소이다. 희생된 아이들과 유 가족, 이웃주민들의 장소기억은 삶과 죽음의 성찰을 남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 NGO들이 중심이 되어 조성 및 운영한 세월호 참사기억장소들을 정리했다. 그간의 활동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국가 단위에서 할 수 없는 세심한 역할들을 수행했다. 이는 지역밀착형 재난대응 거버넌스의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유가족 및 지역주민 가까이에 있어 사회적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김서경(2015)이 연구에서 제안한 나의 일상과 관계없는 남의 집단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불행을 겪게 된 이들에게 마음을 헤아리고, 굳건한 연대를 통해 형성된 관계적 치유방식은 재난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그림 100. 소중한 생명길 지도



그림 101. 민관협력 소생길 걷기행사



그림 104. 학교가는 길 우드벽화(봄, 여름, 가을, 겨울)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지금까지 발생한 사회적 참사는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보다는 망각하고 외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왔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한국사회에 재난이 발생하면 초기에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지나간 사건 기록으로만 남게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경우는 재난 현장기억을 보존하고 확산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이 전개되었다. 희생자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를 교훈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연구자는 이러한활동이 기억장소라는 특별한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에 주목했다.

이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잊지 않게 하며, 새로운 변화를 위한 행동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억장소는 사회적 재난 대응 및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억장소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공간적 특성과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사회적 상황 및 여건변화에 따라 어떠한 생성변화 과정을 거쳐 왔는지 알아보았고, 그로 인한 특성 및 역할을 파악했다.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 있는 판단을 위해서 참여 관찰과 공간사회적 의미해석 연구방안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재난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기억장소라는 물리적 공간이 의미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해답을 얻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수습하고 대응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피해당사자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재난 상황에 대응했고, 이를 통해 전국화·지속화하는 성과를 도출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피해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견해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상황이 발생한 데에는 '세월호 참사기억장소'라는 물리적 매개체의 역할이 컸다고 보았다. 이곳을 통해 피해당사자는 슬픔을 표출하고 마음의 교감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의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관계 망이 형성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본 연구는 기억장소의 공간적 특징과 사회적 함의를 알아보는 공간사회적 의미해석이라는 방향을 설정했고, 현장 중심의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억장소의 개념과 그것의 사회적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세월호 참사의 아픈 기억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행복했던 추억들과 사회적 관계가 공간적으로 재현하거나 재구성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맥락분석을 통해세월호 참사 전개 과정을 복구집중기, 역할모색기, 소통확대기, 역량

강화기로 구분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특성을 도출했다. 이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이들은 공적주체와 민간주체로 구분했다. 정부 기관, 지자체, 전문기관 등은 법제도 및 예산지원에 따라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유가족, 일반 시민, NGO, 전문가들은 자발적인 참여로 활동을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해와 분석의 과정을 통해서 기억장소 생성변화 과정을 생산・소멸・변용이라는 3가지 단계로 구분했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간사회적 의미를 도출했다. 첫 번째는 '기억과 공감을 위한 물리적·비물리적 장소 생산'이라는 특징이 다. 물리적 장소는 팽목항, 동거차도, 침몰해역 등 재난현장에 아직 존재하며 현장의 기억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비물리적 장소의 형태 로는 선물, 편지, 촛불문화제 등 공감의 마음을 표출하는 공감장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정부합동분향소, 단원고 기억 교실, 광화문광장 등에서 발생한 '망각과 외면으로 인한 장소 소멸'이라는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는 가치대립과 이해충돌의 발생 으로 공간과 장소가 사라지게 된 상황이다. 세 번째는 기존 재난 참 사들과 다른 세월호 참사에서만 발견된 장소의 변용이라는 새로운 특 징이다. '대안적 기억 활동에 따른 장소 변용'으로 희생된 아이들 의 유품이나 개인의 추억 등에 의미가 부여되어 사회적 공감의 장소 가 되고, 떠난 이들을 위하여 남은 자들이 전하는 사회적 실천 활동 은 본 사건에서만 대두된 등장한 특별한 모습이다.

본 연구에서 세월호 참사는 기존 재난 참사들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현장의 기억과 사회적 의미를 유지하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기억장소가 가지고 있는 재난 극복을 위한 가치 확산과 공감 강화 효과를 확인했다.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의 경험은 추후 유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억장소에 기반한 재난 대응 및 운영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2절 시사점 및 제언

인간은 과거를 기억하려는 의지도 있지만, 때로는 지우고 싶은 망각의 사고를 하게 된다. 이는 떠올리기 싫은 악몽의 경험을 지워버리고 싶은 본능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고통스러운 기억 자체가 삶을 힘들고 우울하게 만들기에, 가슴 아프고 쓰라린 기억을 사라지게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건과 경험도 있다. 김교빈 외(2015)는 사회적·역사적으로 함께 겪은 고통의 사건들은 미래사회를 위해서 꼭 기억하고 전승해야 하는데, 세월호 참사의 경험이 그러하다고 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가 또 다른 사회적 재난을 대비하는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특히 기억장소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변화를 유발한 의미 있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가치와의미를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참사에서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과 제언을 했다.

첫 번째로 도출된 사항은 기억장소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재난 현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재난 현장은 공간 영역의 확장으로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사회적 재난 이후 생성된 장소를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을 달리하면서 대두된 현상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사건 발생 현장뿐만 아니라 추모활동이 이루어진 모든 곳이 기억장소가 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흔히 추모 장소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현장에 만들어진 박물관, 기념관, 추모비 등 물리적 공간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지고 운영된 장소가 전국적으로 형성된 것은 세월호 참사만의 특별함이다. 전 국민이 마음을 전하고자 일시적 공간점유로 사회적 애도를 위한 장소들이 만들어졌고, 이 모든 곳이 기억장소가 되었고 재난현장의 범주가 확장된 것이다. 헌화, 촛불, 편지 등의 방식으로 아픔에 공감하는 감정을 표출했고, 이를 통해 떠난 이를 기억하는 새로운 참여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이것은 사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방식이며, 사회적 참여와 실천 활동을 유발하는 대중적 애도의 공감장 역할을 했다. 이것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당위성과 가능성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162)

그리고 세월호 참사는 재난현장을 유일하게 보존하고 활성화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한국 사회는 재난이란 과거로 존재해야 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다. 기억을 통한 반성과 성찰보다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망각을 강요해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경우 여전히 팽목항에 가면 시민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이 남아 있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목포에 인양된 세월호 선체도 세월호 생명기억관이라는 영구적장소가 되어 역사적 교훈과 반성을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바라본 기억장소는 현장의 정체성 및 진정성을 간직하고 있다. 이는 재난현장의 아픔을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역사적으로 승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간의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의 경우처럼 재난현장이 기억장소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장소가 유지되고 활용되는 상황은 다른 사회적 재난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는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사점은 기억장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노력으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는 기억장소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입장을 고려하여 상호 간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에 관계회복 및 갈등해소요구가 제기되면서 일상적 기억장소라는 의미를 만들었다. 과거에 함께 했던 순간, 사용했던 물건, 만났던 사람 등의 일상적 기억이 특별한 장소와 관계를 맺으면 일상적 기억장소가 된 것이다. 사라져 가는

¹⁶²⁾ 비단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이러한 문화가 생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 이후 발생한 안 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사회적 애도와 추모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강남역 화장실 살해사건 피해 여성을 추모하는 공간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조성되었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 사건 이후에도 그곳에 편지와 선물을 전하며 애도의 공간이 형성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공공의 기억을 통한 사회적 추모에 대중들의 참여비율이 높아졌다(김성호, 2021).

기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상적 기억장소를 조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과거를 다시 읽고 현재와 미래를 재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일상적 기억장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기억장소는 경건하고 엄숙한 공간적 분위기가 드리워졌고, 주로 개인적 애도와 상징적 추모 활동이 이루어졌다. 특별한 날혹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방문하여 사회적 참여와 대중적 공감을 얻어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하고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현실적 방안이 필요했다. 이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희생자들을 기억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같은 기억장소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억이라는 단어 앞에 붙는 수식어에 따라서 상징적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 사회적 기억, 집단기억, 문화적 기억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용어이다. 이들 개념은 과거를 기록하여 남기고, 보존하며 지키고, 해석하여 재현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본연구에서 제안하는 일상적 기억은 과거와 현재의 연결, 삶과 죽음의 공존, 개인에서 집단으로의 확산 등 '기억의 영구적 존재와 지속적활용 측면'이 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혐오 시설로 인식되는 기억장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안된 이 개념이 다른 사회적 재난 애 적용되어 기억장소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다.

마지막은 기억장소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참여 증진 및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다.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적 관계를 설정하여 희생자를 기억하고, 사회변화를 위한 성찰적 활동을 했다. 특히, 사회적 참사의 피해당사자인 유가족들의 두드러진 참여 활동은 기존 재난 양상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현상이다. 그들은 재난 당시 아픔을 드러내고 표현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전개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다. 이것 은 가까운 이의 죽음으로 남겨진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확산하였으면 하는 염원을 담은 실천적 과정이다. 이를 통해 점차 개인적 고통을 벗어나고자 했고, 희생이 교훈이 되는 사회적 기억을 확산하고자 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재난 참사를 경험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다움' 의 인식을 바꾸었 다. 떠난 이들을 위하여 남은 자들이 무언가를 하고자 한 노력은 세 월호 참사에서만 대두된 특별한 과정이다. 유가족 주체의 능동적인 참여는 단순하게 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지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했 다. 그리고 고통을 승화하며 자기 효능감을 증진하는 결과는 트라우 마 치유의 과정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 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기억장소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물리적 공간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문화를 생산해냈다. 그간의 사회적 참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피해당 사자에 대한 공감과 참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가치 있고 중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 상황에 따라 참여 정도와 역할은 다르겠지만 기억장소를 통한 다양한 차원의 활동은 희생이 교훈이 되 는 사회적 기억을 만들어가는 뜻깊고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떠난 이를 충분히 애도하고 죽음에 대한 공감은 의료지원 혹은 금전 적 보상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며, 향후 발생하는 사 회적 재난에서도 중요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고영복 (2000). 사회학 사전. 사회문화연구소
- 권일 외 (2020). 모더니즘 건축에서 걷고 싶은 거리로 : 강병기의 도시계획과 설계 그리고 연구. 서울 : 한울아카데미
- 김교빈 외 (2015). 망각과 기억의 변증법. 서울: 이파르
- 김선미 외 (2019). 질적인 문화기술연구방법론. 서울: 피와이메이트.
- 김훈 (2019). 연필로 쓰기. 서울 : 문학동네
- 노다 마사아키 (2015). 떠나 보내는 길 위에서 : 대형참사 유족의 슬픔에 대한 기록 (서 혜영 역). 서울 : 펜타그램
- 로버트 D. 퍼트넘 (2009). 나 홀로 볼링 (정승현 역). 서울 : 페이퍼로드 (원서 2000 출 판)
- 론 마라스코 & 브라이언 셔프 (2012). 슬픔의 위안 (김명숙 역). 서울 : 현암사 (원서 2010 출판)
- 리베카 솔닛 (2012). 이 폐허를 응시하라 (정해영 역). 서울 : 펜타그램 (원저 2009 출 판)
- 마티나 뢰브 (2020). 공간사회학 : 물질성 구조 행위의 상호작용 (장유진 역). 서울 : 제 르미날 (원저 ?? 출판)
- 박래군 (2020) 우리에게 기억할 것이 있다. 서울 : 출판사 클
- 박순 외 (2016) 상담학 질적연구방법론 사례집. 서울 : 시그마프레스
- 아스만 알라이다 (1999). 기억의 공간 :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서울 : 그린비.
- 아스만 알라이다 (2003). 기억의 공간 (변학수 외 역). 경북대학교 출판부 (원저 1999 출판).
- 아주대학교 (2014). 지역사회 건강조사 기반 사회심리 및 안전인식도 조사, 질병관리본부,
- 안 안설렝 슈창베르제·에블린 비손 죄프루아 (2014). 차마 울지 못한 당신을 위하여 이별 과 상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가는 법 (허봉금 역). 서울 : 민음인
- 안정희 (2021). 기억공간을 찾아서. 서울 : 이야기나무.
- 앙리 르페브르 (2011).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서울 : 에코리브르 (원저 1974 출판).

- 양민철·김성률 (2016). 광장의 교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천막카페 이야기. 서울 : 새물 결플러스.
- 울리히 벡 (1997). 위험사회 :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역). 서울 : 새물결 (원저 1986 출판)
- 유해정 (2017). 남영호 참사와 문화적 외상. 시민사회와 ngo, 15(1). pp.291-327.
- 유해정 (2018). 정치적 애도를 통한 삶의 재건. 민주주의와 인권, 18(2), pp.181-220
- 윤택림 (2013).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강원 : 도서출판 아르케.
- 이재열·정지범 (2009). 재난에 강한 사회시스템 구축 : 복원력과 사회적 자본. 법문사.
- 전진성 (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하나. 서울 : 휴머니스트
- 전진성·이재원 (2009). 기억과 전쟁: 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서울: 휴머니스트
- 제임스 설터·케이 설터 (2010). 위대한 한 스푼 (권은정 역). 서울 : 문예당
- 제레미 리프킨. (2010). 공감의 시대 (이경남 역). 서울 : 민음사
- 조은 (2012). 사당동 더하기 25.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 지그문트 바운만 (2009). 유동하는 공포 (함규진 역). 서울 : 산책자
- 지바 마사야 (2017). 너무 움직이지 마라 : 질 들뢰즈와 생성변화의 철학 (김상운 역). 서울 : 바다출판사 (원저 2013 출판)
- 테사 모리스 스즈키 (2006). 우리 안의 과거 (김경원 옮김). 서울 : 휴머니스트
- 태지호 (2014). 기억 문화 연구,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팀 크레스웰 (2012).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 : 장소 (심승희 역). 서울 : 시그마프레스 (원저 2004 출판)
- 피에르 노라 (2010). 기억의 장소 : 공화국(김인중, 유희수 외 역). 경기도 : 나남 (원저 2005 출판).
- Antze, P., & Lambek, M. (Eds.). (2016). Tense past: Cultural essays in trauma and memory. Routledge.
- Casey, E. S., 1987, Remembering: A Phenomenological Study,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 Connerton, P. (1989).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흥식 외 역). 서울 : 학지 사 (원저 2013 출판).
- Halbwachs, M. (1992). On collective mem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yden, D. (1995). The Power of Place: Urban Landscape as Public History. Cambridge, M. A. MIT Press.
- Jan Assman. (1995).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Identity. New German Critique, No.65.
- Norberg Schulz. (1996). 장소의 혼 : 건축의 현상학을 위하여(민경호 역). 서울 : 태림문 화사 (원저 1984 출판).
- Past, T. (1996). Cultural Essays in Trauma and Memory. New York & London: Routledge.
- Spradley, James P. (2006). 참여관찰법 (신재영 역). 서울 : 시그마프레스 (원저 1997 출판)
- Tilley, Christopher. (1994). A Phenomenology of Landscape: Places, Paths and Monuments. Oxford: Berg Publishers.
- UNISDR. (2015). Bacic Terms of Disaster Risk Reduction.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Genova.
- Waugh Jr, W. L. & G. Streib. (2006). Collaboration and leadership for effective emergency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 pp.131~140.
- Wolcott, H. F.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Sage.

학위논문

- 노창현 (2019). 대중음악 복고 현상에서 문화기억의 작용방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 대학교).
- 박진형 (2021). 단원고 기억교실에 관한 기록학적 쟁점들과 그 함의 (석사학위논문, 명지 대학교).
- 백선경 (2020). 공적 장소 생산의 국내 공동체 참여 특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손은신 (2021). 현대 도시에서 기억 경관의 형성 과정과 표현 특성 (박사학위논문, 서울 대학교)
- 송정은 (2016). 지각작용을 통한 현대 건축 공간의 의미생성에 관한 연구 : SANAA. Steven Holl 의 건축 작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양차미 (2012). 비장소로서의 도시 카페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진예린 (2020). 기억 장소성의 생산과 재구성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학술지 논문

- 강진숙 (2008). 한국 비판언론학의 질적 연구방법 적용사례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3, pp.81-113.
- 강현철 (2016). 정책네크워크 관점에서 본 세월호 참사 갈등과정 분석. GRI 연구논총, 18(2), pp.127-152.
- 강현철 (2015). 세월호 유가족들의 삶과 우리사회의 과제, GRI 현안브리프, 경기연구원.
- 권지성 (2008). 쪽방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 사회복지학, 60(4), pp.131-156.
- 권지성 (2015). 사회재난 당사자들의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대도시 가스폭발 사고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2(1), pp.65-101.
- 김도균·박재묵 (2012).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실패와 재난 복원력의 약화: 관련 행위자들 간의 이해와 대응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16(1), pp.7-43.
- 김도훈 (2020). 도심형 메모리얼파크의 사회적 담론 및 인식분석을 통한 4·16 세월호 참 사 추모공원 방향성 제안 연구. 48(6), pp.25-38.
- 김도훈·정창기·김현수 (2020). 재난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4.16 세월호 참사이후 안산시 사례. GRI 연구논총, 22(2), pp.253-273.
- 김동일 (2017). 복합장으로서의 공감장을 위한 제언-[공감장이란 무엇인가-감성인문학 서론] 에 대한 사회학적 독해. 감성연구, 15, pp.31-55.
- 김명희 (2019a). 재난의 감정정치와 추모의 사회학 : 감정의 의료화를 넘어 사회적 치유로. 감성연구, 19, pp.145-178
- 김민정·박성민 (2013).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가 공직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정관리연구, 8(2): 29.
- 김민정 (2018). 재난사고 그 이후, 기억의 필요성. 글로컬 창의 문화연구, 7(1), pp.99-104.
- 김분선 (2017). 자기 배려 주체의 공간, 헤테로토피아. 근대철학, 10, pp.105-134
- 김서경 (2015). 재난 시대의 혐오. 진보평론(66), pp.70-90
- 김서영·이혁구 (2020). 세월호 참사 후 안산 시민의 갈등 사례연구 : 자영업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6(2), pp.169-195.
- 김성호 (2021). 4·16 생명안전공원의 공간적 의미. 기독교사회윤리, 50, pp.111-134.
- 김수이 (2004). 기억과 망각의 미궁에 대한 기록 : 윤재철, 이선영의 시를 중심으로. 오늘 의 문예비평, pp.64-76.

- 김은주 (2014). 들뢰즈의 행동학 (ethologie)—되기 (devenir) 개념과 실천적 의미. 시대와 철학, 25(2), pp.71-110.
- 김은주 (2016). 들뢰즈의 생성의 공간-변이하는 공간과 공간 생산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7(2), pp.7-37.
- 김익한 (2014). '세월호 기억 저장소'를 만들자. 역사비평, pp.12-24.
- 김연금 (2012). 커뮤니티디자인의 전개와 논의의 특징. 한국조경학회지, 40(3), pp.22-31.
- 김영범 (1999).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 소 사회과학연구, 6(3), pp.557~594.
- 김영욱·함승경 (2015). 세월호 침몰은 참사인가? 사고인가? : 비판적 담론분석 (CDA) 을 적용한 세월호 담론 경쟁. 홍보학연구, 19(4), pp.83-115.
- 김수영·성정숙·김주미 (2017).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의 동고 (同苦) 경험에 관한 연구 : "우리함께"의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복지질적연구, 11(3), pp.95-129.
- 김정훈·이일형 (2016). 시게루 반의 재난구조 가설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 연구, 17(2), pp.62-71
- 김준호 (2011). 공간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이해 : 현대 도시공간의 재구성을 위하여. 공 간과 사회, 21(4), pp.223-232
- 김헌식·양정호 (2014). 다크 투어리즘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적용 방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9), pp.176-187
- 김현희·이인규 (2011). 지역 갈등 해결과 사회적 합의이 길 : 원지동 추모공원의 사례, 한국 사회, 12(1), pp.65-110.
- 김홍선 (2018).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지역교회의 섬김 : 치유와 회복, 그리고 기억. 기독교 사상, 712, pp.77-84.
- 노진철 (2015). 재난에 노출된 공동체의 탄력성 위기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변화-세월 호 참사 사례의 안산시를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29(2), pp.133-179.
- 류태건 (2014). 사회자본론의 시각에서 본 시민참여와 호혜성의 관계. 지방정부연구, 18(1), pp.465-495
- 문희정·주혜선·안현의 (2016). 재난으로 인한 외상성 상실에 대한 추모 현상 분석-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Crisisonomy, 12(6), pp.15-31.
- 박기묵 (2015).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부모들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기술적 접근. 한국콘텐 츠학회 논문지, 15(9), pp.134-145.
- 박수경 (2017).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 커뮤니티에 형성된 치유의 공간에 대한 지리적 고 찰. 대한지리학회지, 52(8), pp.25-53.

- 박재민·홍윤순 (2016). 태릉선수촌의 기억의 장소와 장소성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7(1), pp.147-162.
- 박재창 (2009). 담론민주주의와 시민참여 : 21세기 마을회의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7(1) : pp.57-98.
- 박지영 (2016). 재난으로서 세월호참사의 성격 규정 및 사회복지실천 함의. 공공정책연구, 33(1), pp.1-21.
- 방희조 (2017). 세월호 광장의 공동체적 치유의 힘. 연세상담코칭연구, 7, pp.81-103
- 배천직 (2017). 우리나라 재난피해자 구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구호를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학술대회, 2017.4.14., pp.136-155.
- 서영채 (2020). 기획연재 공간적 전회 the Spatial Turn. 작가들, 73, pp.197-207.
- 서희정·이재규 (2017). 기념공간에서의 집단기억특성과 공간연출요소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2(4), pp.156-168.
- 신혜란 (2007). 심층인터뷰 연구방법론 : 타인에게 배우는 데이터 수집 분석기법, 국토, 307호, pp.60-68
- 신혜란 (2016). 기억의 영토화 : 세월호 기억공간 형성과정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pp.115-154.
- 심영섭 (2018). 집단적 기억과 기억 공간: 에쉐데와 엔쉐데 그리고 세월호. 커뮤니케이 연학 연구, 26(3), pp.177-199.
- 심영의 (2008). 5·18 소설의 '기억공간' 연구. 호남문화연구, 43, pp.233-260.
- 안병직 (2007). 한국 사회에서의 '기억'과 '역사'. 역사학보, 193, pp.275-306.
- 양기근 (2009).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5), pp.249-256.
- 양재혁 2016. 기억의 장소 또는 망각의 장소. 사림, 57, pp.71-100
- 어정연·여홍구 (2010). 장소개념에서의 장소가치에 대한 논의. 국토계획, 45(6), pp.21-34
- 유기영·정주리 (2021). 세월호 참사 후 6 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월호 유가족으로 살아 가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33(3), pp.1315-1347.
- 육영수 (2013). 역사, 기억과 망각의 투쟁. 한국사학사학보. (27), pp.263-284.
- 윤미애 (2020). 매체와 문화적 기억. 독일어문화권연구. 11.
- 윤솔희 (2015.3.). 침체된 도시를 건축으로 일으키다 : 4.16기억저장소와 안산프로젝트, 월간 스페이스, 568, pp.78-83.

- 윤승현 (2014). 세월호 기억저장소 1호관. 건축, 58(12), pp.24-28.
- 이나빈·심기선·안현의 (2017).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침습기억과 사건중심성 간 관계에서 사회적 공유의 매개효과 :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31(4), pp.27-50.
- 이도담 (2016). 문화적 기억과 장소에 관한 성찰. 철학과 문화, 36
- 이민영 (2015). 세월호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 관광지화를 통한 '잊지 않겠습니다'의 실천. 앤쓰로피아, 1, pp.17-35
- 이영범 (2003). 건축의 공공성과 건축가의 공동체 디자인의 참여 : 영국의 예를 중심으로. 건축, 47(4), pp.19-25.
- 이영진 (2014). 2014 년 여름, 비탄의 공화국에서-애도와 멜랑콜리 재론. 문학과사회, 27(3), pp.282-306.
- 이영희 (2014). 재난 관리, 재난 거버넌스, 재난 시티즌십. 경제와사회, 104, pp.56-80
- 이용숙·박승빈·송유정 (2018). 재난 대응 거버넌스에서 지역 NGO의 역할 안산 세월호 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66, pp.210-250.
- 이용재 (2011). 기억의 장소의 국제적 확산과 변용. 프랑스사 연구(25), pp.201-228
- 이재열 (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한국 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pp.23-49
- 이현정 (2016). 세월호 참사와 사회적 고통-표상, 경험, 개입에 관하여. 보건과 사회과학, 43(1), pp.63-83.
- 이현정 (2019a). 4.16 교실 존치 투쟁과 새로운 장소성의 생성 : 피해자성의 기억론을 넘어 인격성의 기억론을 향하여. 기억과 전망, 41, pp.145-188.
- 이현정 (2019b). 재난 후 친족 간의 관계 양상과 친밀감에 관한 연구 : 세월호 참사 유가 족의 경우. 가족과 문화, 31(4), pp.89-121.
- 임승빈 (2017). 재난의 복합화 현상에 따른 복원력(resilience)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 학학회보, 21(4), pp.179-195
- 장수찬 (2002). 한 사회의 대인신뢰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들 :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8(1): pp.47-53.
- 전종한 (2009). 도시 뒷골목의 '장소 기': 종로 피맛골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4(6), pp.779-796.
- 전진삼 (2009). 어느 지방도시의 축복. 황해문화, 62, pp.343-350
- 전진성 (2002). 설림 : 역사와 기억 '기억의 터'에 대한 최근 독일에서의 논의. 서양사론, 72, pp.167.
- 정기용 (2005). 건축·건축가와 사회. 건축과 사회, 여름호, pp.118.

- 정원옥 (2014). 4.16과 애도 담론 :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윤리적 과제. 자음과 모음, 2014.12, pp.318-329
- 정원옥 (2015). 416이후 안산 지역의 촛불행동 애도와 민주주의. 역사비평, pp.65-84
- 주성수 (2015). 세월호 참사 관련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시민사회와 NGO, 13(1), pp.5-38.
- 진예린 (2018). 점유를 통한 장소 만들기 : 광화문 세월호 광장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66, pp.176-209.
- 최성경·문정민 (2017). 한국형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국내 임시대피시설 현황 및 공간구성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8(6), pp.11-19.
- 하상근 (2018). 사회적 자본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및 정치적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0(4), pp.909-937.
- 한은영·김미강 (2013).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 지학, 43, pp.95-124
- 한소정·엄명용 (2019). 세월호 참사 관련 사회복지실천 경험 연구. 사회복지연구, 50(3), pp.185-222.
- 한정민·장정은·전종설 (2020). 세월호 참사 단원고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 보건사회연구, 40(2), pp.9-59.
- 허인숙·이정현 (2004).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과 공동체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5(2), pp.443-472.
- 허심양·최현정 (2017). 재난 후 공동체 리질리언스 촉진 개입 원칙에 관한 체계적 문헌 고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2), pp.255-282.
- 홍영의 (2015). 4·16 참사 기억·기록운동의 전개과정과 의미: 2014년 '세월호 참사'시 민기록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학논총, 43, pp.293-322.
- Forest, B., Johnson, J., & Till, K. (2004). Posttotalitarian national identity: public memory in Germany and Russia. Social & Cultural Geography, 5(3), pp.357-380.
- Hoelscher, S. and D. H. Alderman. 2004. "Memory and place: geographies of a critical relationship." Social & Cultural Geography, Vol. 5, No. 3, pp.347~355.
- Lewis, LS. 2002. Laying claim to the memory of May: A look back at the 1980 Kwangju Uprising.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Myers, R.(2005), "Rethinking the Worst Case", CFO, 21(16): pp.89-91.
- Ma, S. M. (1993). Lawrence Langer. Holocaust Testimonies: The Ruins of Mem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1. 216 pp. AJS Review, 18(1), pp.125-127.

- Radstone, S. 2008. "Memory studies: For and against." Memory Studies, 1(1), pp.3 $1\sim39$
- Saul, J., 2014, Collective Trauma Collective Healing,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Sontag, S. (2003). Regarding the pain of others. Diogène, (1), pp.127-139.
- Vromen, Suzanne. (1993). Reviewed Work: Maurice Halbwachs on Collective Mem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22), pp.510-512
- Waugh Jr, W. L., & G. Streib. (2006). Collaboration and leadership for effective emergency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 pp.131~140.

보고서 및 발표자료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9).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심화연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 김명희 (2019b). 피해자에게 추모의 의미와 사회적 성찰: 피해자의 권리에 입각한 회복과 치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9년 제2차 사회적참사 피해지원 포럼, pp.5-26
- 김소라 (2019). 추모 공간의 지역공존과 가치확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9년 제2차 사회적참사 피해지원 포럼, pp.57-61
- 김민환 (2019). 사회적 기억의 과정과 추모의 역할: 생명안전공원에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제2회 사회적참사 피해지원 포럼. pp. 29-39.
- 김익한·이은경·이응택·김하나·최준규 (20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의 생활실태 및 심리상태에 따른 공동체 욕구조사.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pp.1-131
- 아주대학교 (2014). 지역사회 건강조사 기반 사회심리 및 안전인식도 조사. 질병관리본부.
- 안산시 (2016). 4.16세월호참사 안산시 백서 : 수십지원 활동 1년의 기록. 안산시 세월호 사고 수습지원단
- 안산시 (2018). 세월호 그 곁에 선 사람들 인터뷰 기록집. 안산시 희망마을사업추진단
- 우리함께 (201(6). 마을 창작단과 함께하는 마을길 조성 프로젝트 : 추억을 담은 학교 가는길. 안산시 희망마을사업추진단
- 이현우 (2018). 안산의 땅이름 이야기. 안산문화원 안산향토사연구소
- 신혜란 (2019). 추모의 인식확산 과정과 사회적 합의 방안.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 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9년 제2차 사회적참사 피해지원 포럼, pp.47-56
- 한국도시설계학회 (2017). 세월호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국무조정실

보고서.

- 희망제작소 (2020).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 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 안산 시 희망마을사업추진단
-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2019),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경기도 : 창비.
- 4.16안산시민연대 (2019). 4.16생명안전공원 국제설계공모 시민지침서. 4.16재단 보고서.
- Petzet, Michael (2008) Genius Loci The Spirit of Monuments and Sites. In: 16th ICOMOS General Assembly and International Symposium

인터넷신문기사

- 강창구 (2014.5.5.). 세월호참사 전국 분향소 조문객 115만명 기록.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40505026000061 (검색일자 : 2021.10.21.)
- 강희청 (2016.02.19.). 단원고 기억교실 갈등, 참교육 장으로 남겨야 vs 이제는 학생에게 돌려줘야.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33452&code=11131300&si d1=soc (검색일자: 2021.05.30.)
- 권길여 (2019.4.14.). 세월호 생존학생, 트라우마 극복하고 제주도 간다. 엔터네인먼트. https://www.insight.co.kr/news/222383 (검색일자 : 2021.10.25.)
- 권민철. (2015.4.6.). 세월호 유족 최초 실태조사 보고서.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393074 (검색일자 : 2021.11.7.)
- 권복기 (2014.4.25). 오바마 대통령, 단원고에 목련 묘목 전달. 허핑턴포스트코리아. https://www.huffingtonpost.kr/2014/04/25/story_n_5211018.html (검색일자 : 2021.6.5.)
- 김기성 (2016.5.08.). 이삿짐센터 불러 기억교실 치우려한 단원고. 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society/area/742850.html#csidx74a3148a976ce2d88 5bb54208e79a8d. (검색일자: 2021.8.3.)
- 김도란 (2018.4.18.). 단원고 기억교실 똑같이 재현…4·16민주시민교육원 2020년 개원. 뉴 시 스 .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418_0000285166&cID=10803&pID=1 0800 (검색일자: 2021.7.31.)
- 김명진·홍용덕 (2016.8.20.). 단원고 기억교실 585일만의 이전.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757599.html#csidx0d18abd3f7a11 2fad5425f402d7ce72. (검색일자: 2021.8.3.)
- 김미경 (2007.12.21.). 세계가 사랑한 헵번, 그녀가 사랑한 제3세계.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290(검색일자 :

2021.06.16.)

- 김민정 (2016.12.30.) 세월호 분향소 탓 영업피해 소송 낸 상인들 패소.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12301072856181 (검색일자 : 2021.6.20.)
- 김수미·권이선 (2014.04.29.) 실종자 가족 숙소 난민촌 방불", 세계일 보.https://www.segye.com/newsView/20140429004959?OutUrl=naver (검색일 자 : 2021.5.18.)
- 김유진 (2018.4.13.). 철거되는 안산 합동분향소, 잊지 않고 찾아준 국민 덕에 견뎌. 해럴 드 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413000315 (검색일자: 2021.5.26.)
- 김진영 (2014.5.2). 정치적 애도가 본질이다. 시사매거진 나들, http://na-dle.hani.co.kr/arti/issue/710.html (검색일자 : 2021.10.21.)
- 류수현 (2015.4.10.). 세월호 이후 안산 주민 10명 중 1명 꼴로 우울증세.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50410050100061?input=1195m (검색일자: 2021.11.2.)
- 박상연·김가현·오세진 (2021.7.31.)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길…" 끝내 광화문에서 사라진 세월호,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31500036&wlog_tag3=naver (검색일자: 2021.07.31.)
- 박지윤 (2021.4.29.) 수백 명 목숨 앗아간 자리.."집값" 앞에 추모는 혐오가 됐다. 한국일보. https://news.v.daum.net/v/20210429043103598?x_trkm=t&fbclid=IwAR0zeXYV pKh3GnyWdtwDZ8E6iikd3A-nqC5ZHcIPS3giGVlUIewO9teZ_2k (검색일자 : 2021.12.20.)
- 서보미 (2014.8.14.). 촘스키, 세월호 단식 유민 아빠에게 응원편지.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651166.html (검색일자 : 2021.12.10.)
- 오로라 (2021.2.29.). 재산 10조 카카오 김범수 절반이상 기부. 조선일보 .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02/09/NPBEJGFXNZECPNVI7LA DJE67SI/ (검색일자 : 2021.11.8.)
- 오만학 (2021.6.22.). 4.16민주시민교육원 초대원장 전명선 인터뷰, 매일경기, http://www.migg.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0 (검색일자 : 2021.5.31.)
- 오미환 (2015.4.10). 한뼘 타일에 새긴 슬픔과 다짐, 팽목항 '기억의 벽' 이어나간다. 한국 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4101927939268 (검색일 자: 2021.7.21.)
- 옥기원 (2014.6.25.). 단원고 생존학생 눈물의 첫 등교, 평범한 학생처럼 대해달라. 민중

- 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0766989.html (검색일자 : 2021.5.20.)
- 이근평 (2015.2.2.). 광우병·盧서거·세월호 "각종분쟁 이념화 …상대를 惡간주 갈등증폭. 문 화 일 보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20201070521159002 (검색 일자: 2021.7.11.)
- 이석재 (2014.7.23.), 세월호 슬픔 가득한 안산..지역경제 침체 심각, SBS Biz. https://biz.sbs.co.kr/article/10000673526?division=NAVER (검색일자 : 2021.6.20.)
- 이정애 (2014.12.31.). 광복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2040 "세월호" 5060 "한국전쟁".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1733.html#csidx0b301707ab 562fd826fbd59c1384020 (검색일자: 2021.10.21.)
- 박광윤 (2017.10.2.), 2017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작가정원 대상, 환경과조경, https://lak.co.kr/news/boardview.php?id=3087 (검색일자 : 2021.6.20.)
- 유상우 (2014.8.16.). 고통받는 사람, 지나치지 않는다. 교황 세월호 유족앞에 차 세우다. 뉴시 스. https://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16_0013112415&cID=10217&pID=10200 (검색일자: 2021.8.4.)
- 유성애 (2015.3.30.,). 빈방에 주인 잃은 물건만 가득, 아이들의 방 전시.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42 71 (검색일자: 2021.6.21.)
- 윤희일 (2016.3.27.), 일본은 지진 현장 '기억교실' 보존키로..."가만 있으라" 지시에 큰 피해 본 학교 남겨두기로.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3272029051#csidx79a7b697d4b7512b21f304a4002699f, (검색일자: 2021.05.30)
- 이민아 (2021.7.17.). 기억에 예의를 갖춰라. 한겨레21.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647.html (검색일자 : 2021.7.18.)
- 이주희 (2014.4.24.). 잔인한 시간이 흐르는 곳, 진도 실내체육관을 가다. 투데이 신문,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3 (검색일자 : 2021.7.18.)
- 이종희 (2021.7.29.). 김인호 의장 '세월호 기억공간 협의체' 구성 제안…오세훈 전향적 검토하겠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9_0001530692&cID=10201&pID=10200 (검색일자: 2021.7.31.)
- 이진순 (2018.6.29.). 집은 쇼룸이 아니다 : 건축가 조성룡,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1298.html#csidx6f0e7119 15d7cb1b370fa693ed68a7b (검색일자 : 2021.6.19.)

- 이재언 (2014.1.11.). 어장터가 좋아 전국 최고의 멸치잡이 섬 동거차도.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68 91&CMPT CD=SEARCH(검색일자: 2021.6.19.)
- 이형주 (2017.9.30.). 세월호 아픔, 희망의 메시지로 전하는 기억, 아이들의 정원. 환경과 조경. https://lak.co.kr/news/boardview.php?id=3079 (검색일자: 2021.6.20.)
- ____ (2020.8.18.). 목포 세월호생명기억관 조성 본궤도. 환경과조경. https://www.lak.co.kr/news/boardview.php?id=9568 (검색일자: 2021.11.20.)
- 정규재 (2014.4.22.). 슬픔과 분노를 누그러뜨릴 때. 한경뉴스.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4042193961 (검색일자 : 2021.10.30.)
- 정희성 (2021.4.14.). 빛바랜 리본녹덩이로 변한 선체, 7년 흔적 역력한 목포신항. 연합뉴 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4129651054?input=1195m (검색 일자: 2021.12.24.)
- 조완동 (2020.7.28.). 목포시, 세월호 선체 고하도 거치 시민 설문조사 찬성 74%, 내외뉴 스통신.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562 (검색일자: 2021.10.18.)
- 조형국 (2014.5.15.). 참사 현장 후대의 교훈 삼게 첫 민간 주도로 기록 남긴다. 경향신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 2&aid=0002477919 (검색일자: 2021.6.21.)
- 진태원 (2012.1.6.). 명저 새로 읽기,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1201061949525#csidxfd1c2989308ec62a83ee 8e628920c5e (검색일자: 2021.8.23.)
- 최영경 (2014.7.23.). 세월호 참사 100일, 진도 팽목항에 하늘나라 우체통 설치. 국민일보. 2014.07.23.,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529966&code=6 1121111&cp=nv (검색일자: 2021.8.1.)
- 최선욱 (2014.4.24.). 단원고 앞에 합동분향소라니... 학생들 탄식.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4013255 (검색일자 : 2021.5.3.)
- 최예린 (2016.1.28.). 세월호 아이들의 꿈 "인형으로 만들어 기억합니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305.html#csidx9fcfd32f5 b0d5109b69aae8212ed094 (검색일자: 2021.8.5.)
- 최용락 (2021.7.31.). 애들에게 '한 번만 더 이사가자 미안하다' 이랬어요. 프레시안. https://news.v.daum.net/v/k9Ivlm1Z2F (검색일자 : 2021.8.3.)

웹사이트

- 4.16기억저장소 (2019). 사료이야기 : 단원고 4.16기억교실. 2021. 05. 30 인용 : http://www.416memory.org/collection_col2/view/6823
- 4.16생명안전공원 국제공모전 http://www.416memory.org/collection_col2/view/6823

Abstract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Memory Places Created Following Social Disasters

: Focusing on the Sewol Ferry Disaster

Kim, Dohu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A social disaster is defined as a series of events, such as a fire, collapse, or explosion, that cause economic harm and public outrage, leaving behind psychological trauma on the public. Such major disasters have continued to strike Korean society. Damage and wounds caused by disasters were formerly perceived as only affecting the individual victims, but with a change of perception following the Sewol ferry disaster, it has now been re-framed as a serious social issue. Through accumulated experiences, society came to realize that while the individual suffers from direct physical injuries of a disaster, the community as a whole suffers from significant negative aftereffects as well. As a result of this

experience, society has attempted to avoid treating disasters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lone and instead, a consensus is being formed among its members in consideration of the position and circumstances of local communities and victims. Particularly, this paper pointed out that in the case of Sewol Ferry, members who were familiar with the region sympathized with the victims and sought to prevent the spread of mass trauma. This can be seen as having contributed towards overcoming the initial difficulties caused by social disasters and managing the risk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Social disasters threaten individual lives and property, as well as national stability. However, it also creates the potential to bring about transitions and changes in the times. An experience of tragedy can be a motivating force for social healing and community recovery. Therefore, the sense of unity revealed in disasters can serve as a powerful force to overcome difficulties, and the process of healing and recovery can foster societal change. During the social disaster of the Sewol ferry case, victims' return to their communities was promoted, which restored social relation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community integration. Thus, with a focus on the Sewol ferry disaster, which reflects a pattern of change of times,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is disaster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previous disasters.

In April 2014, many people expressed sympathy and condolences for the victims' pain as they watched the ship sank and observed the process of collecting of dead bodies. Unfortunately, the prolonged handling of the incident led to the issue of disaster sites spreading to local communities, causing resentment and becoming a significant trauma. Grief affected not only the bereaved, but also

friends, neighbors, local merchants, and ordinary citizens. Then, the tragedy on the Sewol ferry created an opportunity for change. Through this incident, society hoped to spread the values of memory, promise and respect for human life through public support. It carried out practical activities to turn the deaths of the victims into a social lesson and a matter to reflect. It created an atmosphere of remembering and reflecting on the experience of social disaster rather than forgetting it or turning a blind ey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many social disasters similar to these, but in most cases, memories of place have been disappeared or cosmetic commemorations have taken place. In most cases, disasters are recognized as serious situations in the early stages, but then forgotten over time, until they become only a memory of something that happened in the past. Concerning the Sewol ferry disaster, however, efforts have been made to preserve and spread the memory of the disaster site. The aim was to remember the victims and to create a better society through this lesson. During this process, the study focused on the memory of place that served as a medium or platform for remembering and acting. This site was judged to have been crucial in responding to disasters and overcoming them.

In the study, the Memory Place of the Sewol ferry disaster that emerged in this manner was examined, along with its spati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meaning. In light of changes in social situations and conditions, the types of generative changes the memory place has undergone were analyzed and their characteristics and roles were identified. For in-depth analysis and insightful judgment, participatory observation including spatial and social semantic analyses were used to obtain the results. In this study, we

aimed to find out whether the physical space of a memory place can be a medium for healing and recovering from a special situation such as a disaster.

A place of the Sewol ferry disaster extends beyond the sea where the incident take place. Various relevant places related to the incident were mentioned as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issues developed simultaneously. A total of 15 other Memory Places across five regions were examined. This includes the disaster site Jindo Paengmok Port, Mokpo New Port, Ansan Danwon High School, Seoul Gwanghwamun, Jeju Island. This study did not limit the disaster site to the place where the disaster occurred, but instead examined 15 other memory places across five regions, which held the wishes of the bereaved family and the hearts of citizens.

In this study, the first discussion was about how the concept of memory places was formed and why they were significant. By region and subject,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memory places that are scattered across the country were examined in consideration of their current status. Additionally, the formation and change process of memory places has also been identified through discourses formed in accordance with social, spatial, institutional, and economic situations. By doing so, the multidimensional meaning of a memory place that emerged during a disaster could be analyzed and interpreted. Following that, the development of the Sewol ferry disaster has been examined step-by-step from 2014 to the present, and the effects of changes in time and time-specific issues have been assessed. Synthesizing these processes led to the discovery of a mechanism for creating and changing memory places. Semantic interpretation can produce both positive and negative results, as well as implications for unexpected aspects. As a result,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the memory places as well as their motivations for existence and demands could be revealed. Using this method, the study derived conclusions about the social significance of memory places. In conducting the research, this study sought to present a new approach to overcoming disasters and responding to them based on the results generated from understanding and analyzing the Memory Place.

Through the formation and change process of the 'production, extinction, and transformation,' this study derives three spati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The first characteristic is 'production of physical and non-physical places for memory and empathy'. At disaster sites such as Paengmok Port, Donggeocha Island, and the ocean where the ferry sank, physical places still exist, and they contain the memories of the site. Also, it can be seen that the non-physical place has emerged as a platform that expressed empathy through gifts, letters, and candlelight cultural festivals. The second characteristic was "extinction of places as a result of oblivion and neglect" as observed in memorial altars set up by the memory-classes at Danwon High government, School Gwanghwamun Square. This involves a situation in which space and place vanished due to value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of interest. Third, there is a new feature of the transformation of places that is observed in the Sewol ferry disaster, which is different from previous disasters. "Transformation of places through alternative memory activities" occurs when a place becomes a place of social empathy by giving meaning to the keepsakes of the victims and personal memories, and the social practices delivered by remaining people for the deceased were identified as features that were unique to this context. The three special meanings were derived in this study as such, and it was found that the memory place was a valuable method for overcoming the disaster.

Up to now, disasters have been regarded as past records in Korean society, and it has been difficult to find incidents that have transformed into social empathy for pain and historic significance. This study revealed, however, that traces of memories left by citizens in Jindo, Ansan, Mokpo, Seoul, and Jeju Island still remain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social exchange activities have continued ever since. Often, the difficulties brought about by the previous disaster led to disagreements in the local community. Nevertheless, it was found that community conflicts and ideological disagreements were wisely resolved and that a new turning point was prepared through the memory place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In fact, there were attempts at solving the conflicts through public debate strategic concessions, rather social and than oppression. Accordingly, this study concluded that memory places can serve as platforms for resolving misunderstandings and distrust, as well as creating social consensus to help overcome disasters and tragedies.

So far, memory places created in the wake of a social catastrophe have been solemn and reverent, so they have not been able to spread socially and gain public sympathy. Consequently, the need for a memorable place, such as a cultural space, where people could remember the pain of the past in everyday life rather than just on special occasions by certain people. This study showed that the memory place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gave rise to new spatial forms and functions not found anywhere else. They promoted the coexistence of heterogeneous concepts such as "past and present," "life and death," and "despair and hope," and served as "everyday

memory places" that allowed these concepts to become part of our lives in a natural way. It is a future-oriented value that goes beyond recording, leaving, and preserving the past, thus re-creating the present and future. This study revealed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memory places that were unique to the Sewol ferry disaster,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memory places contribute to overcoming disaster situations and improving resilience. The same can be applied to other disasters and tragedies in the future, so that they can also become an opportunity for social reflection and a lesson in history. Accordingly, this study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disaster recovery and operation management based on memory places.

Keyword : Social disaster, the Sewol ferry disaster, Memory place,
Participatory observation, Formation and change process
of Place, Daily memories

Student Number : 2012-30676